

# MAXIM



KOREA

## Motor

한겨울 BMW 650i 컨버터블 오픈 토크  
LEXUS, 욕망의 명품에서 남자의 명마로  
CAR OF THE MONTH: 벤츠 G클래스

## MISS MAXIM CONTEST WINNER

2013년의 맥심을 책임질 여신의 신고식

## UFC HOT GARAGE

**Arianny Celeste**  
**Brittney Palmer**  
**Kenda Perez**

## Music & Alcohol

크라잉넛 vs. MAXIM 음주 인터뷰  
대구 짝고 부산! 에디터의 클럽 원정기  
구하라 현아 효린 & 싸이, 3 대 1 소주 배틀

2013년 1월호  
정가 5,900원

## KBS 2TV 사랑과 전쟁II 한그림

스타 한 명 없이도 동시대 최고 시청률,  
전 연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리얼(블루?) 드라마 KBS 2TV <사랑과  
전쟁 2>. 그 뜨거운 인기 비결에는  
한그림이라는 숨은 보석이 있었다.  
지구에서 제일 예쁜 여자임에도 자신이  
얼마만큼 스타인지도 모른 채, 소속사도  
매니저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스쿠터로  
이동하며, 미니홈피에 댓글을 일일이  
달아주는 그녀. 한그림의 사랑스러움에  
빠지면 답이 없다.

## Game

본격 수타 온라인 게임 <삼국 야망>  
맥심이 선정한 최고의 게임 캐릭터:  
FORCE ARCHER in 카발 온라인 2  
게임 업계의 마케팅 전략 분석 리포트



<별책부록>

2013년 잡지계  
최강의 레어 아이템

## World of Tanks

MAXIM 스페셜 캘린더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2013년부터 16 페이지 증면!

WWW.CLUBOCTAGON.CO.KR

NO 4  
CHRISTMAS  
WEEKEND

CLUB OCTAGON PRESENTS



*The*

# MAXIM

# Party

With J.K Corporation

## DJ'S

DJ KOO / BEEJAY / MINDBENDER / G-TECH / SODEF / AK / MOAI  
SHAI / ARIKAMA / KINDERGARTEN / PASCAL DIOR / ROXY

## VJ'S

VJ GRAYMAN / GAGATRACK

12/23  
SUNDAY  
2012

ID Checked, No Minors Allowed.  
20세 이상 신분증을 소지한 분들만 입장가능합니다.

Reservation +82 2 516 8847  
+82 10 2098 8798

Entrance 10,000 WON

octagonseoul.com/cluboctagon.co.kr  
www.facebook.com/cluboctagon  
@club\_OCTAGON

OCTAGON

# Contents

JANUARY / 2013

# 85

아리아니 셀레스티  
브리트니 팔머  
켄타 페레스

섹시 폭탄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그녀의 UFC 옥타곤걸 친구 브리트니 팔머와 켄타 페레스와 함께 MAXIM을 찾아왔다. 한 명이랑 친해봤더니 3배로 새끼를 치는구나! 예쁜 것들은 못생긴 친구랑 다닌다는 속설은 잘못된 정보였다.

# Contents



## CIRCUS MAXIMUS

- 18 눈이 오면 필요한 것: 제설기구, 연화칼슘, 그리고 MISS MAXIM의 화끈한 화보
- 20 남자들은 모르는 여초 커뮤니티의 모든 것
- 22 세상에서 가장 명칭한 죽음
- 24 짜빠구리를 이을 차세대 하이브리드 라면은?
- 26 2012 F/W 분노의 심볼들이 한자리에

## HOW TO

- 28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가 알려주는 책상 정리법
- 30 신기한 극진가라데 활용법

## MUSIC

- 34 MAXIM ATTACK: 크라잉넛과의 취중 인터뷰

## COMMENT

- 39 누나 미모 배틀: 성유리 vs. 한혜진
- 40 설날에 어울리는 1월 개봉 영화
- 43 오장육부를 뒤집어놓은 만화 속 베스트 수술 신 5선
- 44 에디터가 고른 자기계발서 2권, 니 인생에 도움이?

## SMOKE&DRINK

- 46 소주 전쟁: 현아, 하리, 효린 vs. 싸이
- 48 연애 도와주는 맥주: 슈나이더 아베트누스 바이젠 아이스북
- 49 세계 맥주 여행: 허를러도 반한 맛, 독일 밀맥주
- 51 대체 뭘 짓이나? 12·8 맨숀 개명 사건

## SPORTS

- 52 국내 미녀 배구 선수 TOP 5
- 늘씬한 몸매에 가공할 점프력, 시원하게 내리꽂는 스파이크는 수컷의 아드레날린을 펌프질하기에 충분하다.

## STYLE

- 54 이 농구화 신으면 머리가 하늘까지 닿나요?
- 56 당산 목덜미에 그녀 서선이 꽃힌대 멋진 넥타이 6종
- 62 아달에 MAXIM이 지른 코트: 피어리 vs. 카스탐멜로우
- 64 실험삼: 여자 번호 득템률이 가장 높은 스타일업?

# 114

## 한그림

금요일 밤마다 우리를 TV 앞으로 모이게 한 <사랑과 전쟁 2>의 히로인 한그림이 MAXIM에 강림했다. 웬지 올해는 뭘 해도 다 잘될 것만 같아.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 35400.Z1

# PERFETTO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 영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042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68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신세계백화점(영등포) 02)2639-1337
- 현대백화점(중등점) 032)623-2163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대명백화점(광명점) 055)212-8383
- 오레피타임(동산점) 02)2012-0625
- 힐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워치룩(노원점) 070)4136-5090
- WatchF1(부평점) 032)501-7015
- 예천시계(대전점) 042)280-9117
- G-ZONE(구미점) 054)455-2410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롯데백화점(광원점) 055)279-3119
- 신세계백화점(경계점) 031)695-1277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이 와 치(명동점) 02)771-7033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굿모닝시터(동대문) 02)2118-8075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타 임 린(부평점) 070)7516-4545
- 상 싱 사(대구점) 053)422-3002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터폴고울(일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43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공북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구로점) 02)639-512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세운스퀘어(종로점) 02)2272-2688
- 디큐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행 기 통(부천점) 032)662-0686
- 엘 기(대구점) 053)255-6940
- 골드 룩(광주점) 062)410-0137
- 타 임 볼(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장성점) 02)2143-7282
- 롯데백화점(일산점) 031)909-3293
- 롯데백화점(대진점) 042)601-2149
- 롯데백화점(서안점) 051)810-4138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사문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헤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불 랑(부산점) 051)245-7965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롯데백화점(명동점) 031)8086-9248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와 와 치(강남점) 02)537-8977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원 타 임(광명리) 02)2200-1355
- 탑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제이올렉션(천안점) 041)564-5465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파 니(광주점) 062)671-7458
- 롯데백화점(청량리) 02)3707-1190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가든퍼미브(송파점) 02)2157-5000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미 금 사(중랑점) 02)434-488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북 와 치(청주점) 043)223-1333
- 엘 기(구미점) 054)451-6940
- 조 이 필(포항점) 054)613-1170

# Contents



## STUFF

- 68 Upgrade or Not? 윈도 8
- 70 하이엔드 컴팩트 디카 슈퍼 테스트
- 74 B&W A7 무선 스피커 시스템
- 76 레알 수컷들만 갖고 놀았던 미니카

## MOTOR

- 79 이달의 자동차: 벤츠 G클래스
- 80 MAXIM 시승기 #23: BMW 650i 컨버터블
- 82 MAXIM 시승기 #24: 렉서스 GS350 F-SPORTS

## GAME

- 99 이달의 여신 캐릭터: 포스 아처
- 100 본격 수타 온라인 게임 <삼국 야망>
- 102 애플도 울고 가네! 흥미진진 게임 마케팅

## FIGHT

- 104 ROAD FC 010: 거친 남자의 도시 부산에서 타오른 불꽃 격투
- 108 MMA 최강 타격가 TOP 30

## TOP 10 SNAKE

- 124 뱀띠 해를 맞아 가려본 최고의 뱀 10

## ICON 정두홍

- 126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 감독을 만났다. 형님, 한수 가르쳐주세요!

## 스턴트우먼의 세계

- 130 뛰고, 처박히고, 추락하고, 넘어지고... 게다가 미안?

## HOTTEST

### MISS MAXIM

- 136 2012년 MISS MAXIM 최종 우승자는?

## MAXIM REPORT #6: 스피드 데이트 체험기

- 145 주어진 시간은 7분,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라. 에디터의 스피드 데이트 체험기

## MAXIM FROM RUSSIA

- 150 러시아 최고 미녀의 란제리 유혹

## S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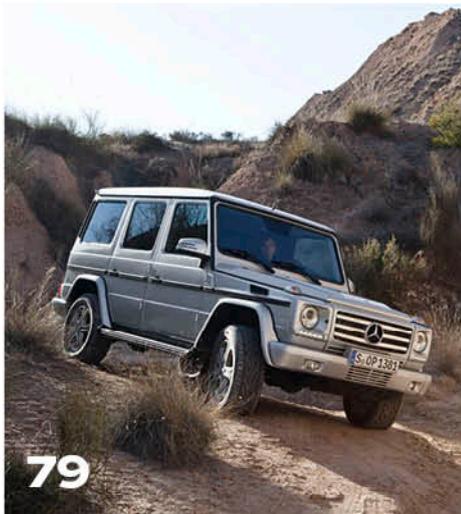
- 158 배워봅시다! 맥스터의 테이블 섹스
- 159 오렐 섹스 잘 하는 법: <하>편

## MILITARY

- 162 전장의 진수성찬: 전투식량

## PARTY

- 166 에디터의 부산/ 대구 클럽 빙랑기





HELL DIVER

1942 SB2C



헬다이버 | <http://www.helldiverwatches.com> |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총판 프로워치 02.779.6964

서울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원 타임(왕십리) 02-2200-1355 | 헬로APM 6F(동대문) 02-6388-2927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이타임월드(신촌) 02-313-4108 | 와 와 치(반포) 02-537-8977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타임랜드(은평) 02-350-8471 | 이 와 치(명동) 02-771-7033

경기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티파니(일산) 031-931-5300 | 뽕끼통(부천) 032-662-0686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 031-466-1014 | 탐타임(안산) 031-413-7656

인천/충주/부산

워치보이(인천) 070-8632-5300 | 타임런(부평) 070-7516-4545 | 북와치(충주) 043-223-1333 | 타임봄(부산) 070-7530-1219

# LAYERED UP&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티타임 www.eurotime.kr



[면세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영등포 (02-2630-6883) / 대전 (042-601-2253) 신세계백화점 천안 (041-640-5496) / 광주 (062-360-1291) 현대백화점 부산 (051-667-1159)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구로 (02-839-5128) / 원주 (033-811-5535) / 광복 (031-646-6139) NCB백화점 순천 (061-720-5124) 뉴코아백화점 안산 (031-8085-1708) / 울산 (052-210-4010) / 아람 (031-701-6841) 2001아울렛 분당 (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저영 (02-455-6841) / 포항 (054-278-6848) 디유백화점 구로 (02-2211-0143) / 가재 (055-680-0183)

#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주임 이영화 lyh@maximkorea.net  
주임 조중재 wj@maximkorea.net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ri@maximkorea.net  
박종원 tt3314@maximkorea.net  
최동희 t578@maximkorea.net  
최성준 csjet89@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이용수 (각종 토크리스트) 김덕중 ((엑스포츠) 기자)  
김대영 ((디앤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광희, 박종현 (라면 리뷰어 '누들라')  
급사니스트 (카툰 작가)

##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천은경 eun@maximkorea.net  
객원 한성미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비서 김화현 sm@maximkorea.net  
인턴 이현구 leehg@maximkorea.net

## Web Service / 웹

토크 웹  
팀장 서정민 oreiss@town.com

##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실장 김영석  
실장 박 울  
오주섭

## 교열

신선경 kshin0111@daum.net

##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응관

## Printing / 인쇄 인쇄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성지석리 192-1 인쇄인 이원순

##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1월호 통권 제33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AUSTRALIA**  
Santi Pintado  
**BULGARIA**  
Alexander Zhekov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GERMANY**  
Mike Bleibtreu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Paolo Gelmi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íaz Rojo  
**POLAND**  
Krzysztof Paplińsk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Lazar Jovanovi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urawong Krueafan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상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GIORGIO FEDON  
1919



**HAWK EYE**



# Letter From MAXIM

## 한 표의 힘

어릴 때 반장 선거에 떠밀려 후보로 나간 적이 몇 번 있다. "OOO를 추천합니다" 그 OOO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경우엔 등줄기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불길함이 엄습한다.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뼈를 누군가 바늘로 삭삭 긁는 듯한 긴장감에 몸이 주눅주눅 경직되는 경험은, 나에게겐 살면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이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경우 단상에 서서 "하여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공약 같지도 않은 공약을 말하고 내려오면 곧 투표가 시작된다. 득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무심한 표정을 지어보려 해도 소용이 없다. 개표자가 후보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 심장이 제멋대로 찢어질 듯 쿵광거리며 뛰기 때문이다. 이제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그리고 모두에게 공시되는 '숫자'가 분필로 칠판에 하나씩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은 대선이 있는 달이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번 호를 서점에서 집을 무렵엔 18대 대선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이미 새 대통령의 당선 인사와 향후 인수위 활동, 각종 인사 명령 등의 뉴스로 도배되어 있을 것이다. 두 유력 후보 중 하나는 18대 대통령이 된다. 아마 저 소박한 반장, 부반장 선거는 비교도 안 될 규모지만 어쨌거나 본질은 같다. 개표 결과는 곧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자들의 냉정한 평가이자, 그가 짊어지고 가야할 책임이다. MAXIM도 지난 12월엔 두 가지의 중요한 투표를 실시했다. 하나는 2012 MISS MAXIM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온라인 배틀 투표, 또 다른 하나는 지난 12월호에 질러놓은 "기존 MAXIM 매거진에서 몇 페이지 증면할까요? 아님 그냥 하지 말까요?"에 관한 독자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2012 MISS MAXIM 우승자는 이미 다들 알지? 투표가 한 중 앙국 네티즌의 투표전으로 치달으며 겨우 8표 차이로 희비가 교차되는 바람에 우리 편집부원 모두 손에 땀을 쥐었다. 이 내용은 인터넷 뉴스로도 보도될 만큼 화제였다. 우승자 단영(Danning Fu)양과 준우승을 차지한 엄שמಿಯ 앞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MAXIM을 통해 독자와 계속 만나게 된다. 우승을 기념하는 MISS MAXIM 특별 화보는 이번 1월호에 담겨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의 열기뿐 아니라 투표율 역시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콘테스트에 대한 독자와 모델들의 열망이 깊힌다. 다음 달부터 2013 MISS MAXIM 콘테스트의 전 과정을 매거진과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기대하시라! 또한 아직도 남친에게만 핫바디를 공개하는 여성 독자들은 눈팅만 하지 말고 어서 MISS MAXIM 콘테스트에 지원하시라. 용기있는 여자만이 50만 MAXIM 독자의 연인이 된다. 또한 세계 81개국에 걸쳐 공신력을 지닌 국제기구(?) MAXIM이 인증한 미녀가 되는 거다. (못 믿겠으면 해외 나가서 외국 남자들에게 "내가 MAXIM 모델"이라고 말해봐라. 눈갈 환자를 드러내며 구애를 펼칠 거다. 주변 여자들은 전부 당신의 들러리가 되는 거지.) 페이지를 늘리는 것에 관한 독자 설문조사 결과, 무려 65%에 이르는 독자들이 300원 인상을 무릅쓰고 "16페이지 증면"을 선택했다. 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더 많은 MAXIM 콘텐츠'란 걸 확인하니, 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쿨거영 빌려거리며 16페이지 증면을 확정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2013년 1월호는 지난 달보다 두껍다. 늘어난 16페이지는 약속대로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만 채웠다. 마음에 드실랑가 모르겠다. 물론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편집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 역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그래도 독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MAXIM의 콘텐츠를 인정하고 원한다는 의견을 접수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양적, 질적인 성장을 뿌악 보여주겠다. 앞으로도 MAXIM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달라. 특정 여자 연예인을 섭외해달라는 애절한 마음은 섭외 요청 게시판에(벌써 2건이나 '드림컷트루' 해드렸다), 당신 손으로 향후 MAXIM의 여자 모델을 결정하는 한 표 행사는 MISS MAXIM 콘테스트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결정이나 증면 등에 대한 중요한 독자 설문조사는 온라인 투표 배너를 이용하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2013년 1월 편집장

이영미

늘려.



real **automatic** watches for man



AR510SWS AUTOMATIC

New York based watch brand, Arbutus, introduces a new range of mechanical watches in South Korea. Targeted at entry level watch collectors in South Korea, it's perfect for the consumer who is just starting to appreciate the craft of horology. Arbutus's exquisite fully mechanical watches amalgamate precision mechanical movements and sophisticated designs.

수입처 : GLOBAL TIME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ARBUS**<sup>®</sup>  
New York

www.arbutus.co.kr



## ROAD FC 010. IN BUSAN 화끈한 격투의 세계로!

금강산이 로드 FC라면 '식(食)은 단연 로드걸이다. 경기 시작 전부터 시작된 취재진의 플래쉬 세례 속에서 빛을 내뿜었던 로드걸을 MAXIM이 직접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 시선이 머문 빈도수로 보아 '로드걸 FC'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로드 FC 파이터들의 격투 역시 그 못지않게 화끈했다. 패기로 뚫돌 뚫친 '영건스' 경기를 시작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불혹의 UFC 파이터 제프 몬슨과, 데니스 강을 조용히 잠재운 바 있는 로드 FC 챔피언 오야마 순고, 상 남자 파이터 남익철 등이 출전하며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 갔다. 조용한 혁명의 도시 부산에서 타올랐던 파이터들의 격투 현장이 궁금하다면...

서둘러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접속하십시오!



### THIS MONTH'S HOT SCAN

12월호 잡지 속 QR 코드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스캔해낸 기사는 지난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MAXIM 여직원 간의 미모 대결 페이지다. QR 코드 속 영상에 등장하는 MAXIM 여직원들의 모습에 반해 MAXIM 입사에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들이 급증했다고 하니...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한 독자들은 지난해 24페이지 QR 코드를 스캔하도록!



### 섭외 요청 기사판들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는?

이달의 HOTTTEST REQUEST 주인공은 tvN <SNL코리아>에 출연 중인 김슬기 양이다. 섭외 요청 기사판 속 쪽방 여인들을 싸그리 제치며 최다 득표를 기록 중인 김슬기양은 귀염귀염 열매만으로(물론 몸매도) 섭외 요청 기사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녀는 MAXIM이 예의주시하며 때를 노리고 있을테니, 섭외 요청 기사판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섭외 요청 MISSION COMPLETE



2012. 10 강예빈      2012. 12 배소은

### MAXIM ONLINE POLL

## MAXIM 잡지의 기사를 더 늘릴까요?

- 기사 16p 늘리고 300원 인상 (1394표 65%)
- 안 늘리고 가격 유지 (659표 30.7%)
- 기사 8p 늘리고 200원 인상 (92표 4.3%)



지난 12월호 LETTER FROM MAXIM에서 밝힌 바와 같이 MAXIM의 기사 페이지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다. 결과는 보는 바와 같이 '기사 16p 늘리고 300원 인상'으로 확정. 2013년 1월부터 늘어나는 16페이지는 약속한대로 더 알차고 화끈한 기사로 채워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 WORLD OF TANKS

## ROLL OUT

12월 27일 정식 서비스 오픈!





오지 않을 줄만 알았던 2013년이 기어이 오고 말았다. 지구 멸망을 용케 극복한 독자님들의 사연이 궁금하다! 궁금해!

## 공무원이 될 테다!



합격했 쌍으로 드세요

본인은 노랑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정기구독자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모의고사 1등과 재밌는 별명을 쓴 원생에게 포상을 내리겠다"고 제안을 하셨소. (모의고사 땀 보통 이름을 쓰지만 점수 공개를 꺼려 가명을 사용한다요) 본인은 평소 MAXIM을 열심히 본 내공으로 '날 가져오'라는 예명을 썼고, 교수님 이하 100여 명의 학생들 땀 터뜨리게 하며 가장 재미있는 별명으로 뽑혔소! 이 영광을 MAXIM에 돌리며 2013년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예정이요!

P.S) 내년 7월에 있을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면 많은 편이 봐드리겠소!

(해재정, 이메일 사연)

→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고시원 생활이 가면 곧 화려한 공무원 생활이 오기 마련입니다. MAXIM의 드림으로 학원의 인기 스타가 되셨다니! 비록 제 드림은 아니었지만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군요. 공무원이 되시면 사무실 한 번 찾아오시길. 제게 번호나 주고 가세요 오빠.

에디터 손이나



## 실뭉치 주우러 가다가...

지하철에서 건너편에 앉은 어여쁜 여인이 뜨개질하는 걸 슬쩍슬쩍 곁눈질하며 퇴근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철이 흔들리며 그녀의 실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굴러가는 걸 눈여치며 그녀에게 건네려는 순간, 쇼핑백에 있던 MAXIM이 적나라하게, 그것도 비키니 페이지가 활짝 펼쳐진 채로 떨어졌습니다. 뜨개질녀와 주변 아주머니들이 킁킁거리며 마구 웃으시더군요. 언젠가 MAXIM을 신문처럼 권하는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BANBAN, 이메일 사연)



→ MAXIM이 그러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언젠간 화보에 털실로 짠 비키니를 입히겠습니다! 니트 비키니라니! 듣기만 해도 살에 털들이 복작복작 차오르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참 포근하겠죠? (개인적으로는 털들이 니트 사이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브라질리언 확장을 추천합니다. 정전기도 방지하고요.)



에디터 송종민



## 처음 맛보는 쪽팔림



부조개가 움푹 파였네요

장롱 면허로 살아온 본인은 얼마 전 엄마 차를 당당히 빌려 나갔소. 하지만 연수도 없이 도로 주행 경험만 믿고 나간 게 화근이 되었소. 사이드브레이크를 못 찾아 짤매고, 가스차를 기름 주유소에 가져가 굴하게 3만 원이요"를 외친 것도 모자라 주유구도 못 열어서 일반생이 대신 열어주고... 집으로 들어오던 중에는 심지어 연예인 뺨을 꼬라박았소. 내 다시는 쪽팔려서 차 운전 안 할랍니다.

(김기수, 이메일 사연)

너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란다



→ 뭐든 처음엔 다 우여곡절을 겪는 거요. 존슨질 처음 할 때도 참 서툴렀잖소. 멋모르고 휴지도 없이 흔들었는데 뭔가 푸숫 하고 튀어나와서 당황하던 옛 기억을 떠올려보시오. 자위도 익숙해지면 완력과 시간 조절이 가능하듯이 운전도 하다 보면 금방 늘게 될 거요. 그래도 아직 사람은 안 치었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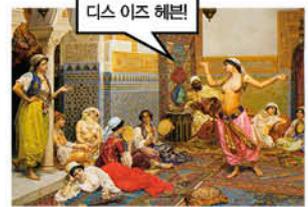
에디터 박한빛누리



## 여자가 너무 좋아

본인은 7년 만만 여친이 있는 30세의 혼남이요. 착하고 아리따운 여친이 있음에도 이 썩을 놈의 매직 스틱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들과의 쪽풍... 사람을 원하고, 하이브리드생이웃아빠이어애에게는 터진 온천수처럼 밤꽃 향 물이 차오르오. 여자가 있다 하면 솔자리고 나이트고클럽이고 마다 없지만 그렇다고 여친한테 소홀하지도 않소. 올해부터는 정말 여자 끊고 차곡차곡 저축해 결혼 준비를 하려 하는데, MAXIM에서 본인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충격의 메시지 한 방 보내주시오.(근대 김희성 에디터 남친 있소?)

(블룸매직스틱, 모바일 사연)



디스 이즈 헤븐!

→ 블룸매직스틱님의 착하고 아리따운 여친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평소 섹스칼럼에서 야금야금 풀어왔던 ㅍㅍㅍ 스킬을 여친분께 특별히 속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자 따위는 생각도 안 나도록 말입니다. 아, 그리고 남친이란 존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디터 김희성



## 독자 사연 응모

신년 맞이 겸 한 해를 알차게 시작하기 위한 독자 사연 투척 가이드!



메시지를 새길 수 있는 군번줄  
편지 목걸이: 3만 원

###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 접수

신년 아침이 밝은 1월 1일, 전날 과도한 음주 가무로 2012년 옹따 해 마지막 날을 옹트립하듯 보낸 편집부 에디터들은 사무실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숙면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슬그머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독자 사연이 적힌 편지를 마음에 드는 에디터의 이빨 사이에 군번줄처럼 끼워 놓고 달아나자. 전사자는 아니니까 턱을 발로 차지는 말 것.



의식불명 환자를 위한  
응급 제세동기: 130만원

# THE NEW ERA<sup>®</sup> CLASSIC 8-PANEL 19TWENTY<sup>™</sup>

OLD BASEBALL CLASSIC



##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sup>™</sup>





## ▶ MISS MAXIM을 낳고 싶네요

저는 곧 출산 예정인 스물아홉의 젊디젊은 만삭의 임신부입니다. 뱃속의 어여쁜 공주님은(딸이에요) 아마 다음 달 MAXIM이 나올 때쯤 세상 빛을 볼 것 같네요. 얼마 전 남편이 심심할 때 보라고 MAXIM을 정기구독해줬습니다. 늘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가득한 화보를 보며 제 딸도 꼭 여기 나오는 언니들처럼 어여쁘게 자라길 빌고 있어요. 이만큼 실용적인 태교가 또 있을까요!

(<미스M, 이메일 사연>)



이런 딸내미 낳으세요

▶ 황금 불상의 이마뿔에 피는 우담바라만큼이나 희귀하다는 MAXIM의 유부녀 독자분입니다. 출산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책이 서점에 깔릴 때쯤엔 눈에 넣으면 사실은 이틀 어여쁜 공주님을 품에 안고 계시겠네요. 아기 이름은 정하셨나요? 이번 호가 116호니, MAXIM 독자라면 '김백심육호' 정도로는 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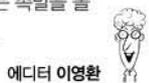


## ▶ 물 좀 먹어볼래?



군 입대 전, 대학에서 만난 여성스럽고 예쁜 후배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자 같지 않게 참하고 순한 아이였지요. 한데, 제대를 하고 나서 만난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학 연수를 다녀와 양키 물 좀 먹었기로서니, 걸핏하면 영어를 섞어 쓰지 않나, 복식집이나 가정식집은 지저분해서 못 가겠다며 패밀리 레스토랑만 찾지 않나... 그녀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순 없을까요? (<Gooro, 이메일 사연>)

▶ 혹시 그녀가 걸핏하면 아비, 어미도 못 알아본다는 '니애비양'까지 출짝거리고 있다면 전 일찌감치 그녀를 포기하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미국 살다와tht' 여성을 만나본 경험이 있기에 걱정이 앞서는군요. 가끔 극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으니 구월동 백순댓집을 한번 데려가 보시죠. 지저분하니 어찌나 해도 맛있는 데 장사 없으니까요. 어느새 그녀의 두 손에 아무지게 들려 있는 족발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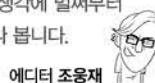
## ▶ 여직원을 공채합니다

회사에서 웹서핑을 끄적대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MAXIM 여직원 미모 대결'을 우연히 보게 되었소. 숨이 막힐 정도로 환상적인 MAXIM 여직원들의 미모에 기겁하고는 문득 파티션 너머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소. 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꽃답지 않은 외모를 가진 여직원들만 한가득인 사무실을 보고 나니 한숨만 나올 뿐이었소. 연봉 높고 복지 좋은 대기업이면 뭐한단 말ियो? 혹시 MAXIM에서 우리 회사로 아직할 여직원 없소? 아니면 본인이 MAXIM으로 이직하면 아니 되요?

(<LIKKE, 이메일 사연>)



▶ 2012년 12월호에 수록된 'MAXIM 여직원 미모 배틀'은 모두의 환상을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확인 전화가 쇄했고 공채 지원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요. 저희 MAXIM 남자 직원들 역시 배틀 한 번 붙여 달려들 징징대고 있습니다. 김치국 3,000cc 원샷한 그들은 여초 사이트를 정복할 생각에 벌써부터 고환이 벅차오르나 봅니다.



## 스페셜 웹 사연: 독자 사연 해프닝



국내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MAXIM 사은품 후기 '아 쟁쟁'을 외쳐놓고선 친히 두피 보온용 커버로 이용한 착상을 올려주신 독자의 노고를 치하하는바, 이번 달 독자 선물을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 사무실로 연락 한번 주시길 이왕 연락하는 거, 제목만으로 하반신이 달아오르는 '유방의 역사'도 어떻게 대어 줄 안 되겠니?



이번 달 독자 선물은 가음에 찌든 눈바닥처럼 사정없이 갈라지는 당신의 입술을 위한 '에브리맨잭 립밤 콜링 하이드레이션'이다. 그녀와 입술을 부대기도 전에 찢어진 입술에서 피 철철 흘러며 조커 방의하지 말고 상쾌한 청량감을 자랑하는 이 립밤을 준비하자. 가벼운 사용감과 오랜 지속력이 당신의 입술을 기쁨기 활활 흐르는 참치 대뱃살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키스를 부르는 입술



# THE NEW ERA® CLASSIC 8-PANEL 19TWENTY™

OLD BASEBALL CLASSIC



##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 Dear. Readers

## 한그림의 독자 고민 상담



에디터의 답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은 당신을 위해 한그림이 직접 답변을 달아준다.

**Q. 남자들이 흔히 애인과 사귀다가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자들이 "잠깐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헤어지자는 건가요?**

A. 제 생각은 그래요. 헤어지자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대놓고 '헤어지자'라고 하면 당장 불집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좋아하면 그런 말을 꺼내기 전에 애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죠?

**Q. 남자들은 옛날 여친이 뭐 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가끔 폐북이나 싸이를 들어가잖아요. 여자들도 그러나요? 옛 연인이 궁금한 건 그리워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인가요?**

A. 잘 사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죠. 사실 조금은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 여친이랑 사진을 찍었네? 언제 깨질까? 깨지고 나한테 연락하면 왠지 기분 좋겠지?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똑같아요.

**Q.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덕후입니다. 그런데 왜 여친이 안 생기죠? 여자들은 게임하는 남자가 그렇게 싫은가요?**

A. 요즘은 휴대폰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도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좀 보기 싫죠. 그리고 집에서 온종일 게임만 하는 것도 너무 게을러 보이잖아요? 적당히 할 일 하면서 즐기는 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Q.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A. 저는 물을 많이 안 마셔요. 대신 잠을 많이 자죠.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것 같으면 팩을 해요. 사실 집에서 제대로 관리만 해도 마사지 스킨 갈 필요 없어요. 피부 관리도 결국 자기 관리니까요. 하기 나름이랍니다.



간간한 기속사  
사감 같다고?  
당장 114페이지를  
펼쳐봐라! 그녀의 원초적  
모습에 당신의 비강 속  
모세혈관이 후쿠시마 원전  
터지듯 폭발하리니.

안경 톨룩먼  
셔츠 네르  
스커트 지바이게스  
구두 소다

COOPERATIONS 톨룩먼(02-543-7685), 스다(02-546-7838), 지바이게스(02-3447-0555)



SII ● Seiko Instruments Inc.

# J.SPRINGS



\* J.SPRINGS 직영점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2-640-5082  
 신세계백화점(세종시점) 051-745-2297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042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79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75  
 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 02-2639-1337

디큐브(신도림점) 02-2211-0149  
 디큐브(가재동점) 055-680-0193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08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36  
 엘기(대구점) 053-255-6940  
 엘기(구미점) 054-451-6940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초이필(구미점) 054-613-1170  
 타임피아(구미점) 054-253-8855

\* 면세점  
 인천관광공사면세점 032-743-2107  
 제주관광공사중문면세점 064-780-7865  
 신라면세점 02-2230-3997

● 공식수입점 성원 02-3445-4603 [www.j-springs.com](http://www.j-springs.com)

\* J.SPRINGS 전문점

AK플라자(분당점) 031-8023-2032

#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 눈이 내리면

비야흐로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 계절이다. 욕이 절로 나온다고? 욕 덜 하면서 눈 치울 수 있게 도와주마.

### 영화칼슘

공격력: ★★★★★

제실 작업의 끝판왕. 군대에서도 일반 병사가 사용하는 연병장 따위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대장 차가 지나가는 길목에만 뿌릴 수 있는 고급 아이템이다. 삼으로 생지랄을 해도 안 부서지던 얼음이 영화칼슘 몇 알로 단박에 녹을 정도니 눈이 은혁이면 영화칼슘은 아이유 정도 되는 거겠지?



재킷 주크  
브라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팬츠 LAP  
구두 엘리자벳

예쁜 여자가  
연애를  
시작하는  
상상



BY 박현진/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 UP 이현정 MODEL 김지은 ASSISTANT 최봉희 LAYOUT 서운정



# aximus



## 싸리비

**공격력: ★★ 내구성: ★★★★★**  
 배추 도사 머리 모양을 닮은 이 녀석은 원래 환경 미화원 아저씨의 주력템이다. 눈이 내리고 6시간, 그리고 5cm까지 쌓인 눈 치우기에는 효과가 만능이지만 그 이상 눈이 쌓이거나 시간이 지체되어 눈이 얼어버린다면 무용지물이다. 반대로 뒤집어서 자루 끝으로 얼음을 부수기도 하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다.



## 쓰레받기

**공격력: ★★ 내구성: ★**  
 눈 치우려고 멋모르고 들고 나왔다가 부러뜨리고야 마는 내구성 제로의 제품. 험기 왕성한 남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있고, 어그 신고 도와주겠다고 깔짝거리는 여자에게 쥐여주면 그럭저럭 유용하게 쓰인다.



## 눈삽

**공격력: ★★★★★ 내구성: ★★★★★**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 강원도 철원 병사들이 소녀시대보다 열광하는 제품. 플라스틱 재질로 그냥 삽보다는 가벼워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눈을 치울 수 있다. 눈을 치우기보다는 눈을 퍼서 날리아 하므로 허리가 아픈 게 단점.



## 넙가래

**공격력: ★★★★★ 내구성: ★★★★★**  
 메디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구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열혈강호> 흑룡회처럼 이 검은 판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래서 폭 밑고 가면서 눈을 치우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감도 덜하다. 캐수가 늘어날수록 공격력도 2배, 3배로 늘어나지만 1m 이상 쌓인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막대기일 뿐.

재킷 주크  
 브라 게스 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 Circus Maximus

## 여초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천상여자, 현모양처 스타일의 그녀도 여초 카페에선 이라고 놀고 있지 모른다.



1 새벽 2시에 먹는 치킨은 0칼로리 맞지?



2 햇들 봐주시요. 소행, 쌍수하면 흥할 것 같소?



3

언나들, 나 카톡 프사(프로필 사진) 좀 골라주라



4

올라이(우리 신랑) 정관수술 시키려고 하는데, 실비 적용되나요?

**1** 원래는 패션카페였으나 회원들의 무한 치킨 사랑으로 이제는 닭에 관한 수다가 주를 이룬다. 등급업 퀴즈가 수능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 실사 등급업에 성공해도 주민등록증의 숫자 '2'를 인증해야만 여성 회원으로 인정받는다. 성인 여성 전용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키스, 섹스 이야기가 가감없이 올라 오는데, 그 수위에 따라 '빛나라 욕정의 별'로 점수를 매긴다. '남친이 물꺼조인 것 같디ㅠㅠ' 류의 고인글이 올라오면 '물자자, 실자자 최악이!', '똥고 가려운데 손가락 말고 도토리묵으로 문대는 기분이지' 등, 각자의 경험담이 댓글로 주르륵 달린다.  
**접속의 수확:** 소라넷의 야설을 가볍게 능가하는 100% 리얼 섹스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소울드레서(cafe.daum.net/SoulDresser)

이름: 김소드  
나이: 20대 초중반  
직업: 대학생  
여초 수준 ★★★★★

**2** 남자들은 가입조차 안 되는 순수 여초 카페. 쌍화차 코코아, 줄여서 쌍코라고 부른다. 성형정보 공유 카페라서 그런지 여자 연예인의 성형 부위도 귀신같이 잘 찾아낸다. 감명깊게 본 아들은 꼭 후기를 남겨서 널리 이름게 하려는 흥인간 정신이 강하다. 실제로 쌍코에서 흥한 아들은 다른 여초 카페에 널리 퍼지기 때문에, 여성용 아동계의 얼리어답터같은 존재다. 세 보이지만 사실, 이문상으로만 빠삭하다. 현실에서는 남자가 다가가면 철벽을 치는 '철벽녀'가 다수다. 주변에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여자가 있다면 쌍코를 아느냐고 한 번 물어 봐라. 운짱할 걸?  
**접속의 수확:** 여기에서 눈팅으로 내공을 쌓다 보면, 성형미안들의 튜닝 파츠를 한 눈에 꿰뚫어볼 수 있는 스카우터를 탑재하게 된다.  
쌍화차 코코아(cafe.daum.net/ssanguryo)

이름: 박쌍코  
나이: 알 수 없음  
직업: 알 수 없음  
여초 수준 ★★★★★

**3**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여초 카페. '남자에게 4차원으로 보이는 방법',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같은 걸 '생성(생활 정보)'이라고 부르는 게 일적었지만, 어리니까 이해하자. 솔직하고인 게시판에는 '고당인데, 임신한 것 같아' 류의 질문이 하도 많아서 운영자가 빠졌는지, 아예 '배란일, 관계일, 질내외' 등을 적는 양식을 따로 정리해 놓았다. 만약 당신 여친이 쪽빵 회원이라면, 당신과 카톡으로 싸우고 나서 그 대화 화면을 모조리 캡처해 게시판에 올릴 지도 모른다. 제목은 '언나들~ 누가 잘못된 건지 봐 줘 일지라도, 누가 잘못했는지 정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접속의 수확:** 이 카페에서 한 달만 서식하면, 나이 어린 여자를 포일 때 이별 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  
쪽빵 카페(www.jjuckbbang.net)

이름: 김쪽빵  
나이: 10대 후반  
직업: 고등학교생  
여초 수준 ★★★

**4** 집 꾸미기를 테마로 하는 카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기 짝 찬 여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여자친구가 부쩍 이 곳에 자주 들락거린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남친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류의 글에는 연륜 있는 주부 9단들이 '아직 창창한데... 헤어지세요', '헤어져요', '평생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는 남자는 없어요, 헤어져요'라며, 대부분 끝내라고 조언해 준다. <사랑과 전쟁>에서 시청자 투표가 늘 '이혼하라'는 쪽으로 몰렸던 것과 같은 이치인 걸까?  
**접속의 수확:** 유부남은 필독해라. 여기서 당신의 부인은 당신을 감시하고 속박하는 기술과 시월드(시댁) 뺑기 스킬을 연마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레몬테라스(cafe.naver.com/remonterrace)

이름: 이레테  
나이: 30대 초반  
직업: 전업주부  
여초 수준 ★★





뚜기라면 뚜기고  
소라면 소갯어요!



FPS의 변화를 말하다!



QR 코드 찍고,  
A.V.A만의 여캐릭터를  
받으세요!

facebook

아바



© NEOWIZ GAME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RED DUCK Inc. All rights reserved.



###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죽음

여기 기록된 죽음들은 모두 실화임을 밝힌다. 못 믿겠지?

#### 다윈상이란?

자기 자신을 지구 상에서 제거함으로써 인류를 진보시킨 자들에게 수여하는 상. 즉, 너무 멍청해서 차라리 죽는 게 인류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다소 황당하지만 그럴싸한 어워드다.

#### 수상 조건

1.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원인을 제공할 것 (고자가 된 경우도 인정)
2.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
3. 신문, TV 보도,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 등 출처가 분명한 사건

### 역대 레전드급 수상자



이럴 줄 알았나?

#### 1 맘에 안 드는 송배자 - 1996년 인도 캘커타

호랑이를 송배하던 20대 청년 프라케시 티와리와 슈레시 라이는 캘커타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열세 살짜리 호랑이 시바(힌두교의 파괴신 이름)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기 위해 다가갔다. 라이가 먼저 꽃목걸이를 시바의 목을 향해 던지자 호랑이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때 번개같이 친구 티와리가 나타나 호랑이의 정수리에 염착기를 날렸다. 호랑이는 라이를 내려놓고 눈 깜짝할 사이에 티와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다.



어? 안되잖아? 정지가 안 돼

#### 3 나비 효과 - 1998년 미국 오타와

1998년 2월, 스키장에 놀러온 매투는 어디선가 주워온 매트리스를 이용해 썰매를 타다가 스키 리프트를 지탱하는 기둥에 충돌해 즉사했다. 보통 리프트 기둥에는 사람들이 실수로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매트리스를 부착한다. 매투가 타고 있던 매트리스는 스키 리프트 기둥에서 뜯어온 것이었다.



잠깐만 거의 다 먹었어

#### 2 취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 2007년 미국 텍사스

심각한 알코올중독자였던 마이클은 식도염이 생길 때면 향문으로 술을 마시곤 했다. 방법이 다를 뿐 술에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 2004년 5월, 마이클은 파티에서 1.5리터짜리 세리주(백포도주의 일종) 2병을 향문으로 마시고 음식을 잃었고, 직장 내부에 남아있던 알코올은 계속 흡수되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47%인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아오 두경 열려

#### 4 오아니! 채! 감히 나를?! - 2010년 대한민국 대전

장애인 이 모(39)씨는 6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달려오는 자신을 보고도 먼저 출발했다고 생각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세 차례 문으로 들쭉했다. 그는 두 번째 충돌로 전동 문이 달려 거리를 것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고 세 번째 충돌하면서 15m 아래인 지하 2층 승강기 위로 떨어져 숨졌다.

#### 퀵 데쓰!

빠른 인생 퇴장 있어요.



나 이빠?

치,치척

#### 충견(1996)

한 어부가 낚시를 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여 얼어붙은 호수 위로 던졌다. 그러자 그의 충견이 즉시 달려가 다시 물어왔다.

#### 너무 급했던 나머지(2009)

미국 플로리다의 손 모테로는 화장실이 급해 차를 멈추고 도로의 차벽을 뛰어 넘었으나, 그 뒤는 낭떠러지였다.

#### 무소의 불처림(2001)

25세의 캐나다 남성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12층 높이의 미끄럼틀을 탔다. 하지만 미끄럼틀 끝에는 쓰레기 자동 압착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 후리럼!(2000)

두 동물 애호가가 돼지 학대를 반대하며 도살장의 돼지우리를 열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달려 나온 돼지 떼에게 발혀 죽었다.

#### 메멘토(2000)

이라크의 테러리스트 카이 라흐나제트는 '폭탄 우편'을 제조해 부쳤는데, 우표가 모자라서 반송되었다. 그는 반송된 우편물을 열었다.



택배왔다~

친누나의 실종 이후 연속된 패배...  
비운의 파이터로 불리던 비토 벨포트  
그러나 괴물 존 존스와의 경기 이후,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재 파이터로 돌아왔다!

그의 아름다운 투혼이 2013년 1월, 다시 시작된다

# UFC<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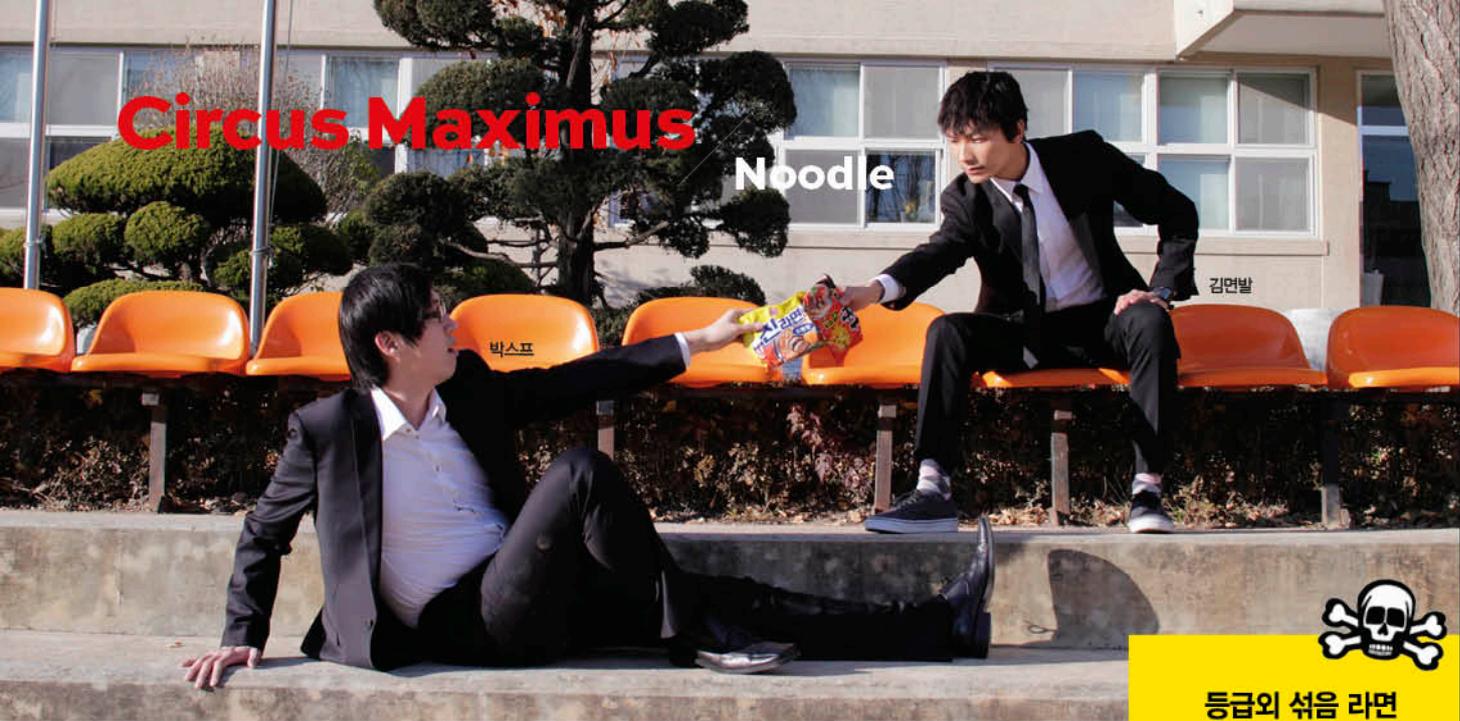
## 벨포트 VS 비스핑

1월 20일 (일) 오전 10시 50분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 Circus Maximus Noodle



김연발

박스프



## 등급외 섞음 라면

### 카치면



### 조리법

1. 물(275ml)을 넣고 라면 사리 1/2 개만 끓인다.
2. 준비된 인스턴트 카레를 면발에 투하한다.
3. 면발과 카레와 섞은 후 치즈를 1~2 장 올려 먹는다.

휴가 복귀 후 아침으로 먹은 코다리강정 이후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다. <해피투게더>에서 카레, 치즈, 라면을 가리켜 '카치면'이라 명한 강예원을 따라, 누들러도 줄임말로 맛을 평해본다. 아내(카(아, 씨발 내 카레)) 자취생의 밥도둑, 3분 카레를 이렇게 능멸하다니. 치즈가 카레고 면발이고 다 떨어버려, 면발에선 훗농을 녹인 맛이 나고, 카레는 로드킬 당한 동물처럼 깔려 죽고 말았다.

## 환상의 짝궁: 라면+라면 레시피 4선

이젠 라면도 하이브리드 시대다. 짜빠구리밖에 모르는 당신을 위해 누들러가 두 개의 라면을 교배해 보았다.

### 1위 오빠게티 조리법



1. 라면 1개분(550ml)만큼 넣은 물이 끓으면 두 라면의 프라이크를 모두 넣는다.
2. 1에 오징어 짬뽕 면+짜파게티 면+오징어 짬뽕 분말 스프를 넣는다.
3. 물이 줄어 자작하게 졸아들 때쯤, 짜파게티 분말 스프와 유성 스프를 넣고 비빈다.

사천 짜파게티가 고추기름으로 매운맛을 냈다면, 이젠 통째로 들어간 오징어 매콤한 맛을 진두지휘한다. 달달한 매운맛에 엄성미가 멀리서 '오빠'하고 부르는 듯하다. 콩 같은 오징어는 보너스.

### 2위 짜빠구리 조리법



1. 라면 2개분(1100ml)만큼 넣은 물이 끓으면 두 라면의 프라이크를 모두 넣는다.
2. 1에 너구리 면+짜파게티 면을 넣고, 면이 익으면 물을 약간만 남기고 버린다.
3. 너구리 스프, 짜파게티 스프를 1:2의 비율로 섞어 넣고, 유성 스프와 함께 비벼 먹는다.

주임원사의 딸을 처음 본 것처럼 흥분되는 그 이름 짜빠구리. 두꺼운 면들의 궁합이 좋아서 휴가 나와 처음 마시는 맥주처럼 꿀꿀꿀 넘어간다. 근대 좀 짜다. 그래, 전역해보니 주임원사 딸 메주더라.

### 3위 왕구리 조리법



1. 컵라면 왕뚜껑에 너구리 면을 넣는다(단 들어가니까 부셔서 넣는다).
2. 뜨거운 물을 용기의 4/5만큼 넣는다.
3. 스프는 왕뚜껑 스프 1봉지+너구리 스프 1/2 봉지만큼 넣고, 면이 익으면 먹는다.

왕뚜껑 스프와 너구리 스프의 조화가 이렇게 뛰어나다니! 매콤하면서도 풍부한 해물 맛 국물은 과유한 다음날 해장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면의 궁합은 최악. 얇은 왕뚜껑 면과 굵은 너구리 면을 같이 익히니, 하나는 덜 익고 하나는 불어 버린다.

### 4위 크림 스프 파스타 조리법



1. 인스턴트 크림 스프를 끓인다.
2. 다른 용기에서 라면의 면발을 익힌 후 찬물로 행군다.
3. 크림 스프에 면을 넣고 라면 스프로 간을 해 먹는다(누들러는 진라면 순한맛 스프 사용).

<해피투게더>에서 윤상현이 제안했다. 자고로 크림 스프는 느끼할수록, 라면은 매울수록 좋다고 했다. 김치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느낌이다. 그나마 라면 스프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할머니가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냥 파스타 사머경.

### 별첨스프

#### 본격 누들러 아이디어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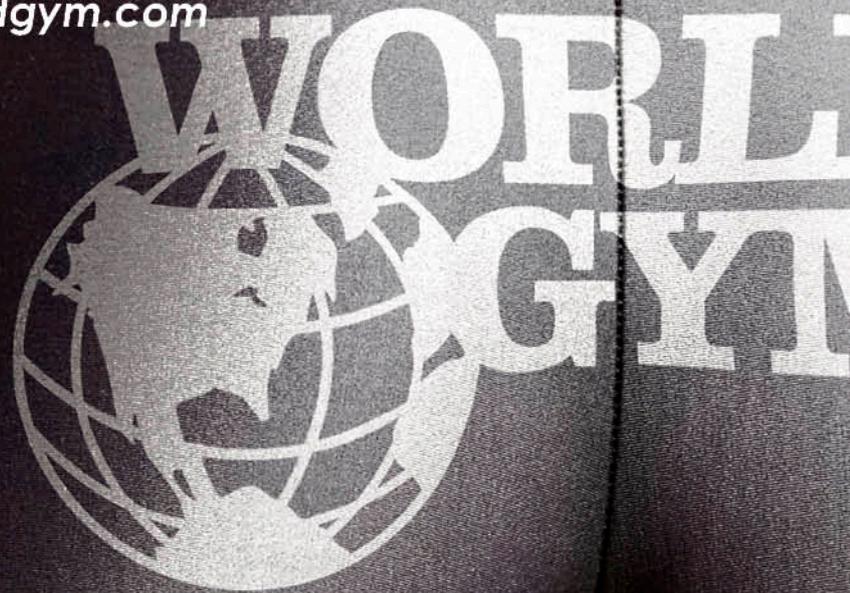
라면 한 박스 받고 싶어?



새해를 맞아해 누들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라면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케이. QR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남겨 달라. 당첨되면 당일 마트에서 가장 많이 세일하는 라면 1박스를 보내주마.

# WORLD GYM™

www.asiaworldgym.com



# SINCE 1976

**NAVER**

월드짐

검색

입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논현점 02-543-5800  
강남점 02-2052-0096 개포점 02-3495-0200 부산 연산점 051-758-5554 부산 해운대점 051-740-7008

### 참거나 혹은 두들겨 패거나

2012 F/W 앵그리 휴먼들의 런웨이 쇼.



#### “미친 게이 꺼져” 이반 스투페르

이탈리아 세리에 A 핸드볼 경기장. 느끼하게 생긴 한 핸드볼 선수가 대인 마크 중이던 이반 스투페르 선수의 볼에 끈금없이 축축한 키스를 선사한다. 똥을 한 대접 원샷한 듯한 표정의 스투페르. 키스한 선수를 바닥에 내리꽂고 유유히 코트를 떠난다. 그 기분 어찌나 더러웠는지 퇴장 도중 바지를 내리고 시크릿 존을 주물럭거리며 키스 도발에 대한 역겨운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한다. 아유를 보내는 관중들에게 연발로 이탈리아식 엿을 날리는 모습 또한 일품. 어쨌든 화를 다스리지 못한 대가로 양 선수에게는 2경기 출전 정지 처분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 그놈 물건은 참 싫어구만!



#### “할리우드 귀싸대기의 심볼” 린제이 로한

린제이 로한. 가히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칭해도 무방할 듯 하다. 그녀는 저스틴 비버의 콘서트에서 만난 그룹 더 워너즈의 맥스 조지에게 필이 꽃혀 애정을 갈구했다. 하지만 그가 로한을 썩까고 다른 여성과 놀아나자, 빈정 상한 그녀는 맥스 조지와 눈 맞은 일반인 여성에게 다가가 화심의 귀싸대기 콤피네이션과 쌍욕을 퍼부으며 울분을 토해냈다. 로한은 최근까지도 폭음과 절도를 포함한 버라이어티한 경범죄를 저지르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 그녀의 병맛 짓은 아젠 레전드급.



#### “좀도둑 킬러” 월마트 경비원

정의의 사도, 경비원 어쌔신이 미국 월마트에 등장했다. 이 남성들은 매장에서 DVD 기기 2대를 훔쳐 달아나는 중년 남성을 붙잡아 리어네이키드 초크와 바닥에 얼굴 찌기 신공을 발휘하며 용의자를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극한의 오바 액션을 선보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출혈이 심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경비원들은 살해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려고 미친듯 쟁구를 굴러봤지만 주변 CCTV 때문에 싸그리 체념하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웃픈 후문.

➔ <투깝스> 은퇴 후 이야기?



#### “전사의 심장” 민주당원 XXX

역시 한국에선 선빵 때리는 놈이 고수요, 단종 없어도 목소리 큰 놈이 짱 먹는 세상이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국정원 여직원 집 앞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폭행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정강이 킁을 날리는가하면 “어린놈의 새끼, 새끼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도 했다. 수차례 새끼를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특히 보육 정책에 관심있어 보이는 당원으로 추측된다. 그 화끈한 도발 실력은 UFC 입걸레로 소문난 네이트 디아즈와 한판 붙어도 될 정도였다.

➔ 욕윙킴보가 프로 수준!

#### 분노 조절 가이드

문보살도 참고했다는 궁극의 분노 조절법.



**당분 NO, 냉수 YES**  
당분은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복합 비타민을 고갈시켜, 화를 곱질로 발생시키니 차라리 냉수를 마셔라.

**요가**  
추간편이 뒤틀리고 요추가 꺾이다 보면 간디가 왜 비폭력을 주장했는지 아해가 된다.

**산림욕 효과**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호르몬 '코르티솔'을 억제한다.

**화를 누르는 체조**  
허리를 편 채, 두 손을 앞으로 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다 보면 울화통도 함께 터진다. 차라리 소리를 질러라.

OD Musical Company, CJ E&M present

#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단 5주간의 특별공연



#### 최고가 최고를 만나다!

대한민국 예술의 메카 예술의 전당이 2013년 개관 25주년을 기념해 선택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최고의 극장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5주!

#### 한국 뮤지컬 불멸의 신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에매처 서버다운, 전화매진/전화기립 박수, 90% 이상의 유료 객석 점유율 등 공연 때마다 한국 뮤지컬 공연 기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2013년 한국 뮤지컬의 기록을 다시 쓴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1997년 브로드웨이 초연된 이후 2012년 다시 리바이벌 되었고, 독일, 일본, 영국, 벨기에,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최고의 배우들에게만 허락한 단 하나의 무대가 2013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진다.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2013년 1월 8일~2월 9일

스캔하고  
티켓발자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윤영석 양준모 정영은 이지혜 신민 신의정 김봉환 외 주최 SBS 기획/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E 후원 KIBO 기부문화재단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예술의전당 (02)580-1300 에매처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yes24

Conceived by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ile Bricusse | Music by Frank Wildhorn | Orchestration by Kim Scharnberg  
Arrangement by Jason Howland | Directed by David Swan

# How To

**5** 버릴지 말지 5초 이상 고민되면  
'망설여지는 물건'으로 분류하고 5초  
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물건은 버려라.

**10**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함을  
A4 용지에 복사해서 모아두면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A4 용지 한  
장에는 최대 명함 10장까지 복사할 수 있다.

**1** 우편물이 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오후 중 특정 시간을  
정해 한 번에 처리할 것.

## Office Life Tip

### #1. 책상 정리법

새해엔 역시 청소가 진리지!

너네 사무실에  
이런 여직원  
있어?





BY 김태성 PHOTOGRAPHY ARC-STUDIO MODEL 2012 MISS MAXIM 조우승자 임성미  
COOPERATIONS 게스 언더웨어(02-3447-0555)

### 서랍 정리하는 법

1. 정리 전에 서랍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내 필요 없는 물건부터 버려라. 잘 버리는 남자가 정리도 잘한다.
2. 이제 자주 쓰는 물건, 버리기 망설여지는 물건, 버릴 물건으로 분류했지? 그중 자주 쓰는 물건들을 서랍 안에 채울 것. 쉽게 꺼낼 수 있게 서랍 앞쪽부터.
3. 버리기 망설여지는 물건은 사물함이나 서랍 아래쪽에 처박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버릴 게 있는지 열어볼 것.

### 명함 정리하는 법

1. 자주 연락할 사람의 명함과 자주 연락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명함을 분류한다.
2. 명함집을 큰 것, 작은 것 두 종류로 사라. 연락 잘 안 할 명함을 큰 명함집에, 자주 할 명함은 작은 명함집에 넣어라. 한 회사의 여러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았을 땐 연락책 한 명의 명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명함집에 넣어두는 것도 방법.
3. 큰 명함집은 따로 보관하고 작은 명함집만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한다. 명함을 끼울 때 뒤쪽부터 채워

넣으면 현재 업무와 관련 있는 명함이 위쪽에 오니 편리하다. 어때, 벌써부터 성공의 스멜이 느껴지지?

### 우편물 정리하는 법

1. 우편물을 죄다 책상으로 가지고 오면 쌓이기 쉽다. 우편함에서 바로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분류하라! 필요한 것만 책상으로 가지고 온다.
2. 세미나나 행사, 결혼식 등의 행사 초대장을 받으면 일시와 장소를 달력에 메모한 뒤 버려라. 잘 버리는 게 정리의 지름길이다!

# How To Punish

## 극진가라데로 응징하는 방법

바람 피던 니 여친과 내연남을 한 번에 골로 보낼 수 있는 쓰리 콤보

### 극진가라데

승급 순서

재일교포 최 최영의 총재가 창시한 일본의 가라데 유파. 강하게 단련한 신체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강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받은 피해를 최대한 건디는 실전형 무술이다. 현재 MMA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격투가들이 구사해 그 강력함을 인정받고 있다.

초고속 카메라 시연 영상!



이것은 크고 아름다운 편채

### 어디서 봤더라?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임 속 가라데 고수들

#### 정권: 료 사카자키 (킹 오브 파이터즈)

← → ↘ ↙ → +A or C  
카운터로 맞으면 데미지 절반이 남아간다. 역시 남자는 한 방 크게 질러 넣는게 진린다.



#### 브라질리언 킥: 켄 (스트리트 파이터)

서서 강K 앞에서 어려운 기술이라고 실컷 따들었건만, 게임에서는 고작 버튼 하나 누르면 나간다.

#### 카이텐게리:

#### 카지마 진 (철권)

RK LK  
<철권의 카지마 진이 사용한다. 실전과 마찬가지로 허점이 커서 빛나기엔 그대로 사망 확정.



### 1 정권 지르기

무쇠 주먹으로 모든 것을 격파한다!



상체를 곧게 펴고 찌르는 쪽 허리를 회전시켜 어깨-팔꿈치-주먹을 일직선으로 타격을 관통하듯이 찢러 넣는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경직되거나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타격 순간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타격력이 떨어지며, 손목가지도 파괴된다!

### 2 브라질리언 킥

이지션다의 전형, 힙! 속았지?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상체가 약간 뒤로 젖혀질 거다.



허리와 고관절을 탄력 있게 회전시키며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듯이 찬다. 앞치기나 중단차기 페이크로 싸먹을 수도 있다. 어지간히 유연하지 않으면 힘들다.

### 3 도마와시 카이텐게리(몸통 회전 돌려차기)

전국구급 비주얼! 우주급 데미지!



몸을 옆으로 눕히며 도약 준비 자세를 취한다. 상체를 회전시키며 치는 발의 반대쪽 어깨를 미리 눌힐 준비를 한다.

앞으로 고꾸라지듯 뛰어올라 허리를 회전축 삼아 수직으로 찍어 찬다. 회전력을 얻지 못하면 타격력이 떨어지며, 잘못 착지하면 자살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

### 실제 사범에게 묻는다! 가라데 Q&A

- Q. 얼음 깨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A. 다른 격파용 물건들과 달리, 격파용 얼음은 두껍고 결이 없어 부수기가 매우 어렵다. 아마 우습게 봤다면 니 손목가지에 결이 생길걸?
- Q. 어여쁜 여자 수강생도 많은가?**  
A. 여자 수강생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예쁜 수강생이 도장으로 들어왔다. 구라쟁이!)
- Q. 승단 필수 조건은?**  
A. 단수×10명과 대련이 필수다. 한꺼번에 대련하는 건 아니고 순서대로 한다. 100인 조수라고 하는 100 대 1 싸움도 있다. 이것은 단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도전 가능하다.

- Q. 고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A. 이 세계는 어지간해서 10년차 아니면 고수 명함도 못 내린다. 단을 따려면 쉬지 않고 꾸준히 심사를 봤다고 했을 때 최소 4년은 걸린다.



Chungmu Art Hall, OD Musical Company  
present

당신을 위한  
새로운 브로드웨이 뮤지컬

뮤지컬

# 브루클린

BKLYN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노래를  
들어봐!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2012년 12월 4일 ~ 2013년 2월 24일

스캔하고  
티켓받자



|주최|  충무아트홀 | 기획·제작 | OD 오디뮤지컬컴퍼니 | 주관 | 오픈리뷰

|문의 명당찾기 2230-6601 오픈리뷰 1588-5212 | 예매처 명당찾기 | 오픈리뷰 | 인터파크 | 옥션 | 11번가 | yes24 | 클럽서비스

# 24 Hours to Live



## Ludacris

더티 사우스를 대표하는 래퍼 겸 배우, 루다크리스가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죽고 싶는지 결정은 내렸나?**

스카이다이빙 중에 섹스하다 복상사로 죽고 싶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만한 비밀이 있다면?**

예전에 애틀랜타에 있는 스트립 클럽에서 빌 클린턴을 만난 적이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던군. 스트리퍼랑 섹스를 한 건 아니고, 별일 아니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 것 같나?**

2년 전에 차로 누굴 친 것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래도 난 꽤 괜찮은 놈이거든.

**당신이 요즘 꽂힌 클럽 음악이 있다면?**

방금 언급한 그 교통사고 이후로 'Move Bitch Get Out the Way(저리 꺼져 이 쌍년아)'가 귀에 들어오더라.

**자신을 '멸종 위기의 생물'이라고 칭했다. 힙합 신에서 당신 뒤를 이을 만한 인재는 없다고 보나?**

물론! 난 적어도 전통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 중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자신한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과할 것이 있다면?**

차로 받은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 친구의 하반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부라도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마지막 식사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치킨에 맥주?**

음...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곧 애틀랜타의 하스필드 잭슨 공항에 레스토랑을 개업할 예정이긴 하다. 그래도 난 치맥이나 먹으려나.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곳은?**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아까 언급한 스트립 클럽이다. 빌 클린턴을 만났다는 그 클럽 말이다.

**죽으면 더 이상 이 짓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 하지만 꼭자면?**

스트립 클럽에서 클린턴을 본 것 같은 특급 비밀을 숨기거나 언론에 쉬쉬하는 짓을 그만둬도 된다는 점. 그렇다고 내가 고자질쟁이란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

**죽기 전까지 다 못 읽어서 후회되는 책이 있나?**

학창 시절에 읽다 만 <모자 쓴 고양이>. 아마 학교 다닐 때가 인생에서 최고로 모범생이었던 시기일 거다.

**<분노의 질주 2>에서 당신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온다. 죽기 전에 갖고 싶은 차가 있는지?**

배트모빌! 존나 멋있잖아!

**귀신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캐스퍼. 왜 그 하얏고 귀여운 유령 있잖나. 물론 내가 캐스퍼가 된다면 그리 착한 유령은 아니겠지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커스티 앨리. 그녀가 살겠다가 다시 마르고, 또 다시 살겠을 때 하고 싶다.

**사후 세계에서 앨범을 낸다면 함께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는지?**

투팍. 그가 진짜로 죽었다면 말이지. \*항간에는 1996년에 사망한 투팍이 아직 지메이카에 살아 있다는 설이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관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저 새끼 유언장에 혹시 내 얘기 있는 거 아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살아라(Live), 사랑하라(Love), 웃어라(Laugh), 그리고... 루다(LUDA)!!!



# How To

〈힐빌리 맨손 낚시〉는  
애니멀 플래닛에서 방영되는  
리얼 인간 미끼 낚시 다큐다.

"야, 2 대 2  
미팅이라며?"

무조건  
남이는 영상

## 맨발로 메기 낚는 법

다큐 시리즈 〈힐빌리 맨손 낚시(Hillbilly Handfishin)〉의 두 집승원  
스키퍼 비빈스와 트렌트 잭슨이 발 낚시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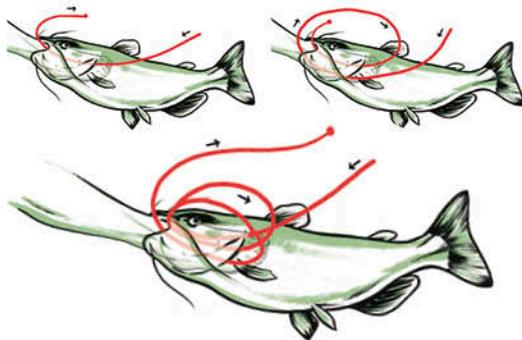
S: 스키퍼  
T: 트렌트



- 1** S: "강둑 밑 비버 굴을 뒤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T: "굴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차 있는 것 같으면 그 굴은 집어라. 재수가 없으면 뱀이나 비버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물로 가득 찬 구멍이어야 안전하다. 명심해!"  
S: "맞대! 상태가 좋은, 깨끗하고 온전한 형태의 굴이어야 한다."



- 2** S: "손으로 강둑을 잡고 구멍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라. 숨어 있던 메기가 위로 헤엄쳐 나오면서 당신을 물 거다. 사이즈가 큰 놈이면 당신 발목까지 삼키고 거세게 흔들려대겠지? 강둑을 꼭 잡지 않으면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이 낚시를 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 혼자보단 동료와 함께하는 게 안전하다."



- 3** S: "이제 물고기를 결박할 차례다. 약 1.2m 길이의 로프를 아가미판 뒤쪽에 집어넣은 뒤 물고기 입 쪽으로 뽑아낸다. 바느질을 하듯 이렇게 2번 입과 아가미 쪽을 꿰는다."  
T: "이걸 하기 전에 굴 입구를 원가로 막아두는 게 좋다. 잡은 고기 외에도 한두 마리가 더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 4** S: "큰 메기의 힘은 엄청나다. 최대한 힘껏 발을 빼야 한다."  
T: "구멍에서 물고기를 빼낼 때 지치게 만들려라. 안 그러면 기운 센 개한테 이리저리 끌려가듯 휘둘리게 된다. 생선에게 말이다!"  
S: "나중엔 물고기한테 물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을 거다. 근데 이 흥터, 여자들한테 은근히 먹힌다. 다 낚기 전에 여자를 뉘러 가자!"

#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3개월 정기 구독	6개월 정기 구독	12개월 정기 구독	24개월 정기 구독	36개월 정기 구독	48개월 정기 구독
정가 35,400원	정가 70,800원	정가 141,600원	정가 212,400원	정가 283,200원	
아싸 중구내!	<b>3천 원 할인</b> 1000씩 적립	<b>7천 원 할인</b> 2000씩 적립	<b>1만 5천 원 할인</b> 4000씩 적립	<b>3만 원 할인</b> 6000씩 적립	<b>5만 원 할인</b> 8000씩 적립
정가 17,700원	할인가 32,400원	할인가 63,800원	할인가 126,600원	할인가 182,400원	할인가 233,200원



##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맥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맥=1원)

# 겨울 훈남은 보드를 타고 온다네~ 온다네~

보드 간지를 위해서 지금 당장 안과부터 가라. 안경 위에 고글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 스키장에서 버려야 할 아이템은? 바로 안경!

보드 타고 눈발 한번 제대로 날릴 수 있는 진짜 남자의 계절이 돌아왔다. 티켓 과물, 쿨X같은 소셜커머스에서는 이미 스키장 시즌 할인권이 오픈 하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으니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스키장에서 내 진정한 간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능적으로 장비구입에 투척! 자, 스키장 시즌권은 준비했으니 이제 보드 간지를 위해 보드 슝으로 아이템 사냥 한번 가볼까? 잠깐 '무이자 할부'라는 무기를 휘두를 준비는 되어 있겠지?

근데 슬까 말해서 스키장에 보드만 타러 가나? 그냥 보드만 탈 거면 동네 놀이터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겠지. 알잖아~ 커피 앤 도넛인 것처럼 보드엔 '프리티 걸~ 프리티 걸~' 유남쟁?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도록! 배고픔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애나의 본능처럼 숨 막히는 뒤테의 처자를 침 흘리며 따라갔다가 난패 보기 십상이니까, 열에 아홉은 뒤테 보고 놀란 가슴 얼굴 보고 마음을 추스르게 될 테니 함부로 여자 공무니를 쫓아 리프트를 타진 말자(숨 막히는 아저씨 향해 리프트 추락 사건 기사가 들지도 들라).



어쨌든, 보드 간지 낸다고 투자란 투자 다 해놓고 막상 안경 위에 고글을 쓰는 건 어느 나라 간지? 그런 물골로는 당신이 꿈꾸는 스키장의 로망은 어렵도 없다고, 수많은 안경남의 보드 간지를 방해하는 허영계 김서린 이 안경이야말로 스키장에서 버려야 할 아이템 1순위 아닐까?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안경남들이 렌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 하지만 렌즈를 끼고 고글을 쓰자니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고, 심하면 각막에 상처까지 나기도 하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렇다고 안경 위에 고글을 끼기에는 내 간지가 너~무 죽잖아. 하야, 이 지긋지긋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 안경없이 보드 간지를 내고 싶니?

보드 간지를 부리기 전, 이제부터라도 먼저 시력 교정술을 받는 건 어떨까? 보드 장비 구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품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최근 라식 수술은 수술 후부터 바로 회복 효과를 볼 수 있고, 라섹 수술은 2~3일 정도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 혹시 아플까 봐 겁난다고? 맥심 에디터도 라섹 했는데 정말 안 아팠던데. 그리고 보드 간지는 3월이면 저물지만 한 번 제대로 교정한 눈은 평생 가잖아? 이번 기회에 안경 벗고 간지 좀 부리면 아마 평생 '질했군 질했어' 할 것이야. 이거 하나는 진짜야.

## MAXIM 공식 훈남 의사 김성일 원장이 알려주는 스키장에서 꼭 알아야 할 눈 건강 관리법! (당신의 건강은 품내지 말게나~!)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스키장에서 생기는 상해나 질병은 골절이나 혈과성질환? 의외로 안구건조증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눈 손상도 꽤 많다. 건강은 절대 자신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1. 설원의 자외선은 여름철 평균 자외선 이상이다. 선크림은 물론, 눈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고글이나 선글라스는 반드시 착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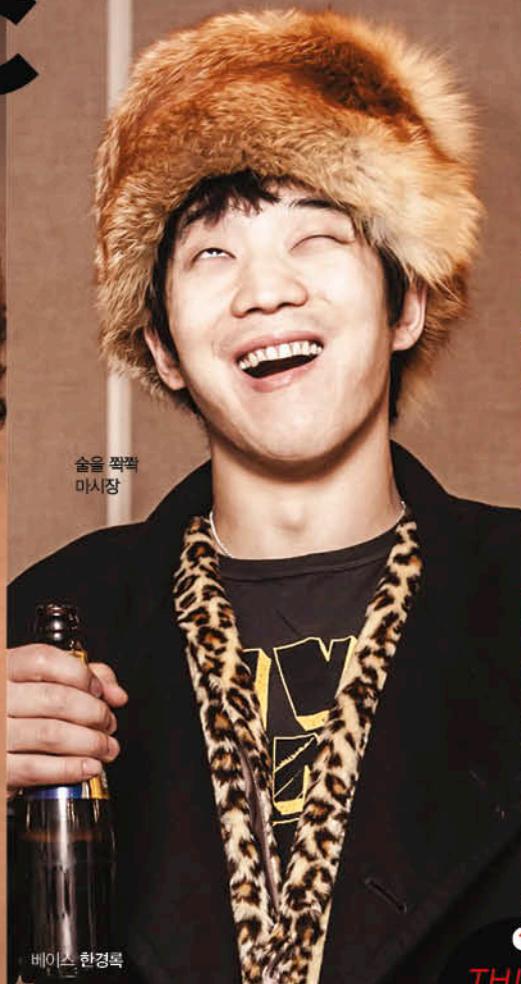
2. 센스 작렬하게 스키장 가기 전에 시력 교정 수술을 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용 고글! 기껏 돈 들여서 교정한 내 소중한 눈을 막 다룰 순 없잖아?

3. 혹시나 렌즈 끼고 보드를 탄다면 렌즈 세척이나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렌즈의 청결은 눈 건강과 바로 직결!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렌즈를 만지는 손은 깨끗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렌즈 착용 기건을 준수하자.





기타 이상면



술을 짹짹 마시잖

베이스 한경록



키보드 김인수

↑  
**THIS IS  
A  
FICTION**



보컬 박윤식

## MAXIM Attack 크라잉넛

세월을 피해 달리는 불혹의 록밴드 크라잉넛이 MAXIM과의 인터뷰 약속을 파투냈다. 그놈의 술, 이제 좀 작작 마셔도 될 텐데!

당장 스캔해!

크라잉넛의  
주집 공연 보기



드럼 이상혁



지금 내비 찍고 갈게요, 당장 만남사다오!

2013년, 새해를 맞아 흥대 인디신 로큰롤의 아버지 크라이넛 섭외에 성공한 당 에디터. 환희의 엔들핀이 온몸의 세포에서 폭발하는 듯한 설렘에 넉넉 인터뷰 약속부터 잡는다.



전화 좀 받아라.

약속 시간이 2시간이나 훌쩍 지나고 전화는 불통인 가운데 누군가 "혹시 크라이넛 멤버 모두 연습실에서 술에 찢어 퍼질러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직감이 이끄는 대로 MAXIM 사무실 코 앞에 있는(정말 10m 거리도 안 된다) 그들의 연습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데...



시발, 여기 있거만 해바라. &\*\$@\_ \*##!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크라이넛 일당 전원은 MAXIM 과의 인터뷰는 까탈게 잊은 채 연습실에 소박한 술판을 벌이고 놓고 있었다. 심술이 잔뜩 나 있는 에디터에게 리더 한경록이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에이, 술도 먹고 그래야 좋은 기사가 나오지." 그렇다, 시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인생이란 결국 고통 감내의 연속이라고 쇼펜하우어도 지적이지 않았던가. 먹고 마시고 눈 뒤에 찾아오는 후회와 고통을 느껴 봐야 더 열심히 살 텐데, MAXIM에서 일하는 놈치고 나는 너무 아름답고 차분하게 살아온 게 아닐까? 인터뷰고 나발이고 맥주나 마시며 노닐까 고민하던 에디터의 눈엔 이미, 적당히 취해 있는 크라이넛 멤버들의 발간 얼굴과 조졸하게 차려진 술판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 한국 인디 밴드의 1세대 대표주자.

객 혼내지 말아주세요. 서른일곱 짝이에염.

발군의 미안한 연기력을 뽐내는 그들이었다.



# Music



말씀 편하게들 하시라, 회사도 코 앞인 이웃사촌에, 딱 봐도 내가 한참 동생이다. 좀 전에 멤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립 카페' 어찌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김인수:** 나도 몰라. 어제 뉴스에서 성행하니 어쩌니 하던데, 정작 그게 뭔지 절대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궁금하게시러.

**박윤식:** 입으로 뭐하는 거겠지 뭐.

**이상혁:** 궁금하긴 하네. MAXIM이 뭐 아는 것 좀 있어?

귀지방은 들어봤어도 '립카페'는 금시초문인데?

**박윤식:** 귀지방은 또 뭐야? 그냥 귀 파주는 덴가요?

**이상혁:** 그럼 '코딱지방'도 있어?

파드릴까요?



**이상혁:** 싫대!

가장 최근 앨범 타이틀곡 '불편한 파티'가 꽤 좋다. 이걸 누구 작품인가?

**이상혁:** 내가 작사, 작곡했어. 근데 공연 때 별로 안 해서 가사 다 까먹었어.

한경록과 이상혁씨가 주로 작곡하는데, 저작권료 생각하면 배 아프지 않나?

**한경록:** 우리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라 다 나눠 갖는데?

**이상혁:** 맞아. 다 1/n로 나눠 갖지.

크라잉넛은 팀 분위기가 꽤 좋아보인다. 활동하는 18년 동안 탈퇴하겠다는 망나니는 없었나?

**이상면:** 이제 다들 무더졌지.

**이상혁:** 탈퇴하고 혼자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나가지...

**박윤식:** 우린 개인기가 안 되잖아.

**한경록:** 저러다가도 입금이 되면 다 해결돼.

**김인수:** 싸움할 때도 우린 다구리를 치지 일대일로는 싸우지 않는다.

멤버끼리 다구리를 해봤나?

**김인수:** 다구리 치려다 우리끼리 싸웠지...

**이상혁:** 우리끼리 다구리. 모 대학 체육부랑 싸웠다가 참패한 경험도 있잖아.

**김인수:** 차만 찌그러졌지, 우린 차로 도망갔으니까.

'크라잉넛' 뜻이 '우는 불알'이라던데, 진짜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인가?

**이상면:** 그 시절엔 어감 좋은 단어들로 밴드명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 굳이 해석하면 우는 불알일 수도...

존나 멋지군. 오디션도 한번에 붙었다던데, 지미 핸드릭스도 울고 갈 기타 실력이었나?

**박윤식:** 아니, 아주 좋았잖아.

**이상혁:** 그때는 1절 이상을 끝까지 카피하는 노래도 없었어. 공연하면서 무조건 때굴때굴 구르고 점프하고 그러니까 클럽 사장 아저씨는 엄청 좋아했어. 너무 웃기다고 자기 친구도 부르더라고, 혼자 보기 아깝다고.

**한경록:** 오디션 떨어지는 사람들도 보면 이해가 안 가. 하긴 우린 비주일로 합격한 거라서 할 말은 없지만...



크라잉넛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상혁:** 주장은 '기억이 안 날 때까지.'

멤버 중 최고 주장은?

**이상혁:** 그런 놈은 없어.



작곡 해봐야 이차피 1/n 하는 것...





다 죽재

**'5/2'**

2011년 5월 2일, 자살 파동이 분 카이스트에서 '다죽자'를 부를, 시작 전 리더 한경록이 "여러분 죽지 마세요!"라고 외침.

## '1.9.9.9'

1. 1집 '말달리자'로 록의 존재 가치 역설.
19. '착한 아이' 가사 중 "공초는 재떨이에"라는 부분 때문에 19금 판정.
199. 박윤식의 키가 183cm로 네이버 프로필에 잘못 게재. 이대로라면 이상면의 키는 약 199cm에 육박.
1999. 1999년 브라보콘 CF에 '말달리자' 음원 사용.



심벌 한번 치고 맥주 한 입 먹고



청순한 매력의 소유자 김인수.

### 가장 늦게 취하는 사람은?

이상면: 그런 놈도 없어.

한경록: 난 낫술을 진짜 좋아해. 남들 일할 때 일탈하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스케줄 없을 땐 한 2박 3일 정도 쪽 취해 있어.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김인수: 아, 예전에 공연 있을 때도 그랬잖아. 어디서 개뽕을 까고 있어!

이상혁: 가로수길, 가로수 밑에 누워 있었잖아. 너. 박윤식: 아마 14박 15일이었지?

김인수: 심지어 너 트위터 보고 찾아냈잖아. 우리가.

한경록: 아... 장사 못해먹겠네.

### '행경록'이로군. 18년이나 음악하다 보면 권태기가 오지 않던가?

이상혁: 권태기보단 갱년기가 왔었지. 몸에서 열나고 손발이 저리고 어깨가 뻑뻑한...

김인수: 공연을 칠 새 없이 하다보면 "이렇게 바쁘게 살 거면 공무원이나 하지 왜 밴드 하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하지만 공연이 뜸할 때는 또 미친 듯이 노니까 권태로움 틈이 없지.

이상혁: 그래? 그럼 오늘도 술 먹자. 연습 쉬고.

김인수: 이렇게 마셨는데 똥 연습을 해. 어디서 개수작이야!

### 국산 맥주는 안 마신다는 얘기가 있다.

이상면: 국산 맥주가 그렇게 맛이 없는 것은 아니고...

크라잉넛: 광고 찍자며

10년 동안 연락도 없대!!!



MAXIM 인터뷰에서 김도균씨가 국내 사운드 엔지니어링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크라잉넛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상면: 극단적인 예로, 앞 팀이 우쿨렐레 팀이고 그 다음 팀이 데스메탈 팀이더라도 사운드를 잡아서 모니터해줄 능력이 필요한 거다. 결국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지.

이상혁: 그럼 우쿨렐레로 데스메탈 하는 팀은 어떡해?

김인수: 그런 새끼는 그냥 죽이자.

이상혁: 오호.



### 이 오지게 장수하는 록밴드 크라잉넛의 수명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보나?

이상혁: 팬들 귀에 통 칠할 때까지요.

이상면: 일단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니깐 관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음악 계속 해야지.

이상혁: 마지막 남은 팬 귀에 통 칠할 때까지.

이상면: 조용히 좀 해.

박윤식: 우리 음악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까지라도 음악을 해야지.

한경록: 무대에 서는 건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야. 혹시라도 무대가 재미없어지면 그만해야겠지!

김인수: 최후의 한 명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



오늘의 포토제닉

# 오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송중기는 못돼도 송중기 피부가 되는 비법을 공개하겠다.

## ① 멍게 피부 말년 병장 K군

나는 올해 스물세 살 말년 병장 군인이다. 빨리 제대해서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막상 거울을 보니 많이 캄캄. 지난날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울퉁불퉁 멍게 피부로 살아온 내 청춘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더러운 여드름 피부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모임 지리는 자연스럽게 빠졌고, 또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고백 한번 못해봤다(그래, 나 모태 솔로다). 이렇다 보니 인간관계도 엉망, 피부도 마음도 다 망가진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제대를 해도 똑같은 패턴의 초라한 인생,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 ② 피부 미남으로 다시 태어나다

제대 말년 휴가를 나와 여드름 흉터에 특효인 SL흉터재생술로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1차 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받는 동안 얼굴이 조금 따끔했지만 내 피부를 고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까지 고친다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다. 짧지 않은 시술 시간 동안 원장님은 꼼꼼하게 내 흉터를 하나하나 치료해주셨고, 재생관리도 꾸준히 받았다. 1개월 후 신기하게도 피부가 제법 매끈해졌다. 한 번 더 남은 2차 시술을 받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들뜬다. 조금만 기다려라. 귀요미 후배들이, 피부미남 복학생 오빠가 곧 "짜잔!" 하고 나타날 테네!

## BEFORE & AFTER



왼쪽 얼굴

BEFORE

AFTER



오른쪽 얼굴

## ③ 손철훈 원장님의 여드름 흉터 치료 비법 인터뷰 대공개!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카리스마> 저자
- 前 대한스모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강사
- 에스킨아카데미 공동 대표

**Q1. SL흉터재생술이 개인 맞춤형 흉터 치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A1.** 여드름 흉터는 깊이나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흉터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하나하나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저희 한의원에서 개발한 SL흉터재생술은 흉터마다 방향과 깊이를 달리해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독자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기존 프락셀이나 MTS 시술과 같이 흉터 전체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Q2. 치료할 때 많이 아플까요?**

**A2.** SL흉터재생술은 기존 흉터 치료에 비해 약 50% 정도 고통이 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가 고통을 잘 참아가면서 끝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중기같이 깨끗한 피부 미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정도 고통쯤은 참아줘야겠죠?

**Q3. 군인인데 휴가를 이용해 치료가 가능할까요?**

**A3.** SL흉터재생술은 기본 1SET당 2회 시술을 진행합니다. 군인들이 보통 일주일 휴가를 받는다면 휴가 기간에 시술 및 피부 재생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차 시술을 받은 후 2차 시술은 빠르면 3주 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술을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심한 흉터가 아니라면 1SET 시술만으로 피부에 새살이 50% 이상 오를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치료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담배 해도 될까요?**

**A4.** 치료 후 각질이 5일 내에 일어나고 흉터 부위에만 딱지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외출할 때에는 흉터 부위에 비비크림이나 선블록 제품을 발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죠. 담배는 피워도 피부에 상관없지만 시술 후 2~3일은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원장님, MAXIM 보고 왔어요~!

하하, 제가 MAXIM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MAXIM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주시면 피부 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요. 환자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면밀한 피부 진단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피부인지, 어떻게 시술할지, 시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SL흉터재생술은 마치 수확 공식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번의 시술만으로 피부가 얼마나 재생될지 예측 가능하고, 또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혹사시켰던 여드름 흉터 피부, 이제 SL흉터재생술로 여드름 흉터 치료의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노)장든  
누나 몰래.avi



헤진 누나: 1981년 10월 27일생

## 누나의 변신은 무죄

뭘 해도 상관 없어요, 영원히 사랑해 누나!



내가 벌써 서른셋?

유리 누나: 1981년 3월 3일생

### 누가 뭐래도 헤진 누나가 짱!

그녀를 보면 '바른 몸에 바른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떠오른다. 참으로 올바른 몸매와 멘탈을 지닌 그녀는 풀패키지! <힐링캠프>를 보면 대화를 니룰수록 매력적인 여자임이 확실해진다. 몸매는 MAXIM이 보장한다. MAXIM 커버 모델로 선 적이 있을 정도로 훌륭하니까. 개성 넘치는 쿡구명(?)은 전형적인 미인이 주는 지루함을 상쇄한다. 화제작 <26년>에서는 전(前)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는 사격녀로 변신해 매서운 눈빛을 쏜다. 그 새끼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사랑의 총알을 쏘달라고요! <26년> 상영 중

행야



### 닥치고 찬양! 유리 누나가 짱!

걸그룹 사상 전무후무한 미모 넘사벽! 그녀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의 이상형이다. 처음엔 그저 예쁜 얼굴에 로봇같은 톤으로 "나는 부여의 공주 부여주다"를 무한재생하던 성유리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한 진짜 배우로 진화했다. 이번엔 영화 <누나>에서 죽은 동생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사는 여자로 변신했다. 이 맑고 순수하고 여린 여인의 모습을 보고 보호 본능이 팍팍 서지 않을 남자가 과연 있을까. <누나> 1월 3일 개봉



### 언니들, 비켜!

어린 게 벼슬이라고, 이 누나들보다 6살 어린 한효주(87년생)의 새 영화 <반창꼬>에 솔직히 더 눈이 간다. 미남새끼 고수와 러브 라인을 그리는 119 구조대원으로 변신한 그녀. 유니폼을 입히니 더욱 좋구나!

어째서 난 이렇게 예쁘지?



야, 형도 좀 봐주라!

### 형님의 변신

장학우, 광부성, 여명과 함께 시대천왕으로 못 여심 흔들던 유덕화 형님의 최근 변신은... 뭐지 이거? <미래경찰 X> 12월 25일 개봉

아저씨  
잠실 더블

방송사의 명절 영화  
선정 코드  
가족, 코미디, 감동,  
어드벤처, 성동

희미 코드  
섹스어필(엇흠), 신체  
절대 고깃국을 못 먹음,  
정차(전라도 큰 아버지랑  
경상도 고모부랑 큰  
싸움남)



라이프 오브 파이

10:00

일요일 아침의 친구 <TV 동물 농장>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 동물 영화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10년 전 영화를  
봐도 출연진 헤어스타일 빼고는 유치하지가 않다. 대양  
한가운데서 조난 사고를 당한 청년이 간신히 구명 보트에  
오르지만 웬 호랭이 한 마리가 합승을 요구한다. 동물원 주인  
아들이었던 청년의 백그라운드는 통할 것인가

▶ 한핏줄 영화 늑대개, 베토벤, 주라기 공원

명절 24시

1월 개봉작을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차세대 캐빈이 될 만한 자질이 있구나!

지금 너 꼬시는 중이거든?

12:00

반창꼬 12:00

훈남, 훈녀 배우의 달달한 로맨스  
영화는 설날 점심시간의 단골 메뉴.  
거기에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배우의 열연까지 가미된 코미디  
영화라면 금상첨화! 계란 고명 얹은  
떡국 후후 불면서 곁눈질로 보는 거다.  
한효주가 차마까지 들춰 올리면서  
김하늘에게 도전장을 냈는데 과연  
그녀의 업스커트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 한핏줄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B형 남자친구

나중에 크면  
절세미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리한 부탁이다...

14:00

빨간 머리 앤 14:00

아침 일찍 성묘 다녀와서 눈이  
살곰 감기는 나른한 오후 시간에는  
민화영화다. <유희왕>같은 최신  
작보다는 추억의 작품들이 방영된다.  
애들 보라고 편성한 게 아니라 거다.  
이번 설에는 이미 이쪽 세계에서  
전설을 기록한 그분의 컴백이 기다리고  
있다. 재탕, 삼탕에 심전대보탕까지  
꿀일 지경이지만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빨간 머리 앤은 자꾸 봐도  
질리지 않는다.

▶ 한핏줄 영화 들리 얼음별 대모험

크흑 엄마  
보고 싶어

18:00

마이 리틀 히어로 18:00

퇴물 취급 받는 뮤지컬 감독 김래원은  
뮤지컬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에 코치로  
출연해 재도약을 꿈꾼다. 하지만 그와  
파트너가 된 것은 우승과는 거리가  
먼 동남아빌 소년. 이 둘의 성장  
드라마는 안 봐도 눈물바다다. 가족들  
앞에서 훌쩍거리기 민망하지만 설날  
연휴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나. 아까 엄마한테 쓰리고에  
광박까지 씌웠다고 큰소리쳤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 한핏줄 영화 완득이, 댄싱퀸, 씨씨

위, 월슨?

22:00

클라우드 아틀라스 22:00

설날 특선 영화는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몫이다. 한밤중에 꼭 1,2  
부로 나뉘어 방영한다. 중간 광고가  
너무 길어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한다. 500년을 넘나드는  
다중적인 플롯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톰 행크스만큼 대중적인 영화를  
선택하는 배우도 없으니 믿고 보는  
거다.

▶ 한핏줄 영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매트릭스

추억의 설날  
특선 영화



장기 집권 레전드 명절 스타: 성룡

1979년 <취권>에서 시작된 성룡의 전설. 그의 얼굴을  
좀 봐야 "아 명절이구나!" 싶다. 매년 봐있더니 이제  
큰아버지보다 더 친근하다. 작품 활동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 한물 꺾인 모습이다.

대표작: 용형호제, 취권2, 흥분구 등

명절 스타 라이징: 차태현

<과속 스캔들>, <헬로 고스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복면 달호>... 이게 다 뭘 줄 알아?  
네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TV에서 주구장창  
볼 영화의 이름들이야!



윤근관 INKARTI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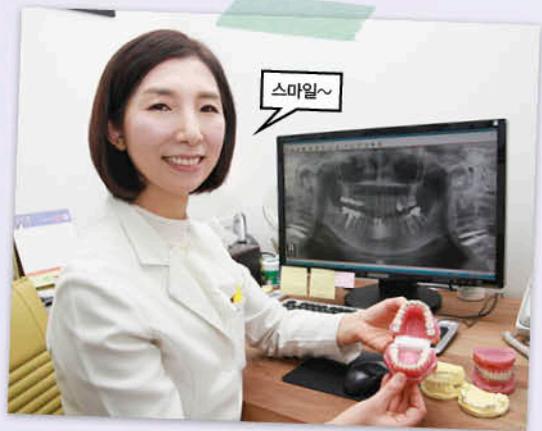
#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과연 미남?

입만 가리면 얼짱이라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웃는 얼굴에 칙 백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도록 치아미남이 돼보자고!

## 학생~ 미소는 놓여둬~!

취업 이력서에 넣을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비싼 돈 주고 정장 한 벌 짝 빼 입고 생전 써본 적도 없는 비비크림도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 물론 머리 드라이는 필수겠지? 그리고 전문 스튜디오에 찾아가 비장한 각오와 함께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연신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내다 사장님께서 입을 여셨다. "아이고, 학생 인상이 참 좋네. 이제 한번 김치~하고 웃어볼까~?" 사장님의 요청에 나는 조금 주춤했지만 이내 곧 "김치~" 미소를 날려주었다. 그리고 나의 구수한 김치 미소를 보신 사장님은 약간 당황해 하셨다. 그 후 렌즈 한 번 보고 내 얼굴을 한 번 보시더니 멧쩍은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허, 그냥, 입을 다물고 찍는 게 낫겠어" 그렇다. 내 치열은 엉망이었다. 치아들이 중구난방으로 솟아 마치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사람들로 부터 "XX아, 입 좀 가리고 웃어라", "그 이빨로 여자랑 키스는 하겠냐" 라는 소리까지 들을 때면 심장에 비수가 콧콧 꽂히는 기분이었다. 취업도 연애도 가지려한 치열은 필수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는다. 근데 이 나이에 이빨에 교정기를 달면서 남들에게 티내기도 싫고, 하아~ 나도 치아 미남이 되고 싶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 겉으로 보이는 교정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치과 전문의 강해경 원장님이 전하는 티 안 나는 교정! 그런데 티 안 나는 교정이 뭐지? 원장님~



도움말 주신 분  
강해경 원장 치과 전문의

진료분야  
부정교합, 돌출입 교정, 주걱턱 교정

치의학박사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세계치과 교정학사 연맹 Fellow  
실측교정학회 회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Q1. 원장님, 티 안 나는 교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1.** 네, 사실입니다. 치아 안쪽으로 교정하는 설측교정이 있습니다. 장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기간의 치아 교정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티 나지 않게 치아 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업이나 면접을 대비하는 환자분들이 자주 찾는 교정법이기도 합니다.

**Q2. 치아 교정만으로 이미지 변신이 가능할까요?**

**A2.** 교정 치료는 칼을 대지 않은 성형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교정에서 필요한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 치아를 움직이면 입 주변의 잇몸 뼈와 근육들의 리모델링이 생기면서 변화를 줄 수 있죠. 또 가지려한 치열은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상이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Q3. 취업 준비생이라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3.** 교정은 자기 치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기간은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립니다. 또 치아 성형은 해당 치아를 삭제하고 그 위에 도자기 인공 치아를 덧씌우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마음만 먹으면 1, 2주 내로 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상태, 치료 기간, 치료 후 원하는 모습 등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Q4. 주변에서 돌출입은 양악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정만으로 돌출입을 고칠 수 있을까요?**

**A4.** 돌출입에도 부류가 있습니다. 치아만 돌출된 경우와 턱뼈 자체가 함께 돌출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치아만 돌출된 경우이므로 이때는 교정 치료만으로도 성형수술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턱뼈 자체가 돌출된 경우나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수술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정 치료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MAXIM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정교합은 충치 및 잇몸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 구강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심지어 소화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외관상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정을 통해 많은 환자분이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MAXIM에서 저희 치과를 보고 오신 분들에게는 무료 진단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교정 진료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의사진과 완벽한 소독 시스템을 믿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지려한 치열 미남으로 다시 태어나 잃어버린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길 바랍니다.

## 괴짜 의사들의 황당 수술 신 Top 5

너는 이미 완치됐다.

\*주의: 역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싫으면 찢든가.



쿠로오 in <블랙잭>

➔ 무면허 의사의 무모한 수술

외모만 보면 도적인지 의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카리스마도

엄청나지만, 바가지가 더 엄청나 수술 한 건 당 수억 원씩 뜯어낸다. '빛쟁이냐, 병신이나'를 선택하는 건 환자의 몫이지만, 가끔 생사가 급한 환자는 바로 구해 주고 나중에 수술비를 청구한다. 이거 사기 아니야?



닥터K in <슈퍼닥터 K>

➔ K가 혹시 '켄시로'의 약자?

약당들에게는 알짱없이 전치 3주치 부상을 선사하는 무적 의사. 작가가 분명 <북두의 권>의 아류작을 기획하다가 <블랙잭>에 꽂힌 게 분명하다. '야수의 육체에 천재의 두뇌 그리고 신기의 메스를 지닌 사나이!'라니. 의사에게 대체 야수의 육체는 왜 필요한가.



마히가시 테루 in <갓 핸드 테루>

➔ 의료계의 소년 탐정 김전일

전설적인 의사의 아들이라는 식상한 설정. 어릴 적 비행기 사고를 당했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응급처치로 가슴에 아크 원자로 같은 손자국이 생겼다. '신의 손' 테루는 환자의 콧구멍을 보고 폐부종을 발견하거나 손가락을 보고 암을 발견하는 추리력으로 승부한다. 말도 안 돼!



가능한?  
셀프 개복 수술

이 작품 최고의 명장면이자, 황당 신이자, 의료 만화가 우려먹는 영원한 떡밥 신 거울에 의지해 자가 수술을 한다. 나중에 <닥터 K>에서도 주인공이 이 기술을 시전하지만 실패한다.



초인전사 수술

경주를 통해 전기 바늘을 척추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신경을 태워서 끊는다. 마취 따위는 필요 없다. 콧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OK! 당신도 이제 초인이다!



레알 갓핸드의 등장

시종일관 놀고먹기만 하면서 테루에게 면박만 주는 골초 병원장의 능력이 드디어 단행본 29권에서 나온다. 사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등장인물들이 다 놀라잖아. 대단한가 보다.



시노기 쿠레하 in <격투왕 바키>

➔ 이 만화엔 정상인이 없어

20대의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외과의사 겸 파이터.

인체를 흰히 꿰고 있는 탓에 급소를 노린 공격이 주특기다. 그러라고 배운 의술이 아닐 텐데? 원래는 악역이었지만, 주인공에게 빌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반성하고 개과천선한다.



마다라키 프랑 in <프랑켄 프랑>

➔ 이럴 바엔 차라리 죽게 두면가

슬프도록 아름다운 내장 묘사가 인상적인 만화 <프랑켄 프랑>의 미소녀 의사. 정신이 흠미해지는 수술 장면을 보다 보면 이년한테 수술을 받느니 차라리 허를 깨물고 싶어질 거다. 질린 머리를 살린답시고 머리에 오장육부를 처넣고, 몸이 상했다고 개, 애벌레, 사람 손 등을 몸통으로 재활용하니까.



메스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무려 맨손으로 근육 밑에 손을 넣어 심장을 마사지하고 수술한다! 옮겨치는 것만으로 환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탈인간급 존재인 듯, 아무리 만화지만 이건 좀...



위대한 시작

<프랑켄 프랑>의 첫 수술. 자기가 죽인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그의 두개골 뚜껑을 과감하게 따내고 아들내미 얼굴을 뒤통수에 접붙이기로한다.

### 환자 양성소

닥치는 대로 다 병신 만들어 드립니다. 의사들이 맘 놓고 먹고 사는 그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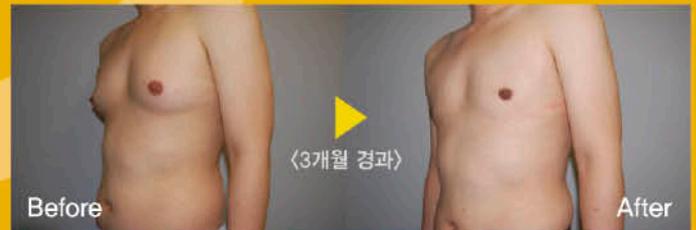
**고로시야 이치**  
동명의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울며 사람을 죽여 '올보 킬러'라 불린다. 현장을 정육점으로 만드는 능력은 마장동 고기 상인들도 허를 내두를 정도다.

**루시**  
문제작 <엘멘리트>의 주인공. 평소엔 별다른 거 없는 거유 미소녀지만, 폭주 시 천수관음이 되어 적의 사지를 분리한다. 머리를 '뚝' 하고 따는 게 특기.

**아카라**  
고어물 <피안도>의 주인공. 형의 복수를 하러 흡혈귀가 바글대는 섬으로 들어간 뒤 무쌍난무를 익혔는지 한 손만으로도 수십 명의 적을 반동강낸다.

#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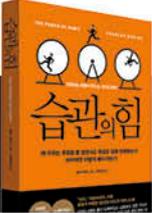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습관의 힘 vs.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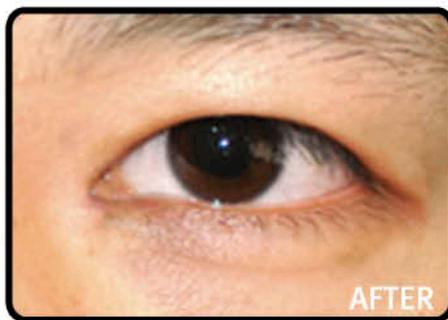
새해엔 나도...

해가 바뀔 때마다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 같은 걸 주는지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결심하곤 한다. '담배 끊고 그 돈을 15년 모으면 페라리 한 대를 살 수 있다는데', '새해엔 기필코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서 쿨가이 선발 대회에 나가고 말리라(응?) 류의 흔하지만 결코 성공한 적이 없는 다짐을 한다. 평소 자기 개발서 따위를 극도로 혐오하는 에디터도 새해 시즌을 맞아 자기 개발서 코너를 기웃거리다 아주 상반된 책 두 권을 집어왔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p><b>습관의 힘</b> 찰스 두히그 지음/ 강주현 옮김/ 갤리온/ 16,000원</p> 	<h1>VS.</h1>	<p><b>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b> 정희재 지음/ 갤리온/ 13,800원</p> 
<p>하버드 MBA 출신 &lt;뉴욕타임스&gt; 심층 보도 전문 기자가 자신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어 밝혀낸 스마트한 습관 사용법</p> <p>➔ 하버드 MBA 출신에 &lt;뉴욕타임스&gt; 기자라... 나쁜 습관 하나쯤은 있어도 되잖아?</p>	<p><b>표지 문구</b></p>	<p>"넌 할 수 있어"라는 다그침은 이제 그만! 쉽 없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을 향한 유쾌한 선언</p> <p>➔ 지, 지금 나한테 한 말 맞죠? 아, 왜 자꾸 눈물이 내려 그러지?</p> <p style="text-align: right;"><b>WIN</b></p>
<p>성공하고 싶다면 열망을 자극하라/ 바뀐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법/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 왜 우리의 의지력은 쉽게 무너지는가/ 실패하지 않는 의지력 훈련법/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p> <p>➔ <b>목차만 봐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b> <b>WIN</b></p>	<p><b>목차</b></p>	<p>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돈 없어서 기죽는 순간을 쿨하게 받아들이 권리/ 스마트하지 않을 권리/ 심심할 권리/ 실수할 권리/ 그냥 폭 쉴 권리/ 보함을 듣지 않을 권리/ '더 노력해라'라는 말을 거부할 권리/ 생각하지 않을 권리</p> <p>➔ <b>아임 스틸 헝그리!!!</b></p>
<p>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면밀히 관찰해서 간식거리를 찾아 매번 책상을 떠나는 이유를 알아내라. 그런 다음 카페테리아로 먹을 것을 찾아가는 대신에 당신과 함께 산책할 사람이나 체중 감량이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가까운 곳에 감자칩보다는 잘게 썬 사과를 놓아두려는 사람들을 찾아라.</p> <p>➔ <b>보기만 해도 파근이 물러온다.</b></p>	<p><b>삶의 태도</b></p>	<p>장자는 말한다. 완벽한 삶을 갈망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우주의 조화로운 생명 법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그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저런 계산 없이 오롯이 그냥 존재하기.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기. 이것만 가능해도 이 지구별에 머무는 재능을 터득한 것이나 다름없다.</p> <p>➔ <b>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면 안되지.</b> <b>WIN</b></p>
<p>직원들에게 조직의 대리인이란 의식, 즉 원가를 통제하고 진정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업무에의 열의와 집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010년 오하이오의 한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작업복을 직접 디자인하게 했고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했다. 그 밖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2개월 후 그 공장의 생산성은 20퍼센트나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실수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직원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식을 심어 준 것만으로도 업무에 대한 자제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p> <p>➔ <b>자율출근제를 허하라!</b> <b>WIN</b></p>	<p><b>직장 생활</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자기개발서 한 권 보실라우?</p>  </div>	<p>회사 생활 11년 차에 이른 후배 한 명이 자신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일 자체만을 보려고 애쓰기 때문이라고 했다.</p> <p>"저는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상사들에게 할 말은 해요. 그래선지 제가 말하면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미리부터 속증이고 살고 싶진 않아요." &lt;힐링캠프&gt; 양현석 편에서 인터뷰 도중 양현석 씨도 그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p> <p>➔ <b>그러다 영영 쉬게 되는 수도 있죠.</b></p>
<p>매일 3시 30분쯤 쿠키가 먹고 싶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있는 카페로 가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다. 요즘은 이렇게 한다. 3시 30분쯤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둘러보고 친구가 보이면 그리로 가서 10분 동안 수다가 돌아온다. 쿠키의 유혹은 완전히 사라졌고 몸무게도 4킬로그램 줄었다.</p> <p>➔ <b>연애와 다이어트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b></p>	<p><b>의지력</b></p>	<p>사막의 날이만 마음 가는 대로 해 보는 날이다. 씻고 싶을 때 씻고, 배고플 때 먹고 잘 차려먹고 싶으면 잘 차려먹고, 대중 먹고 싶으면 대중 먹고... "사막의 날?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 내 친구의 말이다. 나도 이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p> <p>➔ <b>사막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b> <b>WIN</b></p>
<p><b>WINNER</b> EDITOR'S CHOICE 자기 개발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p>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http://www.me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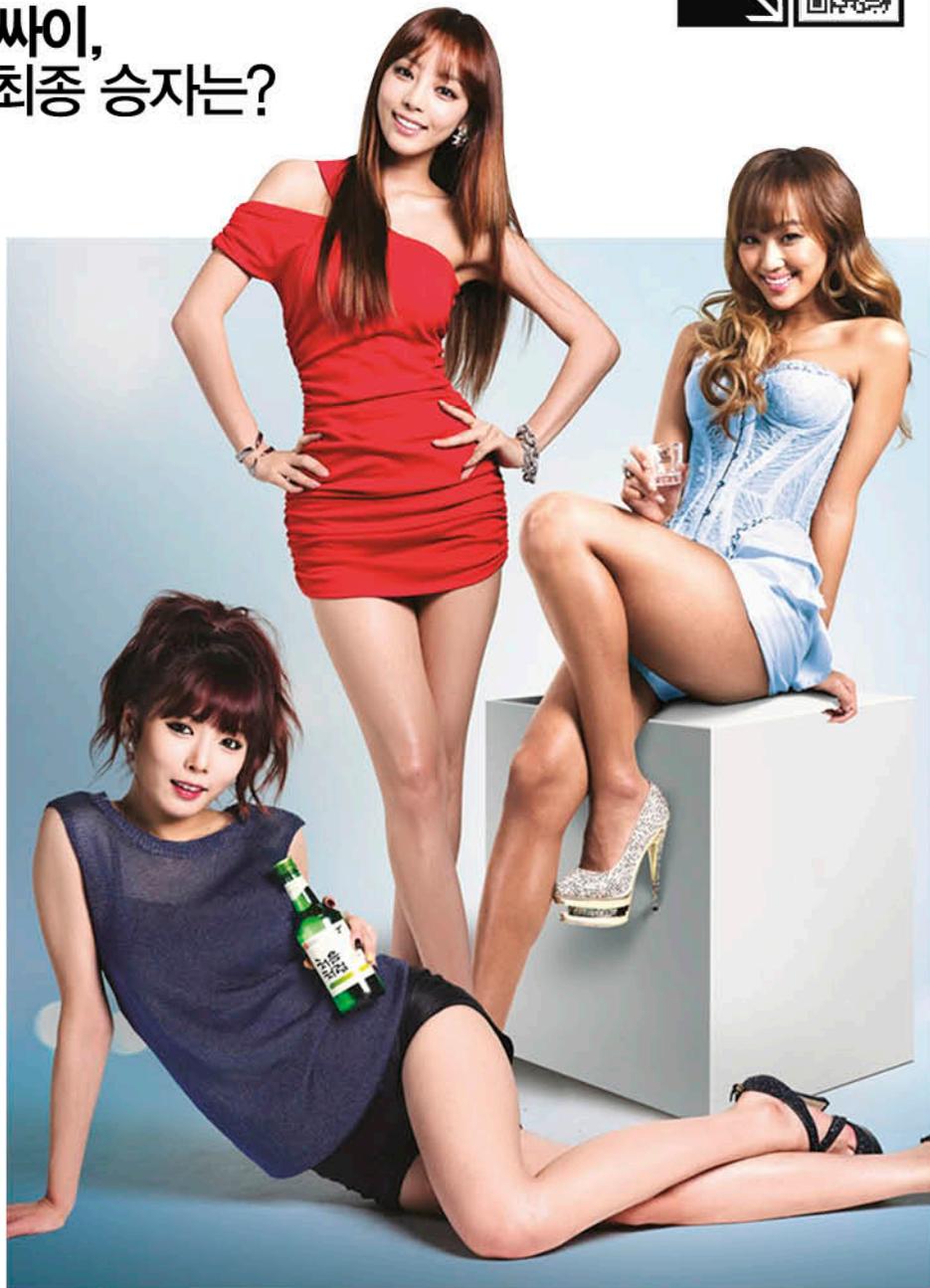
## 걸그룹 3인방 vs. 싸이, 소주 광고 대결의 최종 승자는?

카... 이게 광고야, 뮤직비디오야?

→ 최근 롯데주류는 지난 5년간 '처음처럼'의 광고 모델로 활약한 이효리에게 안녕을 고했다. 2008년, 이효리가 소주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 자체가 핫이슈였다. '효리'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불과 1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4.5% 상승했고, 이슬이만 알던 사람들이 처음처럼을 같이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신생 브랜드 처음처럼은 누적 판매 20억 병을 달성하며 소주계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고, 그녀도 어느덧 30대가 됐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최근에는 돌연 '동물 보호 운동', '이상수 여자친구 활동'에 나서며 스스로 섹시스타의 이미지를 내려놓았다. 롯데주류로서는 새로운 선택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카드는 포미닛의 현아와 카라의 구하라 그리고 씨스타의 효린이다. 여자 셋이 클럽에서 댄스 배틀을 벌이는 내용의 광고에서 구하라는 끝반 웨이브를, 효린은 다리 찢기 춤을 선보이고, 현아는 '거울아 거울아'에서 시도했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포기당한 '쩍벌 댄스'를 재연한다. 영상이 공개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조회 수가 96만 건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심상치 않다. 다만, 이번 광고에 큐티 글래머 전효성이 빠졌다는 게 아쉬울 따름(그녀는 이미 무학그룹 '좋은데이'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현아와 전효성 간에 '쩍벌 배틀'을 벌였더라면 그 반응은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거다. 이 세기의 배틀은 앞으로도 영영 볼 수 없는 걸까?

사실 진짜 배틀은 따로 있다. 망년회, 신년회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술잔이 벌어지는 연말연시, 왕좌를 지키려는 참이슬과 뺏으려는 처음처럼의 매출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참이슬의 이번 전략은 완전히 새롭다. '소주 광고는 여자 모델'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고 서울 시청 무료 콘서트에서 '소주 원샷' 퍼포먼스를 선보인 국제 가수 싸이를 참이슬의 모델로 기용했기 때문. 정공법으로 나온 처음처럼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여자 아이돌 3인방 대 싸이, 과연 그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참이슬이 승리한다면 앞으로 소주 광고에서 섹시한 여자 모델을 점점 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그건 안돼!).



### 피식 포인트 3



1. 구하라의 천수관음보살 댄스 하악거리면서 그녀의 몸짓에 집중하다가도 이 동작에서는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



2. 효린의 각선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는 잘 알겠으나 이 동작, 등산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준비운동과 뭐가 다른단 말인가.



3. 클럽 댄스 신나게 보여줘 놓고 정갈한 김치 총지라니... 하선정씨가 셔플댄스 추는 듯,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ye News

라식 수술? 다 똑같다?!

레이저 장비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의사의 **능숙함**과 **숙련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라식·라섹 수술 전  
레이저와 장비 확인  
하셨나요?



검사실



수술실 I



수술실 II

의료진 **수술 경력 15년 이상 백형일 대표원장 직접 집도**



박혜영 원장

백형일 대표원장

한은령 원장

강남서울밝은안과의원에서는  
첨단 레이저 시스템과 숙련도 높은 의료진을 통한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 시력교정술이 가능합니다.

첨단  
정밀검사

아벨리노  
DNA 검사

1:1  
맞춤수술 시스템

검사·수술  
동시가능

\* 눈 상태에 따라 빛번짐, 안구건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 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 **노안교정** 노안 라식, 백내장

· 찾아오시는길



· 진료 시간

월,수,목 10:00 ~ 19:00

화, 금 야간진료 10:00 ~ 21:00

토요일 10:00 ~ 17:00

· 상담 및 문의

**1588-388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18,19층 (강남역 1번 출구)

### 바이젠 비어

#### Before Drinking

팝 안, 남자가 메뉴판을 보고 있다.

男: 영숙이는 어떤 맥주 마실래?

女: 난 그냥 호기든 마실게.

男: 밀맥주 좋아하는구나? 그럼 다른 밀맥주도 한 번

마셔 봐(호기든은 도수가 너무 약해서 안 돼).

女: 응. 아는 거 있으면 오빠가 추천해줘.

男: 음... 독일 밀맥주 중에 골라 보면... 그래, 여기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바이젠 아이스복도 꽤 괜찮아.

맛은 꽤 묵직한 편인데, 겨울에는 보통 진하고

무거운 맥주가 어울리니까... 곧 맛은 담콤한 편이라

맛있을 거야(너도 맛있을 거야, 그치?)

女: 응, 그걸로 할게. 근데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독일어라서 그런지 너무 생소하다. 어떻게 읽어?

男: (이날을 위해 연습했다)Schneider Aventinus

Weizen Eisbock, 너무 어려우면 슈나이더라는

회사에서 나온 바이젠 비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女: 바이젠 비어가 뭔데?

男: 밀맥주를 독일어로 바이젠 비어라고 해. 바이젠이

밀이라는 뜻이거든. 슈나이더에서는 밀맥주만

생산하니까 어쩌다 보니 고유명사처럼 늘 붙어

다니게 된 거지(너랑 나도 곧 붙어먹을 거고).

女: 그런데 아까부터 들었는데, 오빠 발음이 심상치

않은 게... 혹시 독일어 할 줄 알아?

男: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Ich will SEX mit dir...

女: ...응?

### 아이스복 비어

#### After Drinking

女: 어우, 왜 이렇게 취하지?

男: 생각보다 술이 약하구나? 걱정 마, 갈 때 오빠가

데려다 줄게(모텔로).

女: (탈곡)

男: 안 되겠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셔. (종업원을

부른다)여기 얼음 물 한 잔이요.

女: 고마워, 오빠. 사실 나는 아까 아이스복이라고

하길래(탈곡) 얼음 넣어서 마시는 맥주인 줄 알았어.

男: 하하하, 맥주 통이 일면 그 안에 살얼음이

떠다니는 경우가 있잖아. 얼어버린 건 물이니까 그

얼음을 걷어낼수록 맥주 통 안에는 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맥주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그래서

일교율 도수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맥주를 아이스복

비어라고 부르는 거고(그러니까 얼은 마시고 쓰러져

줄래?).

女: 그렇구나. 오늘, 오빠 덕분에 새로운 거 배웠다.

도대체 이런 상식은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가끔씩 느끼는 건데 오빠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男: 내가 뭘엔(우리집 앞, 독일 소시지 가게 이름이야)

에 있을 때, 슈나이더 브루이 하우스에 자주

들렀거든. 거기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들려 준 얘기야.

女: 오빠...

男: 응?

女: 그런데 나... 너무 졸음이 쏟아져...

男: 괜찮아? 그럼 어디서 잠깐만 쉬다 갈까? ☺

##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바이젠 아이스복(12.0%)

알고 있는가? 우리 나라에도 12%짜리 고도수 맥주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녀석을 이번 달 작업용 맥주로 선정했다. 그녀와의 술자리, 슈나이더 아벤티누스 바이젠 아이스복(헥)을 일발 장전하라. 그리고 딱 두 가지 작전명만 기억하면 된다. 자, 복창한다. 바이젠, 아이스복! (바이젠, 아이스복!) 주의: 맥주라고 안심하고 훌쩍훌쩍 마시다가는 꼴로 가는 수가 있다.



↓  
듀벨: 8.5%  
다른 고도수 맥주로는 벨기에산 에일인 듀벨이 있다. 듀벨이 벨기에 사투리로 약이라는 뜻이라서 보통 '약미의 맥주'라고 불린다.

본능에 충실한  
남과 여



요즘 가장  
잘나가는  
맥주는?



네네 확 다 털어버린다?

뭐든 다 드릴게요. 영영.

아오, 내가 필만 달렸어도...

(아야, 고개 더 숙여.)

## 세계 맥주 기행 독일 밀맥주 첫 번째: 남부 독일 바이젠

세계는 넓고 맥주는 많다. 비어 스타일리스트 이효복과 함께하는 맥주 여행. 이번 주인공은 많은 여성 맥주 애호가들의 입술을 흥차른 밀맥주다. 그 가운데 독일 남부의 바바리아 지역에서 마시는 바이젠(Weizen)을 소개한다.

### 오래되도 너~무 오래된 밀맥주

양조에 밀을 사용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조 방법인 벨기에의 람빅(Lambic) 스타일 역시 밀맥주의 일종이다. 그 역사는 7,0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농사를 겨우 근근이 짓고 토기, 석기를 쓰던 신석기 시대에 밀맥주라니, 한량도 이런 한량이 따로 없다. 밀은 맥주에 감칠맛 나는 매운맛과 향긋한 과일 맛을 낸다. 하지만 밀은 양조하기에 까다로운 재료다. 보리와 달리 겹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교처럼 끈적끈적해져 양조통을 막아버리기 쉽다. 이런 까닭에 밀은 보리와 함께 쓰인다. 보리의 겹질이 밀이 양조통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 보리는 자연 효소의 함량이 높아서 몰트로 만들지 않은 밀을 사용해도 자신은 물론 밀의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기까지 한다.

### 시골 할머니들이나 마시던 거?

그러나 라거 양조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많은 양조 곡식으로서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1800년대 중반 다크 라거가 뮌헨에서 완성되고 1900년대 들어 페일 라거가 대중화되면서 밀을 원료로 한 맥주 스타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호가든의 고장 벨기에에선 한때 그 맥이 끊길 정도였고 독일에선 바바리아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따름이었다. 그나마 1980년대 초까지 시골 할머니들이나 마시는

존스러운 음료로 무시당했다. 하지만 오늘날 밀맥주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바바리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70년대 전통 영국 에일을 보존하려는 CAMRA(Campaign for Real Ale) 운동과 유럽 전통 맥주로부터 영감을 얻은 80년대 미국의 마이크로 양조장 운동의 영향 덕분이기도 하다.

### 바바리아 사람들의 일상 음료 바이젠

오전 반주가 최고라는 건 우리네 여르신들에게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었다. 저 멀리 바바리아에서도 아침에 어린 송아지 고기로 만든 흰 소시지와 함께 가볍게 바이젠을 마신다. 여름철 일요일엔 교회 예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들 느긋한 발걸음으로 비어가르텐(Biergarten)에 가서 바이젠을 시원하게 한잔씩 비운다. 그래서 이를 'Breakfast Beers' 또는 'After Church'라고도 한다.

### 왕가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다

최근엔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밀맥주는 농촌 맥주라는 투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때 스타일 자체가 쇠퇴하면서 바바리아의 촌구석에서나 즐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젠은 한때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보리로 만든 갈색 맥주가 평민의 몫이었다면 흰색의 밀맥주는 귀족들이나 맛볼 수 있는 맥주였던 것이다. 밀맥주 스타일은 16세기 초 보헤미아에서 유래했다.

갈색의 보리 맥주만 마시던 뮌헨 사람들에게 흰색의 보헤미아 밀맥주는 인기 만점이었다. 당시 뮌헨의 양조업자들이 너도나도 보헤미아 밀맥주를 모방하려고 한 건 당연지사. 비슷한 시기 양조 곡식으로 보리만을 인정한 맥주순수령이 공표되긴 했지만 밀맥주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급기야 바바리아 왕실은 1567년 공식적으로 밀맥주 제조를 금지하기에 이른다. 아우구스트, 밀맥주는 영양분이 없어서 마셔도 힘을 솟아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린가 싶지만 어쨌거나 왕명은 왕명이다. 금지령 이후 왕실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밀맥주를 만들 수 없었다. 맥주순수령과 금지령으로 밀맥주 제조를 규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왕실이 독점하고 있던 보리 재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맥주 양조에 다른 곡식, 특히 밀을 사용함으로써 양조용 보리 공급에서 얻는 수익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싸움도 원래 밥그릇 싸움이 제일 치열한 법! 15세기 이래 밀맥주를 만들어온 데켄베르크 가문만은 예외였으나 밀맥주 양조권은 결국 1602년 왕실 소유가 된다. 데켄베르크 가문의 대가 끊기면서 막시밀리안 1세에게 양조권이 넘어간 것이다. 이후 근 200년간 바바리아 왕실은 밀맥주를 독점한다. 뮌헨의 궁정 양조장(Hofbrauhaus)을 중심으로 20여 곳의 궁정 양조장을 통해 밀맥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정부 독점의 체인 사업을 구축한



슈나이더의 바이스 브라우하우스 간판. 독일에 가면 이 간판을 꼭 떠올려라

바이젠의 원조격인 람브크 스타일 맥주엔 다양한 과일맛 맥주가 있다. 그중 벨뷰 크릭 체리맛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독일 바이젠의 대표주자 에딩거. 저 크리미한 흰 거품이 백미다.



또 다른 대표 바이젠 프란치스카너.



셈이다. 밀맥주 양조권을 '특별히' 허가하면서 받은 금맥도 천문학적이었다. 즉, 밀맥주는 왕실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화수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롭게 굴 수밖에. 평민들이 밀맥주를 자유롭게 마시기 시작한 것은 1610년 막시밀리안이 뮌헨의 여관에서 평민들한테 밀맥주를 팔도록 허가하면서다. 여관 주인들은 드디어 궁정양조장에서 맥주를 사다가 손님들에게 팔 수 있게 됐다. 이것만 봐도 막시밀리안이 밀맥주 판매에 얼마나 관심이 높았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나랏일 하라고 앉혀놨더니 술만 팔고 자빠져 있더니... 왕이 좋은 줄구나!

### 밀맥주 양조의 대세 슈나이더 등장

1850년대에 이르러 밀맥주를 둘러싼 귀족적 신비는 깨진다. 이미 18세기 말부터 밀맥주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궁정 소유의 밀맥주 양조장들을 개인 양조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임대해주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왕실의 독점을 고수해온 뮌헨에서도 사업에서 물러나기 시작한다. 왕실은 1850년 뮌헨의 양조업자 게오르크 슈나이더(Georg Schneider)에게 뮌헨의 궁정 양조장을 임대하고 밀맥주 양조에 대한 라이선스를 준다. 1872년에는 양조권을 슈나이더가 사들이면서 270년간 지속된 왕실의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해 슈나이더는 뮌헨 탈(Tal) 거리에 새 양조장을 얻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 라거 양조의 성장으로 밀맥주의 인기가 전만 못했지만 슈나이더의 사업은 켈히임에 두 번째 양조장이 필요할 정도로 번창했다. 탈 양조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습으로 파괴되고 남아 있지 않다. 현재는 그 자리에 슈나이더의 바이스 브라우하우스(Weisse Brauhaus)가 있다. 뮌헨의 명소로 자리 잡은 이곳에선 슈나이더의 밀맥주를 맛볼 수 있다. 두 번째 양조장이 들어선 켈히임은 레겐스부르크 근처, 다뉴브와 일트펠이 만나는 계곡에 위치한다. 양조장은 스페인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1607년 세워져 현재 운영 중인 전 세계 밀맥주 공장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 밀맥주의 종류

옛 스타일 대부분이 그러하듯 전통 밀맥주 역시 여과하지 않고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한다. 여과 공정이 발전하기 전에는 병에 담긴 맥주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위해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병에 담는 과정에서 발효성 당과 이스트의 수준이 딱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너무 적으면 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쪽이든 너무 많으면 '폭발'해버리고 만다. 오늘날에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한다. 원심분리를 통해 원래의 이스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이스트를 측정된 양만큼 정확히 주입하거나 당을 보충하기 위해 맥즙을 첨가해 이스트와 당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슈나이더를 포함한 일부 양조업자는 1차 발효와 2차 발효에서 동일한 예일 이스트(Top-Fermenting Yeast)를 사용한다. 밀맥주를 상면 발효하는 전통에 따른 것인데, 이는 밀맥주 본래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늘날엔 대부분 2차 발효에 라거 이스트(Bottom-Fermenting Yeast)를 사용한다. 독일 밀맥주를 대표하는 루트폴트, 에딩거, 프란치스카너를 포함한 많은 양조업자가 쓰는 방법이다. 이는 보다 질적으로 균일하면서 생산 기간은 단축되고 유통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더 적합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밀맥주 특유의 과일 맛과 매운 맛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여과를 하지 않고 2차 발효시킨 밀맥주를 헤페 바이젠(Hefe-weizen)이라고 부른다. 레이블에는 헤페 바이젠 또는 'mit Hefe'로 표시된다. 반면 필터로 이스트를 여과한 밀맥주는 크리스탈 바이젠이다. 프랑스가 빈대하기 전까지 샴파뉴어 바이젠(Champagner Weizen)이라고 불렀다. 병 속에서의 발효 과정이 없기 때문에 깊은 맛은 덜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깨끗하고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바이젠 동격은 밀맥주에 다크 몰트를 조합한 것인데, 밀맥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한층 풍부하게 해준다. 16 Plato(1064) 이상의 쓴 농은

바이젠복(Weizenbock)라고 한다. 바이젠복은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료로, 마시거나 늦은 밤 영화를 볼 때 이상적이다.

### 여름에 좋은 맥주, 바이젠

슈나이더 바이스(Weisse)는 바나나, 정향 그리고 육두구 향을 지녔다. 입에서는 약간 톡 쏘는 듯한 신맛을 느낄 수 있다. 끝 맛은 크림 같은 질감과 과일 맛이 난다. 바이젠복의 일종인 슈나이더의 아벤티누스는 루비빛에 가까운데, 이는 잘 볶은 카라멜트(Caramalt)를 넉넉히 사용한 덕분이다. 아로마와 맛은 풍부한 향신료와 조글릿이 느껴지고 끝맛에서는 향신료 맛이 더욱 강해지고 과일과 정향이 느껴진다. 현재 국내에서 맛볼 수 있는 바바리아 남부의 밀맥주로는 에르딩거와 프란치스카너가 대표적이다. 독일 최대의 밀맥주 생산업체인 에르딩거의 맥주는 가볍고 깨끗하고 섬세한 맛이 특징이다. 마니아보다 대중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프란치스카너는 헤페 바이젠의 경우 밀 몰트 함량이 75%로 특이하게 높다. 그만큼 맛이 강렬한 반면 섬세함은 약한 편이다. 프란치스카너는 현재 바바리아 밀맥주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밀맥주는 가끔 잔에 레몬 슬라이스를 띄워서 먹기도 한다. 이는 맥주에 시럽을 타서 먹는 베를린 스타일과 숙성 과정에서 나무딸기나 체리를 넣는 람브크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래가 어땠든 레몬 슬라이스를 곁들이는 것은 밀맥주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밀맥주 고유의 신맛을 배가하기 위해서다. 바나나나 바나나 향에 밀 몰트 특유의 톡 쏘는 듯한 신맛과 정향의 매운맛, 호프의 쓴맛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탄산 함량이 높은 밀맥주. 그 경쾌하고 복합적인 매력에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입술을 허락하고 있다. 당신도 이 입술도독음을 질투만 할 게 아니라 밀맥주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입술을 훔칠 기회를 노려라.

## 12·8 창씨개명사건

일본의 '창씨개명' 정책에 빠져 사망신고서를 갖다 내던 선조들의 애국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사건의 발발

2011년 6월 7일,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이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 금연 구역 확대 지정, 과태료 상향 조정, 담뱃갑 인상 등 무간지옥 같은 법안이 무수히 쏟아지는 가운데 담배를 상대로 한 창씨개명 같은 법안 하나가 날치기로 끼어들었으니. 바로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이다. 너는 웬데 거기 꺼 있냐?

###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규제 영향 분석서에는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준수 시 담뱃갑 및 담배 광고를 통한 흡연 유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흡연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적혀 있다. 이게 빌어먹을 무슨 말이나고? 쉽게 말해서 담배 회사들더러 제품에 가향물질을 넣은 사실을 밝히지 말라는 소리다. 제조사들은 멘솔, 커피, 체리, 모히토, 애플민트 등 현재 판매되고 있는 30여 가지의 가향 담배 제품에 어떤 향을 첨가했는지 표기할 수 없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가향 담배군인 멘솔(menthol)조차도.

### 가향 담배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나?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체 담배 상품 140여 종 중에 30여 종이 멘솔을 포함한 가향 담배 제품이다. KT&G 관계자는 "올 초에 판매를 시작해 크게 히트를 친 KT&G의 보헴 모히토는 전체 담배 시장에서 1.5% 대, 이후에 발매된 최초의 커피 가향 담배인 레종 카페는 1%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시판중인 담배의 종류가 100여 종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괜찮게 팔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담배 회사들은 꾸준히 판매된 해당 브랜드의 매출이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 창씨개명 대상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30일 담배합회 및 각 담배 제조사에 어떤 브랜드가 이 규제에 저촉을 받는지 공문으로 통보했다. 법안이 통과된 것은 작년이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쳐도, 담배 회사들은 대략 한 달간 이 얼척없는 규제에 발맞춰 급하게 리패키징 작업을 진행한 셈이다. 결국, 2012년 12월 8일부터는 각 판매장에 새롭게 포장한 담배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별 수 있나. 까라연 까야지.

변경 전	변경 후
ESSE MENTHOL (에세 멘솔)	ESSE ICE (에세 아이스)
ESSE EDGE MENTHOL (에세 엣지 멘솔)	ESSE EDGE ICE POINT (에세 엣지 아이스포인트)
BOHEM CIGAR Mojito (보헴 시가 모히토)	BOHEM CIGAR Cubana (보헴 시가 쿠바나)
MARLBORO BLACK MENTHOL (말보로 블랙 멘솔)	MARLBORO BLACK FRESH (말보로 블랙 프레쉬)
DUNHILL FINE CUT MENTHOL (던힐 파인 컷 멘솔)	DUNHILL FINE CUT FROST (던힐 파인 컷 프로스트)

### 눈 가리고 아웅

담배를 혐오하는 비흡연자가 가향물질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는 섹스가 뭔지도 모르는 여중생이 딸기 우유를 사러 갔다가 딸기 향 콘돔에 이끌려 충동구매를 하더니 결국 섹스 중독자가 되었다는 병신 같은 논리와 다름없다. 담배 회사들은 곧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향 원료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디자인을

찍어낼 것이다. 애초에 멘솔 담배가 사라진 어느 날 천연일물적으로 '아이스'라는 이름을 달고 쏟아져 나온 파란 담뱃갑을 보고 멘솔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되려 간지 터지는 리뉴얼된 케이스에 끌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괜한 우려인가?

### 쪼잔하게 굴지 마라

소매상점에서 담배 산다고 카드 내밀었다가 주인 할머니의 사자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연간 판매량이 약 50억 갑인 국내 담배 시장의 세수율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궁극적인 금연을 위한 제조 및 판매 금지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내민 정책들이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수많은 애연가가 '담뱃갑 인상'이라는 골고다의 언덕을 수차례 넘어 경험해온 진리다. 해외의 사례는 우리보다 조금 더 솔직하다. 그들은 아예 가향 성분 자체를 규제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규제는 교묘한 대안만 넣는 법이다. 아예 뿌리를 뽑을 강대구가 없다면 어설픈게 조여봤자 안 하느니만 못하다니까. ☹

### 파리아멘트 한정판 Magic of the Night

파리아멘트가 기존의 노년스러운 디자인을 버리고 리필서 광선이 뿜어져 나갈것 같은 '렌즈팩' 한정판을 출시한다. 물론 특유의 공간필터는 여전히다.





오늘 끝나고  
치맥 할 사람??

## 여자 배구, 살아있네!

미녀 스타 없는 배구 코트는 그냥 선 그어 놓은 우레탄에 불과하다.

### 코트 위에 꽃이 피었네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두 종목이 있다. 바로 배구와 농구다. '코트의 미녀'들이 존재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미녀 선수들의 늘씬한 몸매에 가공할 점프력, 시원하게 내리꽂는 스파이크는 수컷의 아드레날린을 펌프질하기에 충분하다. 배구 경기가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여자 선수들 미모도 한층 훌륭해지면서 국내 배구 리그의 남자 팬들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2012년 런던올림픽 4강,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올라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니까.



### 1위 황연주

소속: 현대건설(홀구장: 수원실내체육관)

포지션: 라이트

생년월일: 1986년 8월 13일

신체: 177cm 69kg

특기: 서브

주요 경력: 2005년 입단 당시 신인상-서브상-후위공격상까지 싹쓸이, 2012 런던올림픽 4위,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 V리그 여자부 통산 득점-서브-공격종합-후위공격 1위

두통엔 게보린, 배구 미녀는 단연 황연주다. 홀구장이 수원실내체육관인 그녀. 수도권 팀에 속한 선수인 만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다. 177cm, 69kg의 다부진 체격에서 뿔어져 나오는 파워가 일품이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도 '배구 여제' 김연경과 함께 한국의 공격을 이끈 선수. 소속팀에서도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 2위 양효진

소속: 현대건설  
 포지션: 센터  
 생년월일: 1989년 12월 14일  
 신체: 190cm 72kg  
 주요 경력: V리그 통산 득점 9위,  
 블로킹 3위,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 2012 런던올림픽 4위  
 특기: 국내 최정상급 속공-블로킹

수원까지 가서 황연주의 플레이만  
 감상하고 오기에는 닭갈비를 먹고  
 밥을 안 비벼 먹은 것처럼 원가

아쉽다. 그렇다면 양효진의 플레이에도 주목하라.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양뽕'으로 통하는 양효진은 190cm 72kg의 늘씬한 몸매에 귀여움까지 겸비한  
 선수다. 포지션은 센터, 상대가 공격할 때 있는 힘껏 뛰어올라 공을 막아내는  
 블로킹 높이는 약 280cm로 어지간한 건물 천장에 달린 전구는 풀짝 튀기만  
 해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2007년 현대건설에 입단 당시 그 해 신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308점)을 기록한 것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데, 현재  
 양효진과 황연주가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얼굴도 예쁘게 득점왕까지... 이거 배려심이 없네.



## 3위 한송이

소속: GS칼텍스  
 (홀구장: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  
 포지션: 레프트  
 생년월일: 1984년 9월 5일  
 신체: 186cm 65kg  
 주요 경력: V리그 통산 득점-공격종합  
 3위, 블로킹 4위, 리시브 5위,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  
 2012 런던올림픽 4위  
 특이사항: 공격, 수비, 블로킹까지  
 모두 가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올림픽 내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던 한송이 선수. 186cm에 65kg의 늘씬한  
 보디에 포지션도 그 힘들다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상대가 서브를 때리면  
 리시브해야 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공격에 들어간다. 그만큼 체력소모가 심한  
 레프트 포지션이지만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랐다. 아쉬운 점이라면 GS칼텍스 소속이라 연고지 장충체육관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올 시즌에는 경북 구미에서 홈경기를 치른다. 서울에 거주하는  
 배구팬으로서 아쉬움에 땅을 여러 번 쳤다. 그녀의 언니 한유미 역시 코트  
 위에서 빠지지 않는 미모로 유명하지만, 곧 결혼하므로 순위에서 제외했다.



## 4위 황민경

소속: 도로공사  
 (홀구장: 성남실내체육관)  
 포지션: 레프트-라이트  
 생년월일: 1990년 6월 22일  
 신체: 174cm 64kg  
 주요 경력: V리그 통산 서브 8위,  
 2011 V리그 기량발전상,  
 2012 V리그 서브상  
 특이사항: 강력한 서브,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언터처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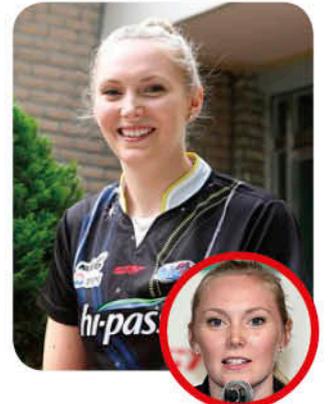
성남 도로공사 소속의 황민경은 1990년생으로 '미완의 대기'라 불린다. 174cm  
 에 64kg, 배구선수치고 큰 키는 아니지만, 리시브에 공격까지 가능한 전천후  
 선수다. 그녀에게 특기는 서브, 지난해까지 한 세트 4개의 서브특점으로 이  
 부문 최다 타이 기록을 보유했으나, 이왕 뺄 맛을 거 제대로 맞는 게 소원이라면  
 그녀의 손바닥에 얼굴을 갖다 대자. 보호본능이 느껴지는 외모지만 코트에  
 들어서면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지는 것도 황민경 선수의 매력이다. 부상 여파로  
 올 시즌 초반 활약은 미미하지만, 최소 3라운드부터는 그녀의 파워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라운드가 끝난 현재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 5위 니콜 퍼셋

소속: 도로공사  
 국적: 미국  
 포지션: 라이트  
 생년월일: 1986년 12월 16일  
 신체: 193cm 82kg  
 주요 경력: 2009년~현재 미국  
 국가대표, 2012~2013 V리그  
 후위공격-서브 1위, 공격종합 3위,  
 득점 5위  
 특이사항: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스파이크와 정확하고 강한 서브  
 P.S: 락, 김 킬러

수많은 외국인 선수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다면 바로 니콜 퍼셋이다.  
 재밌는 점은 니콜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었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보통의 외국인 선수들과는 다르게 한식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단다. 니콜의 통역은 "한국인인 나보다 니콜이 김치를 훨씬 잘 먹는다"고  
 귀엽하기도 했다. 수려한 외모에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한다니, 키  
 193cm 커버 가능한 대한민국 수컷이라면 도전할 만 하겠는걸?



### 관객의 마음으로

배구 선수는 코트에서 땀 흘릴 때 가장 멋지고 예뻐 보인다. 남자 배구와 견줘 여자 배구의 인기가 현저히 낮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다. 런던올림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한창  
 코트에서 '아름다운' 선수들이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알고 싶다. 수컷들이여, 배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순정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리따운 선수들이 당신의 좌심방 우심실을 향해 스카이 서브를 넣을 테니까 말이다.

# Style

## Jumping to the Moon

주의 너무 가벼워서 달에 있는 줄 착각할지도 모름.



### 나이키 르브론 X

나이키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초경량 기능성 농구화로, 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10주년 기념 모델이다. 큰 인기를 끌었던 르브론8과 9의 후속작으로서 전작들이 호평받았던 이유인 플라이와이어와 하이퍼퓨즈, 360도 춤에어까지, 나이키가 자랑하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모두 담겨있다. 대륙산 나이키가 걸무습은 카피한다고 해도 이것까지 카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 할 수 있나?  
가격 209,000원

### 나이키 루나 하이퍼덩크

마치 달 위를 걷고 있는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루나'. 2009년 루나글라이드로 처음 소개된 루나론 기술은 미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쿠션용 소재를 사용해 부드럽고 탄력적인 쿠셔닝을 제공한다. 그 기술을 농구화에 적용한 것이 바로 루나 하이퍼덩크 시리즈. 여기에 다이내믹 플라이와이어와 샌크(카본 플레이트 소재를 사용한 지지대)를 적용해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역시 농구에 특화된 나이키+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 당신의 모든 점프를 분석하고 체공 시간을 길게 해서 자신이 날고 있다는 착각을 산산히 부숴준다.  
가격 159,000원

- 1) 플라이와이어: 미치 현수교의 케이블 같은 역할을 하는 고강도 나일론 와이어를 통해 신발의 무게는 최소화하고 신발 구조의 지지력은 극대화 하는 기술. 가볍고 고정력이 크기 때문에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제2의 피부처럼 달라붙는다.
- 2) 하이퍼퓨즈: 특정한 함성 섬유와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내마모성과 탄성이 좋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이 하나의 감피로 결합된 일체화 기술. 신발을 튼튼하면서도 가볍게 한다.

## 아디다스 아디제로 크레이지 라이트2

크레이지 라이트란 이름처럼 269g의 '미친 가벼움'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농구화! 나이키의 하이퍼퓨즈와 일맥상통하는 거미줄 형태의 3겹 인조합성 파혁으로 이뤄진 스프린트 웹 기술을 채택해 거미줄처럼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질긴 감피를 만들어냈다. 또 아디다스의 농구화에 빠질 수 없는 스프린트 프레임은 신발 밑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등뼈처럼 단 하나의 TPU 소재 프레임이 탄탄하게 모양을 잡아주며 신발의 뒤를림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신발에 가해지는 충격도 골고루 분산시킨다.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움직임을 자랑하는 스파이더맨에게 어울리는 신발! 물론 가난한 그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착하다.

가격 179,000원



## 아디다스 아디제로 디 로즈3

시카고 볼스의 '23번의 시대에 대한 향수병'을 끝내줄 거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데릭 로즈의 시그니처 슈즈. 22세에 최연소 MVP를 수상하며 시카고 팬들에게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바운의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코트를 떠났다. 디 로즈3는 로즈의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이 반영된 모델이다. 제작 과정에 로즈가 직접 참여해 빠른 방향 전환과 가속성이 특징인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했다. 아디다스의 자랑인 스프린터 웹과 프레임 기술도 당연히 탑재했다. 2012/13 시즌에도 그의 복귀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가 디 로즈3를 신고 펼치는 멋진 경기를 하루라도 빨리 보게 되길 바란다!

가격 169,000원



## 그녀의 타이 취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데이트 넥타이 고르는 법,  
6가지 여자 유형으로 알아보자.

### 이호리처럼 어른스러운 그녀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있어 보이는 척이 필수다. 묵직한 블랙 컬러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코튼 소재는 패셔너블한 느낌까지 준다. 여기에 멋스러운 헤링본 재킷과 옥스포드화를 코디하고 무심한듯 시크하게 행동하라. 정말 뭔가 있는 놀처럼 보인다.

67,000원 모노갤러리

박보영처럼  
귀엽고 어린 그녀



지금까지 그녀에게 어른스러운 매력을 어필해 왔다면, 특별한 기념일이나 데이트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화려한 체크무늬 타이는 캐주얼룩에 포인트를 주기에 유용한 아이템. 블랙이나 네이비 컬러의 블레이저와 진에 이 타이를 매치한다면 그녀의 나잇다에 걸맞은 프레미 룩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39,000원 트루젠



**한효주처럼  
여성스러운 그녀**



데이트 날, 지드래곤이라도 영접한  
듯 뛰는 넥타이를 맨 당신을  
보고 그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네이비 컬러의 스트라이프  
타이는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가는  
베이직한 아이덴. 여기에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매치해서 그녀의  
호감을 사라.

59,000원 티엔지티

**아나운서처럼  
지적인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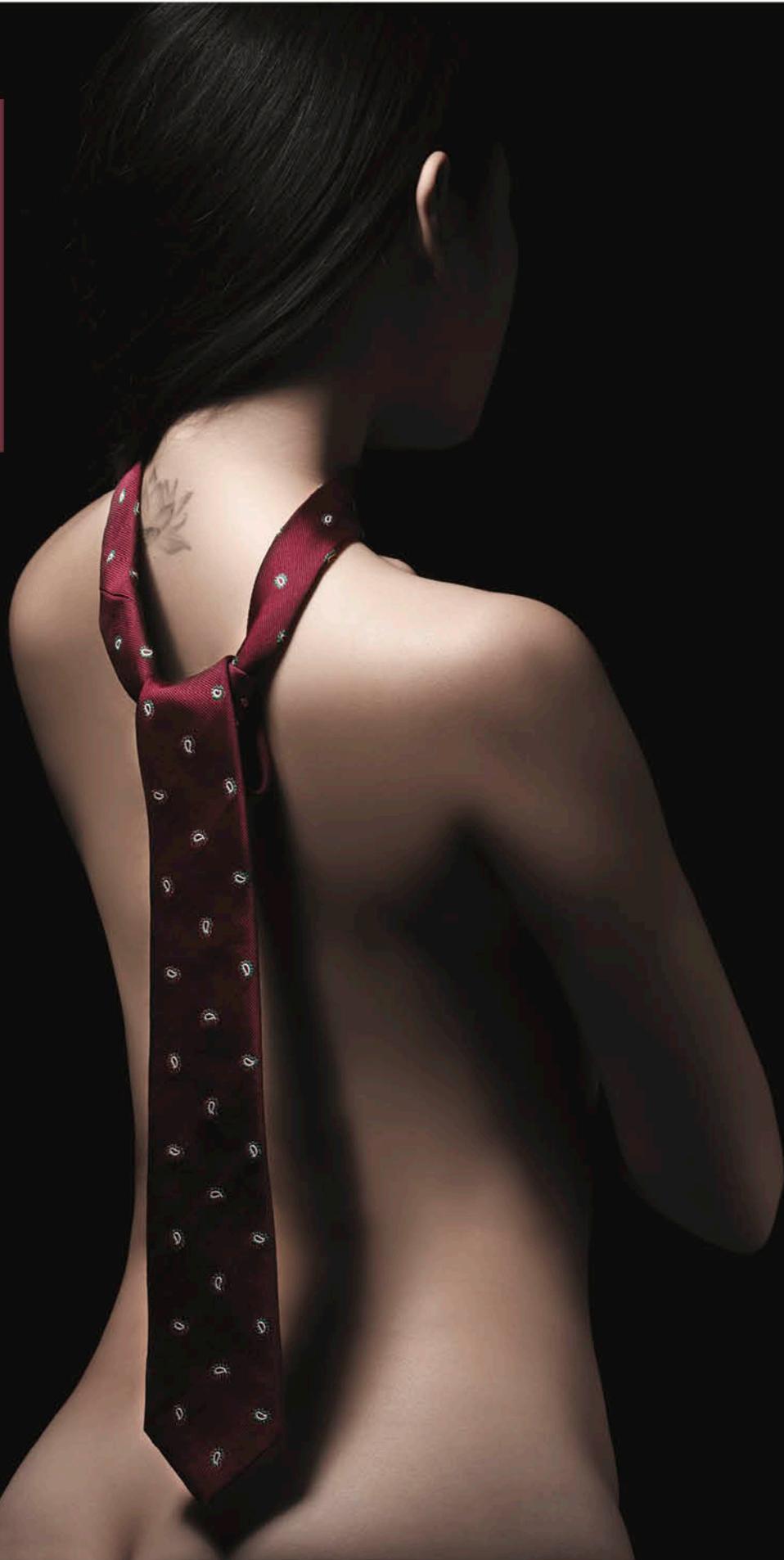
매사에 똑떨어지고 당당해 보이는  
여자지만, 사실은 그녀도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 그렇다고  
“오빠 믿지?” 같은 쌍갈퀴도  
멘트를 날리지는 말자. 포멀한  
블랙 슈트에 실크 그레이 타이로  
신뢰감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 그게  
아니면, 체크무늬 셔츠와 가디건을  
코디해서 부드러운 남자임을  
어필하는 것도 좋다.

39,000원 트루젠

이연희처럼  
옷 잘 입는 그녀



옷 잘 입는 여자는 옷 잘 입는 남자를 알아보는 법. 그녀는 남자의 패션 감각을 타이로 판단할 확률이 높다. 그럴 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페이스리 패턴의 타이를 고르면 된다. 툰다운된 면바지와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까지 코디한다면, 당신도 아선군이 될 수 있다. 58,000원 커스텀멜로우



아름다운  
촬영 현장  
훑쳐보기





**씨스타처럼  
발랄한 그녀**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유머감각이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 말발은 당연하고 타이에도 유머를 발휘하자. 경쾌한 느낌을 주는 레드와 블루 컬러의 조합은 당신의 이빨에 난개를 달아줄 것이다. 너무 가벼운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면, 스카이 블루 컬러의 드레스 셔츠에 매치해 적당한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

39,000원 트루젠

## 그거 왜 샀어? #4

### 지름 품목: Theory Man 패딩 코트 vs. Customellow 울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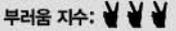
같은 날, MAXIM의 남자 직원 두 명이 서로 다른 소재의 네이비 코트를 질렀다. 어때? 입어들 보니 후회는 없고?



**구매자 카드**



구매자: 마케팅 매니저 원정운  
 구매 물품: 띠어리맨 패딩 코트  
 구매 동기: 정장에 어울릴만한 고급스러운 패딩 코트가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부러움 지수: 

(이하 원)

#### 물 다 옷도 많으면서 이걸 또 왜 산 건가?

**원(띠어리 맨):** 비즈니스 룩에 어울릴 만한 패딩 코트가 필요했다. MAXIM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어서 광고주나 협력사와의 미팅이 잦은 편이다. 영업맨으로서 격식과 예의도 갖추어야 하고, 잡지사 크루로서 손색없을 스타일도 탑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겨울엔 세미 정장에 모직 코트를 많이 매치하지만... 잘 알지 않나. 요즘 겨울 날씨, 장난 아니다. 모직 코트는 너무 춥다. 바로 이런 패딩 코트가 필요했다.

**박(커스텀ellow):** 내 경우에는, 에디터로서의 크리에이티브와 감각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 스타일이 구리면 화보 촬영할 때 연예인이 내 말을 듣겠나? 게다가 업계 특성상 입은 옷의 브랜드를 보고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도 꽤 있어서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침 '디젤메니아'라는 패션 카페에서 인기 아이템이라는 이 모직 코트를 발견하게 됐다.

#### 어디서 얼마 주고 샀나?

**박(커스텀ellow):** 흥대 앞 커스텀ellow 매장서 59만 8천 원 주고 구입했다.

**원(띠어리 맨):** 압구정동 현대 백화점에서 79만 8천 원 주고 구입했다. 전국에 딱 30장 남았다는 점원의 말에 충동적으로 질렀다.

**박(커스텀ellow):** 흡소핑인가, 그걸 믿게? '다시는 이런 구성을 만나보실 수 없다'고는 안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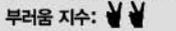
#### 지마켓에서는 남자 코트 10만 원이면 떡을 친다. 뭐가 다른 말인가?

**박(커스텀ellow):** 10만 원짜리 지마켓 코트로는 떡을 칠 수 없다.

**구매자 카드**



구매자: 에디터 박한빛누리  
 구매 물품: 커스텀ellow 울 코트  
 구매 동기: 다양한 아이템에 코디하기 쉬운 에브리데이용 코트가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부러움 지수: 

(이하 박)

#### 원(띠어리 맨): (고덕고덕)

**박(커스텀ellow):** 커스텀ellow 옷은 디테일이 살아 있다. 일단, 가슴판과 소매단에 달린 싱글 버튼이 싹 티 나지 않고 고급스럽다. 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까지는 아니지만 박음질 처리도 깔끔하다. 안감은 아이보리 컬러의 실크 프린트 소재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썼더라.

**원(띠어리 맨):** 이 패딩은 착용감이 다르다. 원래 띠어리라는 브랜드가 남다른 착용감으로 유명하지 않나. 이 것도 무게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서 온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다. 지퍼에도 모두 방수처리가 돼 있어서 오래 입어도 녹이 슬 염려가 없다. 구매는 충동적으로 했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옷의 퀄리티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

**박(커스텀ellow):** (피식)유니클로 패딩도 몸에 착 감기고 엄청 가볍다. 그렇게 오바 샀 정도로 안 보인다.

**원(띠어리 맨):** 안 입어봤으면 말을 마라. 유니클로빠야. 히트내복도 입었나?

#### 물 다 브랜드 홍보팀에서 나왔나? 커스텀ellow와 띠어리 맨은 각자에게 어떤 이미지인가?

**박(커스텀ellow):** 커스텀ellow는 요즘 가장 핫한 남성 의류 브랜드다. 송중기가 모델인 거 보면 모르나? 딱,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젠틀맨'의 이미지다.

**원(띠어리 맨):** 그런 건 젠틀맨이 아니라 게이같다고 하는 거다. 반면, 띠어리 맨이라고 하면 모던하고 현대적인 '뉴욕'이 연상된다.

**박(커스텀ellow):** 뉴욕어가 아니라 뉴요커가 되고 싶은 사람이겠지. 멋진 디자인이 딱 지오다노 수준인데, 도대체 왜 비싼 돈 주고 그 옷을 사는 건가?

**원(띠어리 맨):** 아, 유니클로에 지오다노까지 나오니 수준 낮아서 정말 말을 섞고 싶지 않다.

#### 옛말에 동뿔부리다 얼어 죽는다고 했다. 이 코트, 따뜻하긴 한 건가?

**원(띠어리 맨):** 당연하지. 걸감과 안감의 누빔이 각각 따로 처리돼 있어서 이중으로 따뜻하다. 목둘레와 소매단의 시보리는 바람이 들어오는 걸 원천 봉쇄한다.

**박(커스텀ellow):** 그래 봤자 저 옷, 충전재가 숨이다. 숨, 요새 웬만한 패딩은 다 오리털이지 않나? 내 옷은 모 88%인데, 숨이랑 모가 게임이 되나?

**원(띠어리 맨):** 좋은 숨이다.

#### 주로 어떻게 코디해서 입는가?

**원(띠어리 맨):** 세미 정장 스타일로 입는다. 다크 그레이 청바지에 셔츠를 매치하고 거기에 블랙 워커나 디올 옴므 느낌의 레이업 구두를 신는다.

**박(커스텀ellow):** 워싱 처리를 하지 않은 데님이나 카키색 면바지를 입는다. 룩업해서 양말이 살짝 보인다면 좀 더 센스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양말에도 신경을 쓴다. 신발은 스니커즈가 어울린다. 런닝화는 비추다. 갓 대학에 들어간 스무 살로 보인다.

**원(띠어리 맨):** 걱정 마라. 절대 그렇게 안 보이니까.

#### 이 옷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박(커스텀ellow):** 이 옷은 몸에 딱 맞게 슬림핏으로 입는 게 포인트다. 그러려면 사이즈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한 곳 차이로 미묘하게 아저씨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사실 나도 개시 첫 날,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해서 95사이즈로 교환했다.

**원(띠어리 맨):** 패딩이라는 소재 특성상 덩치 큰 사람에겐 안 어울릴 수 있다. 매장의 점원말로는 이 코트 자체도 슬림하게 나온 편이라고 했다.

**박(커스텀ellow):** 그건 맞는 말이다. 땀대가 패딩을 입고 있으면 일수 놀이하는 수급 각두기 같다.

####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 옷을 추천하겠는가?

**원(띠어리 맨):** 정장 위에 걸쳐도 어색하지 않은 재킷이나 코트형 패딩을 찾는 사람, 깔끔하고 단정한 도시 남자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게 정답이다.

**박(커스텀ellow):** 센스있는 코디를 즐기는 사람, TV에 자주 출연하는 셀러브리티를 따라 하기 좋아하는 2, 30대에게 추천한다. 또, 조만간 소개팅이나 여자에게 잘 보일 일이 있는 남자에게도!

**원(띠어리 맨):** 지랄.



**띠어리 맨 패딩 코트**  
 신체 사이즈: 174cm, 64kg  
 의상 사이즈: XS

**798,000** 원



(왼쪽)  
 하의 지이크  
 선글라스 그라픽 플라스틱  
 매들리 막스앤스펜서  
 장갑 빈폴 아웃도어  
 양말 빈폴 아웃도어  
 신발 캔버스

(오른쪽)  
 상의 막스앤스펜서  
 하의 지이크  
 선글라스 그라픽 플라스틱  
 매들리 카이아크린  
 신발 캔버스



**커스텀멜로우 울 코트**  
 신체 사이즈: 172cm, 65kg  
 의상 사이즈: 95

**598,000** 원

BY 송진나 PHOTOGRAPHY ARC STUDIO LAYOUT 진은경  
 COOPERATION'S 빈폴 아웃도어(1599-0007), 막스앤스펜서(02-3443-7407), 지이크(02-546-7764), 그리퍼 플라스틱(02-3443-4340), 카이아크린, 캔버스(02-3447-7701)

# Style Report



하나만 걸려라.

강남역  
현탕 영상



## 스타일이 이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아, 물론 얼굴이 문제일 수도 있어.

여자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 남자는 스타일이 별로"라고. '스타일'의 사전적 정의는 복식이나 머리 따위의 모양인데, 도대체 왜 에디터 눈엔 스타일 좋은 놈들이 죄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일까. 이 애매모호한 정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각각 다른 스트리트 룩, 캐주얼 룩, 록커 룩으로 차려입고 강남역 일대에서 여자들의 번호를 따봤다. 과연 어떤 스타일이 먹힐 것인가.



뉴에라 에디터 소장  
선포켓 선글라스  
138,000원

후드 재킷  
88,000원  
데님 셔츠  
108,000원  
스타디움 재킷  
238,000원  
데님 팬츠  
118,000원  
모두  
브라운 브레스

나이키 스니커즈  
에디터 소장



번호  
득템율  
75%

### Street Style

베이식하고 시크한 블랙 스타디움 재킷에 빈티지한 데님 셔츠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고 어메이징한 스타일을 연출. 스톤 워싱한 모노톤의 데님 팬츠에 비비드한 그린 컬러의 스니커즈를 코디해 룩 전체에 언빌리버블한 포인트를 줌.

스트리트 스타일의 필수 아이템인 뉴에라를 비스듬히 걸치고 걸렁걸렁하게 여자들에게 다가갔다. 큰 기대 안 했지만 손쉽게 4명 중 3명의 번호를 따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모두 사실 웃으며 친구처럼 대해줬으니, 이만한 현탕 룩이 또 있을까?





어제 산 목도리  
그제 산 더플코트  
같은 데서 산 셔츠  
작년에 산 스웨터

무릎 늘어난  
데님 팬츠

3년째 신고 있는  
워크 부츠  
모두 에디터 소장



새끼 예쁜 건  
알아가지고...

번호  
득템율  
50%

## Editor's Style

비비드한 원색을 활용해 조이풀하고 액티브하고 러블리한 룩을 창조. 특히 엇그제 스파 브랜드에서 구입한 노 익스펜시브한 네이비 코트로 트렌드를 미상하지 않는 드라마틱한 센스를 쇼잉.

옆집 꼬마 옷 뺏어 입은 듯한 에디터의 스타일도 의외로 썩 괜찮은 호응을 얻었다. 일단 무지개 빛깔로 치장하고 다가가니 한결 만만하게 보졌다. 번호 줄 때도 방긋방긋, "싫어 꺼져"라고 할 때도 방긋방긋. 어쨌거나 기분 좋게 50% 성공률 달성.



## Editor's Access Tip

1. 말은 최대한 시원스럽게: 소극적으로 다가가면 복음 전파하는 종교인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2. 웃었다면 반쯤 성공: 진지한 분위기 연출은 득보다 실이 크다.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자.
3.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씨알도 안 먹힐 순수한 척은 오히려 역효과였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성공률이 높았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쪽팔리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이다.



뭐야, 메뚜기 같이  
생겨가지고...



번호  
득템율  
0%

## Rock Style

울 블랙의 스페셜한 라이더 재킷과 약간 라지한 프레임의 선글라스를 매치해 러프하고 터프한 스트롱맨 스타일을 연출. 실버 컬러의 밴글을 매치했지만 재킷 사이로 하이드해 다소 소리함.

젠장, 록 스타일은 뭘 해도 안 됐다. 생지랄발광광공폭을 해도, 다가가기 무섭게 여자들이 달아나버렸다. 간신히 말을 붙인 여자는 눈도 안 마주치고 땅만 보며 길을 걸어갔다. 번호 획득률 0%. 김정민이 일본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있었구나...



선포켓 선글라스  
138,000원

세인트메인  
라이더 재킷  
268,000원

블러프  
맨투맨 티셔츠  
45,000원

블랙 팬츠  
에디터 소장

아까 그  
워크 부츠  
에디터 소장

서울엔 미친놈이  
많구나. 하하하하.



# Style news



**컨버스의 트렌디한 메이저 밀스 워커 부츠 출시!**  
 컨버스가 남녀 모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트렌디 워커 부츠 메이저 밀스를 출시한다.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스타일링이 유행인 이번 겨울 시즌에 맞춰 선보인 컨버스 메이저 밀스 부츠는 다른 워커 부츠에 비해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럽다. 무엇보다 유행하는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가격 159,000원  
 문의 컨버스(www.conversekorea.com)



**명품 아이웨어 비제이클래식, S-831 출시**  
 비제이클래식에서 2013년 첫 신제품 S-831 시리즈를 출시한다. 윗부분은 플라스틱, 아랫부분은 메탈 소재로 만들어 플라스틱의 부드러움과 메탈의 세련미가 적절히 조합되었다. 또 안과 밖을 블랙과 브라운으로 투톤 처리해 비제이클래식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기존 제품보다 좀 더 크고 둥근 형태의 프레임이 복고 감성을 풍겨 추운 겨울, 두꺼운 니트 소재의 목도리와 함께 스타일링을 하면 좋은 아이템.  
 문의 BJ CLASSIC BY M2ITC(02-518-4190)



**코오롱스포츠, 4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출시**  
 코오롱스포츠가 40주년을 맞아 스페셜 에디션 재킷을 선보인다. 새해 1월에 출시할 리미티드 에디션 티타늄 재킷은 몸에서 나오는 열을 재킷 안에 잡아주고 태양열을 흡수해, 역대 재킷 중 가장 막강한 보온성을 보장한다. 또 건조한 날씨에 생기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소재를 채택해 정전기 발생률을 줄였다. 특히 이번 에디션은 특별 케이스에 포장해 판매할 예정이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선물용으로 샀다가 정작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재킷!  
 문의 코오롱스포츠(www.kolonsport.com)

**운도남의 필수템, 푸마 퓨처 R698 라이트**  
 운동을 신고 출근하는 도시 남자를 가리키는 신조어 '운도남'. 하지만 출근용 운동화를 고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결정이 어렵다면 1990년대 크게 인기를 끌었던 R698를 계승한 푸마 퓨처 R698 라이트는 어떨까? 퓨처 R698 라이트는 신지 않은 듯한 가벼운 소재를 채택하고 톤다운 된 컬러와 포인트 컬러를 섞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또 어두울 때 빛나는 형광 소재로 디자인한 폼스트라이프는 클럽을 향하는 발걸음에도 예지를 더해줄 것이다. 1990년대 먹여주는 브랜드였던 푸마, 2013년 왕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문의 푸마(www.puma.co.kr)



**만다리나덕, ISI NEW 백팩 출시**  
 승중기 백팩으로 유명해진 만다리나덕에서 20대의 젊고 트렌디한 감성을 반영한 ISI NEW 백팩을 제안한다.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유니크한 어깨 패드에 그레이와 오렌지 두 가지 보디 컬러를 매칭해 남녀 모두 개성 있게 착용할 수 있다. 승중기 백팩보다 수납 공간이 넓어 편의성도 높였다. 만다리나덕의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ISI NEW 백팩은 전국 만다리나덕 매장 및 만다리나덕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만다리나덕 (02-3496-8000, www.mandarinaduck.co.kr)



**행텐 아상 점퍼로 겨울 코디 완성!**  
 보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기에 아상 점퍼만큼 좋은 것이 없다. 행텐에서 출시한 아상 점퍼는 블루와 머스터드, 오렌지 컬러로 다양한 색상을 확보했다. 여기에 빈티지한 매력의 이너웨어를 갖춰 입으면 훌륭한 코디가 완성된다. 탈착이 가능한 퍼 트리밍은 풍성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매서운 겨울바람도 막아준다. 10만 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에 완벽한 겨울 스타일링을 선사할 아상 점퍼, 전국 행텐 매장에서 만나보자.  
 문의 행텐(www.hangten.co.kr)

# Watch news

## 헬다이버의 한정 모델 SB2C-1002을 잡아라!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서인국이 착용해 인기를 끈 헬다이버 SB2C-1002 모델이 한국에 다시 상륙했다. 클래식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에 총알 모양의 독특한 옹두 디자인으로, 한 번 보면 지르고 싶은 욕망이 절로 생겨나는 워치, 요일과 24시를 표시하는 멀티무브 기능에, 부드럽게 돌아가는 회전 베젤을 적용해 기능성도 보장한다. 헬다이버 특유의 파란색 문자판과 로즈 골드 색상의 케이스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한정 수량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매장으로 달려가자.

가격 349,000원 문의 에이멘인터내셔널  
(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http://www.helldiverwatches.com))



## 최고의 조합,

### 조르시오 페돈(GIORGIO FEDEN) 국내 런칭

우리에겐 잉거솔, 대니시디자인으로 친숙한

(주)거노 코퍼레이션에서 이탈리아 워치 조르시오 페돈 1919를 국내 론칭한다. 조르시오 페돈은 1919년 이탈리아 카도레에서 조르시오 페돈이 설립해 전 세계 부티크에서 사랑받아온 브랜드. 한국에 선보이는 타임피스 컬렉션(Timepiece Collection)은 이탈리아에서 디자인하고 일본 세이코에서 제작한 JAPAN SEIKO 무브먼트를 사용해, 디자인과 품질을 모두 갖춘 라인. 12월 중순부터 조르시오 페돈 홈페이지와 (주)거노 코퍼레이션 직영을 유로타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 SEIKO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제이 스프링스의 BFC라인

시계 명가 세이코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또 다른 브랜드 제이 스프링스, Seiko Instruments Inc.의 공식 수입 업체인 성원은 제이 스프링스 제품 중 반응이 뜨거운 BFC 라인, 그중에서도 겨울에 어울리는 BFC004, BFC005 가족 라인을 추천한다. 부드러운 스가죽 스트랩을 사용해 착용감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역회전 방지 베젤과 크로노그래프, 방수 100m 등 시계가 갖춰야 할 기본기를 모두 지녔다. 게다가 무게감 있고 위엄이 넘치는

디자인은 정장과도 잘 어울린다. 세이코의 색다른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면 제이 스프링스를 기억하라.  
가격 19만 원 문의 성원(02-3445-4603)



## 뉴욕커의 애지,

### 아부투스(ARBUTUS)의 AR501-RBB

진정한 독특함으로 이목을 끌고 싶은가? 식상한 시계 디자인에 질렸나? 그렇다면 아부투스를 만나보자. 아부투스는 1980년대 뉴욕에서 태어난 워치 브랜드다. 뉴욕커의 감성이 넘치는 화석의 걸작 AR501-RBB는 못 여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로즈 골드 컬러와 블랙, 실버의 컬러 매칭이 고급스럽고, 44mm의 커다란 케이스 속 기계 장치가 훤히 보이게 설계한 독특한 스텔리온 디자인은 아부투스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낸다. 보는 순간 눈길을 사로잡으니 그녀 앞에서 당신의 감각을 자랑하기에도 좋겠지. 혹시 아나, 그녀와 함께 커플 시계를 맞추는 날이 올지?  
가격 39만 원 문의 GLOBAL TIME (02-778-1590, [www.arbutus.co.kr](http://www.arbutus.co.kr))



## 루미녹스의

### All-white Snow Patrol Colormark 3057.WO

루미녹스가 베스트셀러 컬러마크 모델에 올 화이트 컬러를 넣은 스노우 페트를 3057 화이트아웃(Whiteout) 제품을 선보였다. 활동성, 실용성이 우수한 탄소 강화 폴리머 케이스에 폴리 우레탄 스트랩을 채택하고, 44mm 크기에 시계 케이스 내부에 정교한 스위스 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를 넣어 시각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강화유리 섬유 케이스를 사용해 가볍고 견고하다. 활동성과 내구성, 멋진 디자인으로 실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최적의 스타일 아이템!

가격 44만 원 문의 미림시계 (02-757-9866,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 자스페로 VETERANO 업그레이드 모델 출시

국내에서 이미 품질을 입증한 자스페로에서 대표 컬러인 블랙과 로즈 골드를 적절하게 매칭한 자스페로 VETERANO SG-401.01.LB 모델을 출시했다. 입체감이 돋보이는 다이얼에 스물 세컨링을 세팅해 시크함과 고급스러움을 확보했다. 또 일반적인 야광보다 100배 밝은 슈퍼 루미노스 코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시간을 볼 수 있게 한 자스페로만의 섬세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아 천연 가죽을 기본 밴드로 채택해 착용감이 좋고, 메탈 밴드와 호환이 가능해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가격 685,000원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http://www.zaspero.co.kr))



GEAR OF THE MONTH

# Upgrade or Not? WINDOWS 8

패권을 찾기 위한 MS의 천전공급이 느껴지는가?

윈도우 8의 첫 경험 상대로 누가 좋을까?



**올인원 PC**  
**삼성 시리즈 7 AIO**  
 삼성 TV와 완벽한 패밀리 룩을 이루는 이 일체형 PC는 일순간 스마트 TV를 바보 TV로 만들어버릴 위력을 지녔다.



**울트라북**  
**Acer Aspire S7-391**  
 앙드레 선생님의 손길을 받은 듯한 순백색의 아름다운 울트라북. 돌비 음향을 지원하고 최대 12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한다.

## 하지만

**1.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UI 경험**  
윈도우 8은 터치 인터페이스를 매력으로 내세운다. 처음 볼 때는 “윈도우가 터치라고? 우와!” 하겠지만 금방 이미 다른 태블릿에서 다 해본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텅 빈 윈도우 앱 스토어**  
이 가게는 상품 진열장도 텅텅 비어 있을뿐더러 판매 중인 앱도 이미 다 본 적이 있는 것뿐이다.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는 킬러 앱도 없다. 또 앱 해상도를 10인치 이하 태블릿에 맞춰 제작한 경우가 많아 20인치 이상의 데스크톱에서 보기에는 영 좋지 않다.

**3. 노트북 같은 태블릿? 태블릿 같은 노트북?**  
누군가는 프로그램 부족을 20년 동안 축적된 수많은 PC 프로그램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노트북(또는 데스크톱)이 있다면 태블릿용 앱을 돌리기 위한 윈도우 8과 비싼 전용 하드웨어가 굳이 필요할까?

**4. 곱은 업그레이드 속도**  
지금 네 컴퓨터를 보라. 책상위의 모니터는 몇 년 전에 산 모델인가? 컴퓨터 업그레이드에서 디스플레이는 가장 교체 주기가 느린 부품이다. 윈도우 8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마우스로 하면 된다고? 그럼 7하고 다른 점이 없는데?

**5. 오아니, 시작할 수가 없어!**  
윈도우 95 시절부터 벌써 18년(발음 주의)을 눌러오던 시작버튼이 사라진 것은 쇼크. 이전 마치 브래지어를 벗겼는데 하우두유두가 없을 때의 느낌이랄까? 시, 시작할 수가 없어!?

**6. 둘이 합쳐 하나, 지킬과 하이드**  
윈도우 8을 쓰다보면 2개의 OS를 사용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두 버전은 인풋 인터페이스는 물론 실행 스타일까지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떨어져서는 존재 할 수 없다. 두 OS는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 이전 흡사 윈도우 3.1과 DOS 6.0을 같이 쓰던 시절 같다. 일단 프로그램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스타일 UI 메뉴로 돌아가야 한다. 스타일 UI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데스크톱 모드로 돌아가 작업해야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물론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생성해놓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프로그램이 전부 바탕화면에 있는 모습은 마치 사춘 동생들이 명절에 눌러 와서 내 컴퓨터에 <메이플 스토리>를 깔아놓고 간 듯한 찝찝함을 준다.

## 그래도 업그레이드해야 할 이유

**1. 태블릿과 데스크톱을 연결시켜줄 유일한 OS**  
어찌됐든 점차 모든 디스플레이는 터치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벽이 한층 낮아지는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데스크톱을 넘나드는 유일한 OS로 윈도우 8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2. 보기 좋은 떡**  
스타일 UI의 라이브 타일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일단 보기에는 좋다. 화려하면서도 심플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비스타부터 도입된 에어로(투명한 창, 촌스런 3D 효과) 인터페이스가 드디어 퇴출됐다! 그것만으로 만세!

**3. USB 메모리에 윈도우 8을 넣어 다닐 수 있다.**  
USB 3.0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속도가 너무 느리긴 하지만 윈도우 투 고(Windows to Go, WTG) 기능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 기능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USB 메모리만으로 윈도우 8을 제대로 부팅시킬 수 있었다.

**4. 윈도우 8에서만 지원 가능한 다이렉트X 11**  
최신 게임에서 더 화려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다이렉트X 최신 버전이 필요하다. 아직은 11버전

전용 게임은 없지만 그 새로운 이펙트를 적용한 게임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5. 쉬워진 윈도우 재설치**  
윈도우 8은 다양한 단계의 시스템 복구를 기본 제공한다. 특히 'recimg' 명령어 복구 모드는 윈도우의 설정을 초기화하고 데스크톱 프로그램까지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롤백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제 노련 고스트는 필요 없다.

**6. 오피스 사용자라면 답은 이것뿐**  
MS 오피스를 사용해야만 한다면 당연히 MS의 OS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인 오피스 2013에서는 MS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스카이 드라이브를 기본 저장 위치로 설정할 수 있는 등 윈도우와의 긴밀한 관계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7.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윈도우 7 사용자에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8 버전의 업그레이드 킷을 제공하고 있다(무려 14,99달러). 뭐 한 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8 버전으로의 이동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호갱님

BY 송종민 LAYOUT 서운정



**노트북**  
**Dell XPS 15**  
울트라북의 등장으로 이 정도 강력한 성능은 발휘해야 노트북이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15인치 대형 화면과 인텔 3세대 i7 아이비 브릿지 CPU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는 데스크탑의 영역마저 위협한다.



**태블릿**  
**ASUS VivoTab**  
윈도우 8을 경험하는 가장 멋진 방법은 바로 태블릿과 키보드 도킹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처럼!

# High-End Snapper

스마트폰 카메라에 밀리지 않기 위해 더욱 '하이(High)' 해진 콤팩트 카메라들의 불꽃 튀는 싸움. 과연 누가 가장 '하이'한 녀석일까?



For  
외모 지상  
주의자



## 후지필름 XF1

XF1을 만져본 사람은 누구나 강렬한 소유욕에 휩싸인다. 라이카 뺨따구 후려갈기는 멋진 레트로 디자인은 누구나 엄지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 X100부터 시작된 후지필름의 클래식에 대한 도전은 비로소 향수가 아닌 재창조의 영역에 도달했다. 분명 미끈한 금속 보디에 버튼도 딱 줄인 모던한 디자인인데도 묘하게 따듯한 느낌이 든다. 단지 가죽 그립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설명인 듯하다.

XF1의 전원을 켜려다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한다. 독특하게도 경통을 직접 뽑아 올리고 돌려야 한다. 라디오 볼륨 버튼으로 전원을 켜는 감각을 생각하면 쉽다. 촬영 준비가 느리고 자주 쓰면 쉽게 망가질 것 같다. 한숨 더 떠 줄인을 하려면 직접 손으로 렌즈를 돌려야 한다. 온전히 수동 카메라의 느낌이다. 미러리스나 DSLR이라면 모를까 과연 똑막이에서까지 이런 감각을 원할까? 결과물은 낮은 채도로 인해 묘하게 어두운 느낌이 있다.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긴 하지만 선명도가 떨어지고 조금 심심하다. 이것조차 필름 카메라 느낌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가격 599,000원

### MAXIM 평가

→ 사진의 결과물보다는 사진 찍는 자신의 모습 자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카메라.

## 소니 RX100



↑  
**For**  
까다로운  
카메라 덕후의  
서브 디카

소니가 작정하고 만든 하이스펙 콤팩트 카메라. 모든 부분에서 경쟁 기종을 압도하겠다는 의지가 철철 넘친다. 특히 미러리스를 위협하는 대면형 1인치 센서는 혁명적이다. 대형 센서가 갖는 장점은 명확하다. 아웃 포커싱 촬영에 유리하며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을 바탕으로 실내건 밤이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소니가 독한 맘 품었을 때는 꼭 등장하는 칼자이즈 렌즈도 투명한 정도의 선예도로 보답한다. 망원에서 다소 떨어지는 조리개 값이 마음에 걸리지만 F1.8, T코팅렌즈의 결과물 앞에서는 불만이 속 들어간다. 120만 화소의 LCD 스크린도 결과물을 더욱 좋아 보이게 한다.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구성이 이 조그만 보디에 딱 맞게 담겼다는 거다. 하이엔드 콤팩트 장르의 미덕은 어쨌거나 콤팩트니까.

가격 899,000원

### MAXIM 평가

→ 미니멀한 것은 좋지만 수동 기능에 대한 편의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 정도 스펙을 요구하는 사용자라면 수동 기능에 대한 갈망이 분명 있을 텐데.

## 파나소닉 루믹스 LX7

명불허전의 라이카 렌즈는 24mm의 광각에서 F1.4, 90mm의 최대 망원에서도 F2.8의 조리개 값을 유지하는 명품 렌즈다. LX7과 함께라면 실내에서 사진이 흔들린 것이 아직도 당신의 손떨림 때문이라고 믿는 여친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루믹스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똑딱이라는 장르 설정에 구애받지 않는 과감한 설계 때문이다. 작은 보디에도 오밀조밀 충실히 구현한 수동 기능은 스냅 사진 뿐만 아니라 신경 써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동 촬영에 필요한 모든 버튼은 딱 필요한 그 위치에 존재하고 사용하기가 쉽다. 상급기에서나 볼 수 있는 수동 초점 영역 지정도 아주 편리하다. 화면 비율과 조리개 개방을 아날로그 버튼으로 마련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이점이다. 결국 LX7은 촬영 버튼만 누를 줄 아는 초딩부터 프로 사진가의 서브 디카까지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팔방미인이다. 억지로 단점을 찾아보자면 조금 더 큰 이미지 센서에 관한 열망인데, 그게 아쉽다면 동사의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로 갈아타면 될 일이다.

가격 579,000원

### MAXIM 평가

→ 초보자와 상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쉽지 않은 타협점을 이끌어냈다.



↑  
**For**  
가족 공용  
카메라



## 캐논 파워샷 G15

카메라 세계에서 캐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캐논 DSLR의 인기는 엄청나서 한 번도 판매 순위 1위를 내준 적이 없을 정도. 그러한 캐논 상급기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니미, 파워샷 G15의 장점은 명확하다. 익숙하다는 거다. 일단 탄탄한 만들새의 마그네슘 보디부터 형(EOS 시리즈) 들을 꼭 닮았다. 노출 보정이나 조리개, 셔터스피드 등을 수동으로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2단 다이얼, EOS의 조작성을 그대로 계승한 전자 다이얼 등 막강한 수동 촬영 성능도 꼭 같다. 여기에 설정 메뉴 또한 그대로, EOS 시리즈의 액세서리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큰 크기와 무거운 무게는 콤팩트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경쟁기종 중 유일하게 뷰파인더가 있는 것은 이들이 콤팩트에도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주지만 단지 마니아한 면을 부각시킬 뿐인지도 모른다.

가격 691,000원

### MAXIM 평가

→ 콤팩트한 면은 없지만 캐논 특유의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은 확실히 캐논의 빠들이를 만들어 낼만 하다.

For  
캐논  
빠들이



## 니콘 쿨픽스 P7700

이번 테스트 최대 당치와 최대 무게를 자랑하는 니콘의 하이엔드 콤팩트. 사실 이정도 되면 이미 콤팩트라고 할 수 없다. 소니 NEX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보다 더 가볍고 얇은 미러리스도 수두룩 하다. 그래도 굳이 니콘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으려면 셀카 촬영에 적합한 회전 LCD와 경쟁 기종 중 최고인 광학 7.1배 줌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개인적으로는 각종 버튼의 위치가 제법 착 달라붙는 맛이 있었다. 하지만 역시 똑딱이에 기대하는 맛은 아니라는 게 문제. 회전 LCD는 여성들이 셀카 촬영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 한 손으로 이 카메라를 들기는 글렀고 광학 줌이 탭만 되면 30~50배 줌까지 되는 슈팅형 하이엔드를 사는 게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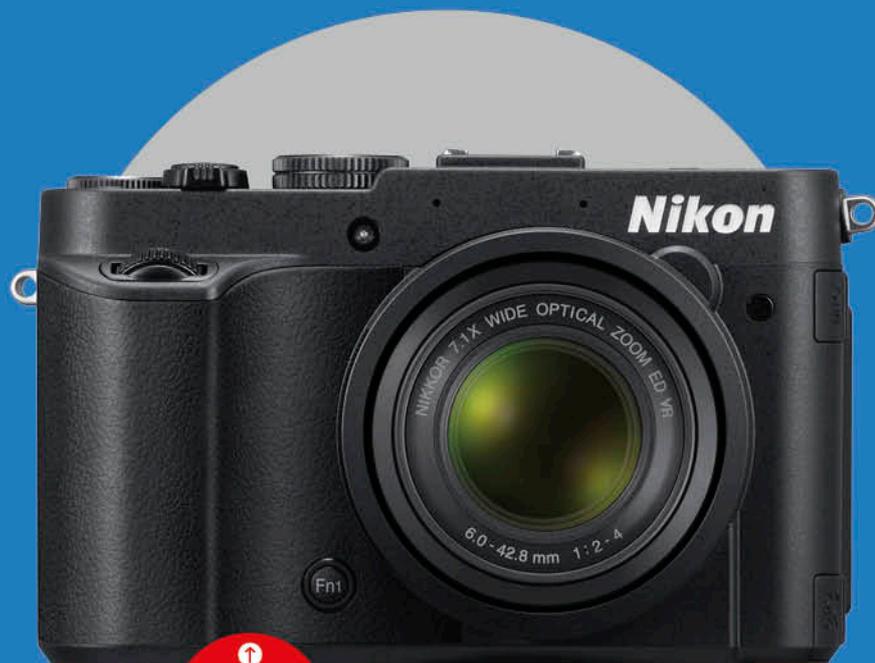
한 가지 위안이라면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다는 거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는가? 단점이 너무 커서 이 장점이 다 가려지는 것을.

가격 580,000원대

### MAXIM 평가

→ 탈 똑딱이급 카메라. 성능이 아니라 크기랑 무게가.

For  
사은품  
당첨자



	소니 RX100	후지필름 XF1	파나소닉 LX7	캐논 G15	니콘 P7700
센서크기	1인치 CMOS	2/3인치 CMOS	1/1.7인치 CMOS	1/1.7인치 CMOS	1/1.7인치 CMOS
화소	2,020만	1,200만	1,280만	1,210만	1,219만
감도(확장)	125-6400 (80 ~ 25600)	100-3200 (12800)	80-6400 (12800)	80-12800	80-3200 (6400)
초점거리(35mm 환산)	28-108mm	25-100mm	24-90mm	28-120mm	28-200mm
광학 줌 배율	3.9배	4배	3.8배	5배	7.1배
조리개 값	F1.8-4.9	F1.8-4.9	F1.4-2.3	F1.8-2.8	F2-4
무게	240g	225g	269g	310g	392g

**MAXIM's Pick!**



**1위**  
**파나소닉 루믹스 LX7**  
 LX7 명품 라이카 렌즈와 빠지지 않는 수동 기능, 거기에 가장 싸다!



**2위. RX100** 1인치의 대형 센서를 탑재하고도 극도로 억제시킨 사이즈는 과연 콤팩트 최강자다.



**3위. G15** 캐논 DSLR의 축소판. 더 이상 똑딱이라 불리길 거부한다.



**4위. XF1** 독보적인 감성 디자인으로 무한 소유욕 자극.



**5위. P7700** 큰 똑딱이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캐논을 사게 낫다.

**그렇 리 없지만 이 선택지가 맘에 안 든다면**



**1. 올림푸스 XZ-2**  
 디자인의 명가 올림푸스답게 카메라 그림의 컬러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 렌즈도 F1.8~F2.5 수준으로 밝은 편이고 틸팅 LCD 스크린은 경쟁기들 중 유일하게 터치 스크린을 지원한다.



**2. 라이카 D-LUX 6**  
 파나소닉 LX7과 거의 똑같은 정도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가격은 세 배다. 그 사실에만 귀를 막는다면 독일 장인의 손에 의해 탄생한 라이카의 감성에 빠져들 수 있을 거다.



**3. 캐논 G1X**  
 소니 RX100의 1인치 센서는 물론 마이크로 포서드를 능가하는 1.5인치 대형 센서를 탑재했다. 하지만 크기도 무게도 모두 헤비급.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필요 없지만 대형 센서는 탐나는 사용자들이 선택해 불만하다.



**4. 삼성 갤럭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길 수 없다면 내가 스마트폰이 되겠다! 패기 넘치는 삼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뭐? 그런데 부팅이 40초가 넘게 걸린다고?

## B&W A7 Wireless Music System

이제 도킹도 옛말,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당신을 위한 무선 오디오가 대세다!

**→** 먼저 B&W를 블랙&화이트나 BMW의 짝퉁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X 잡고 반성해라. B&W (Bowers&Wilkins)는 영국 남부 워딩에

본사를 둔 전 세계 프리미엄 스피커 시장 1위인 오디오 브랜드다. 네가 몰랐던 것은 오디오하면 인켈이라는 정도의 스케일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이엔드의 첨단을 달리던 브랜드가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시대가 디지털 음원이란 키워드로 흐르면서부터다. 좁아진 하이엔드 시장에서 넓어진 엔트리 시장으로의 브랜드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성공한 브랜드는 미국의 BOSE와 일본의 아마하, 덴마크의 B&O, 그리고 영국의 B&W 정도다. 한결같은 그들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심플! 구성을 최대한 간소화해 복잡한 세팅 없이 도킹만으로도 고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B&W의 성공적인 데뷔도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프리스비에서 한 번쯤은 봤을 럭비공 모양의 검정 스피커 '제플린'이 바로 이들의 첫 작품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A7이 있다. A7은 이러한 시장의 성공 법칙에 완벽히 부합한다. 심지어 이전 도킹할 필요도 없어졌다. 와이파이 연결로 선 없이 음악을 오디오로 전달할 수 있는 '에어플레이(AirPlay)' 기술 덕분이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고 살 수 없지 않은가? 음악을 듣는다고 스마트폰을 독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봐라. 키톡 올 때마다 일어나서 스피커로 달려올 텐가? 침대에 누워 (드래곤 플라이트)를 하는 재미는? 이제 에어플레이는 시대의 흐름이다. 아이팟 시대가 아닌 아이폰 시대를 위한 새로운 도킹 스피커의 표준인 A7을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만 말이다.

가격 1,200,000원

문의처 로이코(02-335-0006, www.royco.co.kr)

### 무선은 음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버려!

A7은 맥과 아이폰에서 무선실 오디오, MP3 음악을 간단하게 스트리밍할 수 있다. 더구나 블루투스도 달리 압축되지 않는 음악 파일 그대로를 전송하기 때문에 원음을 살린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블루투스도 벌써 한물갔구먼.

###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폭넓은 사운드

제플린이 여성 보컬의 섬세함과 명료함을 부각시키는 고음 성향이었다면 A7은 6인치 케블라 우퍼를 탑재해 저음 영역의 파워까지 갖춘 팔방미인이다. 고전적인 오디오 팬들을 위한 연주 음악은 물론, 제법 늘 줄 아는 보이스&걸스를 위한 대중음악도 꽤 흥미롭게 들려준다.

### 애들만 편애한다고 얼룩 하지마

물론 에어플레이가 애플 전용 기술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A7의 멋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24bit/96kHz 음질의 파일 재생을 지원하는 USB DAC을 내장해 PC와 연결하면 강력한 업샘플링까지 지원하는 PC-Fi 스피커가 된다. 또 아날로그 음성입력 단자를 통하면 광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CD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도 입력할 수 있다. 도킹 오디오로만 쓰기에는 참 아깝지?

도킹 스피커들은 이제 끝났어!



## SPEC CHECK



앰프 출력	2x25W 트위터 2x25W 미드레인지 1x50W 서브우퍼
정격 소비전력	100W
입력단자	Aux 입력 아날로그(3.5mm 미니 잭) 스트리밍, 동기화, 펌웨어 업그레이드 (USB 2.0)
크기	높이 220mm x 폭 360mm x 깊이 160mm
중량	5.7kg



형, 나도 모터 샀어!

### 달려라 부메랑

하키채 들고 미니카 쫓무니를  
쫓아다니던 그때 그 시절.

1994년 SBS에서 방영한 만화 <달려라 부메랑>, 주인공은 강차돌, 팀 이름은 '돌진 군단'이었고 이 녀석이 바로 돌진 1호 '부메랑'이다. 부메랑의 완구 판권을 가지고 있는 타미야가 돈방석에 앉나 싶었지만, 아직 저작권 개념이 정착하지 않았던 시기가 여기저기서 카피 상품을 즐지어 출시하면서 짝퉁이 판쳤다. 당시 하키채도 불티나게 팔렸는데, <달려라 부메랑>의 미니카 선수들이 하키채 비슷한 막대기로 미니카를 쫓아다니며 조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화는 만화일 뿐 육상 선수가 아니고서야 꼬맹이가 미니카 속도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

타미야 제품 13,500원



<달려라 부메랑>  
실사판 감상





**가요계의 부흥기  
1994년**

김진모의 '핑계'가 무려 5주 동안 <가요 톱 10> 1위 자리를 지켰다. 김진모의 3집 앨범 <잘못된 만남>은 280만 장 이상 나가면서 단일 앨범 국내 최대 앨범 판매량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1994년은 그야말로 가요계의 포텐이 터진 해다. 마로니에의 '카테일 사랑', 투투의 '일과 이분의 일' 등의 히트곡이 거리에 울려 퍼졌으며 DJ DOC, 박진영, 플라동 혜성 같은 신인의 등장으로 가요계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비린내 풀풀 나는 1994년 신인들,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으려나.



떠오르는 신인 디제이터

**코 묻은 돈을 강탈해 간 장사꾼, 미니카**



일개 만화 따위가 전국 초등학교 문화를 뒤집어놓으셨다. 학교 앞 문방구에는 롤러코스터 경주 트랙이 들어섰고 남학생들이 줄을 서서 미니카 경주를 했다. 초딩이 무슨 돈이 있겠나. 에디터도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현금할 돈을 빼돌려 미니카에 투자했다(주님, 제 미니카에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미니카는 AA 건전지 2개와 작은 전동 모터의 힘으로 움직인다. 가장 널리 알려진 모터는 '블랙 모터'(12,000원)라고 불리는 녀석이었다. 시간이 흘러 최부분이 금색인 골드 블랙 모터, 모터 색깔이 아예 검정색인 슈퍼 블랙 모터, 그냥 비싸기만 한 마부지 모터 등이 출시되었다. 초딩들은 비슷한 성능에 색깔

만 다른 모터에 몇만 원씩 거금을 쏟아박았다. 모터의 힘이 점점 세지자 미니카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그 속도를 못 이기고 그냥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서 또 머리 좋은 장사꾼들이 미니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범퍼를 팔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스펀지 타이어, 미니카 무게를 줄여주는 초경량 플라스틱 본체 장착 등 튜닝을 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미니카 덕분에 전국 초등학교에 지름신이 빙의했다. 이 초딩들이 10년 뒤에 70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는 슈퍼 칠부지 등골 브레이커로 성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萬物商會**

만물상회



MAXIM  
購讀申請  
02-323-1182

**역대 만화 시청률 순위**

- 1위: 날아라 슈퍼보드(KBS 1)
- 2위: 무적 파워레인저(KBS 2)
- 3위: 슬램덩크(SBS)
- 4위: 피구왕 퉁키(SBS)
- 5위: 달의 요정 세일러문(KBS 2)
- 6위: 포켓몬스터(SBS)
- 7위: 패걸 조로(SBS)
- 8위: 슈퍼그랑죠(SBS)



- 9위: 달려라 부메랑(SBS)
- 10위: 베르사유의 장미(KBS 2)

역대 만화 시청률 중 1위는 <날아라 슈퍼보드>로 일일 최고 시청률 42.8%, 분당 최고 시청률 56.2%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무적 파워레인저>(일일 최고 39.1%), 3위는 <슬램덩크>(36%)가 차지했다. <달려라 부메랑>은 일일 최고 시청률 29%, 분당 최고 시청률 40.2%를 기록하며 9위에 올랐다. 이 밖에 11위에서 20위는 <시간탈협대>, <마법소녀 리나>, <천사소녀 네티>, <디즈니 만화 동산>, <외계 소년 위제트>, <축구왕 슛돌이>, <우주소년 아톰>, <마이티 마우스>, <웨딩피치> 등이 뒤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단편만화 시청률 1위는 50.3%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머털도사>로 집계됐다. → 역시 미스타 손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코초'가 마이진 하네.

**미니카 병맛 만화 최강자전  
우리는 챔피언 vs. 스피드왕 번개**



미니카와 교감을 하다니... 승리

**우리는 챔피언**  
박사에게 받은 사론 미니카를 가지고 시합하며 성장해나가는 쌍둥이 형제 이야기. 주인공의 생 각과 체력에 따라 미니카 속도가 달라지고 방향 전환을 하는 등 미니카와 텔레파시로 교감한다.



**스피드왕 번개**  
인라인스케이트를 착용한 초등학생들이 리모컨으로 미니카를 조종하며 트랙을 달리는 대한민국 제작 만화. 초등학교생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채로 공중제비를 돌며 번개를 쏜다.



# Stuff news

## 전설적인 음질과 매킨토시 록으로 무장한 McAire

매킨토시에서 에어플레이 오디오 시스템, 맥에어(McAire)를 출시했다. 매킨토시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파란색 레벨 매타가 눈에 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에 저장된 음원을 최고급 음질로 감상할 수 있고, 맥이나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무선으로 음악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또 USB 케이블을 통해 TV 및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이 가능하다. 그 어떤 장소에 두더라도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오디오 맥에어. 이번 기회에 한번 질러봐?

가격 480만 원 문의 로이코(02-335-0006, [www.royco.co.kr](http://www.royco.co.kr))



## 프리미엄 헤드폰 페라리 바이로직3, T350 출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와 영국 유명 오디오 회사 로직3가 협업해 프리미엄 헤드폰 T350을 출시했다. T350은 페라리 로고를 새겨 디자인이 화려하고 40mm 플레인지 스피커 드라이버를 탑재해 주변 소음을 제거한 생생한 음질을 구현한다. 고급 천연 가죽 소재의 이어컵과 헤드 밴드는 착용감이 우수해 장시간 제품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 슈퍼카 페라리는 없더라도 헤드폰 T350 하나만 이제부터 당신도 페라리 주인이다.

가격 549,000원 문의 페라리 바이로직3(02-744-4923)



## 간편하게 인화하자, 캐논 포토 프린터

캐논코리아는 10색 안료 잉크 시스템을 적용해 전문급 색 품질을 재현하는 포토 프린터 PRO-10과 8가지 염료 컬러 잉크로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의 출력물을 제공하는 포토 프린터 PRO-100을 출시했다. 특히 PRO-10은 잉크의 단차를 줄이고 표면을 평평하게 코팅하여 색상 왜곡을 막아 스크린에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의 특성을 반영해 사진을 출력할 수 있다. 아날로그 품질의 사진을 보장하니 바로 뽑아서 그냥 액자에 꽂아도 전시용으로 손색이 없다.

문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www.canon-bs.co.kr](http://www.canon-bs.co.kr))



product design award

2013



## 후지필름 카메라 2종 IF 디자인 어워드 2013 수상

후지필름의 프리미엄 콤팩트 카메라 XF1, X10 두 모델이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3'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의 보디 재질과 알루미늄의 세련된 조화는 군더더기가 없다. 또 줌링을 돌리면서 전원을 켜고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조작법이 간편하고, 렌즈를 보디 안으로 넣으면 슬림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인정받은 카메라를 찾고 있다면 XF1, X10 콤팩트 카메라와 함께하자.

문의 후지필름코리아(1577-4793, [www.fujifilm-korea.co.kr](http://www.fujifilm-korea.co.kr))



## 야마하 프리미엄 헤드폰, PRO시리즈

야마하뮤직코리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스튜디오, 홈시어터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전달하는 프리미엄 헤드폰 PRO시리즈 3종을 선보인다. 50mm의 네오디뮴 마그넷 드라이버를 통해 풍부한 중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 또 리모콘이 장착된 1.2m의 케이블과 3m 케이블을 꽂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블루, 화이트, 블랙으로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전국 야마하 음향기기 전문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149,000원 문의 야마하뮤직코리아(02-3467-3300, [kr.yamaha.com](http://kr.yamaha.com))

## 어둠 속에서도 멀티태스킹을 즐겨라!

### 로지텍 키보드 K810

로지텍에서 블루투스 일루미네이티드 키보드 K810을 출시했다. 이 키보드는 버튼 하나로 윈도우, iOS 및 안드로이드 기기를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동시에 3개 장치에 연결 가능하다. 키 자판에는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 어둠 속에서도 쉽게 타이핑할 수 있고 자판 가까이에서 손을 대면 주위의 빛을 감지해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한다.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고 전원 스위치와 배터리 표시등이 본체에 있어 효율적인 전원 관리가 가능하다.

문의 로지텍코리아(02-761-1207, [www.logitech.co.kr](http://www.logitech.co.kr))



# Motor

CAR OF THE MONTH

## 2013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G클래스의  
경이로운  
입찰 들기



운전할 땐 앞을 봐  
이 자식아



### 오프로더 열전의 지각 변동



'괴물'이라는 별명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정통 오프로더 머신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 지프 족(族)의 랭글러나 체로키, 괴물 가족인 랜드로버 일가의 (그 이름도 비포장스러운) 레인저로버, 디스커버리, 프리랜더, 굳이 하나 더 꺼 넣자면 폭스바겐 족(族)의 투아렉 정도였다. 균형을 이루고 있던 이 오프로더 열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벤츠 G클래스와 HUMMER는 충분히 괴물이라 불리

고대 남을 유닛이지만 국내엔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아 눈외로 찻던 양대 '세외 세력'이었다. 위 사진만 보면 눈같이 동그란게 귀엽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비공식 루트로 들어온 G클래스를 길에서 본 적이 있다면 엄청난 크기와 카리스마에 압도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벤츠 G클래스가 국내에 공식 상륙했다. 가격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G클래스의 상륙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건? 역시나 같은

역대 오프로더인 레인지로버일 거다. 지난 2011년 5월호 시승기에서 레인지로버의 강함은 충분히 맛 보았으니, 손 맛이 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 G클래스 시승기로 장단을 가린 후 독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네 발 중 한 발만 땅에 닿아있어도, 앞 발을 치켜든 상태에서 앞으로 기어 나가야 마는 G클래스의 섬뜩(?)한 광경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QR코드를 스캔할 것 📱

BY 유승민 IMAG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MAXIM  
시승기  
#23

## BMW 650i CONVERTIBLE

질빠진 톱 브라운 블랙 슈트 차림에 어깨에 축구화를 걸쳐놓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떠올렸다면, 그게 바로 650이다.

지금 가격으로  
출선 거야?



### → 차가 기름 먹는 거야 당연지사

그 이름도 거창했던 'BMW GRAND TOURING EXPERIENCE DAY 2012.'

이날의 시승 행사는 충남 당진을 기점으로 쪽 뺨은 고속도로와 와인딩 코스를 돌며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에코 프로 모드'를 활용해 연료 절감하기, 강촌 주변의 '에코스러운' 뒷동산 사진 찍어오기, DDR처럼 생긴 기계 위에서 뱃살 출렁이며 에너지 절약 실천 춤추기 등 '캡틴 플래닛'스러운 강요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MAXIM에게 배정된 650i 컨버터블은 '에코 프로 모드' 기능이 아예 없는 채 분명 행사의 모토와는 관계없이 MAXIM만은 액셀러레이터를 마음껏 밟아달라는 뜻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승을 위해 충남까지 달려온 MAXIM 에디터에게 650i 같은 질빠진 컨버터블을 던져주곤 필름거리며 연료 절약이나 하고 있으라니... 이걸 마치 전효성이랑 한방에 들어가서 뽀뽀나 하고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당 에디터, 이 금욕주의적인 콘셉트에서 다소 벗어나 650i가 선사하는 드라이빙의 참맛을 즐기는 마초다운 면모를 뽐냈으니, 지금부터 럭셔리 컨버터블 650i가 어떤 녀석인지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자.

• 에코프로 모드: 엔진 출력과 기어 변속 타이밍, 에어 컨디셔닝을 최적화해 연료를 절감하는 기술.

### GIRL TALK ABOUT 650i



**인나:** 이번엔 BMW 650i 모델이네. 그런데 'i'는 무슨 뜻이야? M은 'Motor sports'라고 알고 있는데 'i'는 처음 듣네.



**희성:**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모델이란 뜻이더라고.



**선배** 요즘 자동차 공부 많이 하네요? 어쨌든 컨버터블의 진짜 매력은 겨울에 느낄 수 있다던데 일단 탐부터 열고 달려볼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탐 개폐 속도가 느리네. 이래가지곤 소나기 쏟아지는 날에 공돌여 세팅한 머리 다 젖겠어.



**영환:** 폭스바겐 비틀이나 골프 카브리올레가 탐을 여닫는데 10초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공질은 느린 셈이죠... 650i가 여는 데 21초가 걸리니까요.



아직도 열고 있네.



그래도 승차감은 확실히 좋네요. 세단처럼 물렁물렁하지 않으면서도 짱짱한 느낌이고... 와인딩 코스에서 차체 흔들림도 적고 요철도 확실히 잡아주네요.



그게 650i의 진짜 장점이지. 느긋하게 산토리니 해변 도로를 크루징 할 법한 대형 컨버터블이면서도, 두껍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트윈 파워 터보 축구화로 갈아 신는 호날두 같다고나 할까?



그건 잘 알겠는데... 영환씨 천천히 좀 달려. 조금 전, 80km/h로 주행할 때는 시원하게 달릴만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내 비싼 속눈썹도 떨어지겠어! 뒷머리도 사정없이 나부끼고 시트 주변에 바람도 강하게 돌아. 탐 오픈은 고속 주행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알겠어, 알겠어. 이거 누르면 되나?



휴, 살겠네. 전에 보니까 주행 중엔 탑이 안 닫히는 컨버터블도 있더라고.



아역 아직도 닫히는 중이야?



탑도 닫았겠다. 제로백 5초인 트윈 파워 터보 V8 엔진 성능을 제대로 체험해봅시다!



머리가 미친년이 됐네. 뒷좌석은 윈드 실드에서 너무 먼가봐...



좀 더 밟아봐, 오빠!



누가 오빠예요? 어쨌든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엔진 만들던 실력 어디 안 갔네요. 최대 속도가 250km/h인데, 200km/h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네요.



소프트 탑인데도, 고속 주행에서 바람 소리나 주행 소음이 상당히 적네. 괜히 럭셔리 컨버터블이 아닌가 봐.



그런데 이 차 가격이 1억 5,000만 원 선에, 엔진 출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SL 시리즈나 재규어 XKR 컨버터블 시리즈에 비하면 연비도 8.1km/L로 꽤 좋네?



그건 조금 아이러니지. 경쟁 모델들의 연비가 6km/L 정도로 길바닥에 연료를 토해내며 미친놈처럼 내달리는 녀석들인데 말이야... 1억 5천만 원짜리 컨버터블을 모는 사람이 과연 기름 값을 걱정할까 의문이야. 차라리 연비를 포기하고 경쟁 모델에 맞먹는 출력을 탑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 어차피 '에코 프로 모드'도 탑재하지 않을 거였으면 확실히 고성능으로 콘셉트를 잡지. 8.1km/h의 숫자를 놓고 연비가 강점이라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수 백 억짜리 두바이 버즈 일 아랍 호텔 패키지가 9,900원 짜리 토마토 스파게티를 위한 리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네.



굳이 타깃층을 선정해 보자면 드라이빙을 즐기는 젊은 층 중에서 그나마 환경을 생각하는 건전한 부류일까?



그... 그런 부류가 있어? 사실 우리나라 도로에서 650이 엔진 성능도 과분하다는 느낌이야. 몇 번이나 이 엔진을 제대로 써먹어 보겠어?



그렇죠. 가끔 CNN에 나오는 탈주범처럼 도망갈 일이 없다면 가격대 성능비로 보나 우리나라 도로 사정으로 보나 650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난 소프트 탑 컨버터블은 왠지 위험해 보여서 별로더라고. 뭐랄까... 내구성 좋은 고가의 라이더 재킷에 5천 원짜리 비닐을 눌러 쓴 느낌이랄까?



650이 소프트 탑이라고 무시하면 안돼. 전에 어떤 사진 보니까 미국 험비처럼 보이는 트랙을 들이박고도 650이 타고 있던 계집애를 멀쩡히 기어 나오고 있던데.



지난 6시리즈에 비해 차체 강성을 높였다더니, 확실히 튼튼해졌나보네요.



지난 8월에 미국 IHS 충돌테스트에서 최고 안전등급을 받은 볼보의 S60만큼은 아니지만, BMW 시리즈 역시 각국의 충돌 테스트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편이죠. 그런데 안나씨 뒷좌석이 너무 좁지 않아?



스튜어디스 면접 보는 자세로 있으려니 장이 꼬일 것만 같은데...



차라리 2인승 컨버터블에 손을 뻗어 달을 위치에 짐칸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하겠어.



어머, 지금 제가 짐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뭐, 예쁜 짐 정도라고 해주지. 



워메, 감짝아

### SPEC CHECK

배기량  
4,395cc

엔진 형식  
트윈 파워 터보  
V8 엔진

최대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  
66.3kg.m

구동 방식  
뒷바퀴 굴림

변속기  
자동 8단

공인 연비  
8.1km/L (5등급)





뭐, 다시 올라가라고?

MAXIM  
시승기  
#24

## 2013 LEXUS GS350 F SPORTS

렉서스의 F는 고성능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BMW의 M시리즈나 벤츠의 AMG튜닝의 렉서스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달리기 성능으로만 따지면 포르쉐 박스터S와 맞먹는다. 스탠다드 버전보다 1,140만 원이나 비싼 이유다.

렉서스 GS의  
해의 광고



## SPEC CHECK

배기량  
3,456cc (가솔린)

엔진 형식  
V형 6기통

최대 출력  
310마력

최대 토크  
38.2kg·m

구동 방식  
뒷바퀴 클림

변속기  
자동 6단

차체 길이  
4,845mm

공인 연비  
9.5km/L (4등급)



# 7,650 만 원



### 창 밖을 봐 눈이 와 제기랄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시트와 운전대가 “웅” 하고 움직이며 질주의 시작을 알린다. 렉서스를 탈 때마다 보는 견해도 또 가슴이 뛰었다. 변신 로봇이라도 타는 듯한 렉서스만의 맛이다. 기어레버 옆에 주행 모드 선택 다이얼이 보인다. ECO/ NORMAL/ SPORTS/ SPORTS+ (X나 스포츠) 4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니 대번에 엔진 소리와 핸들링, 가속 페달의 끈적함이 달라진다. GS350 F SPORTS가 연비 4등급의 기름 먹는 하마라지만 건건 NORMAL 모드 이상일 때 애기고, ECO 모드에선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가는 고효율 짠돌이카로 변신한다. 디자인만 취향에 맞다면 좀처럼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녀석이다. 하지만 하늘은 지독히도 MAXIM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미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는 온통 빙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차를 시승하든 빙판길에 고역인 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GS350같은 후륜 구동 차에게 눈길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후륜 구동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오버스티어(차체가 코너링 궤적보다 더 안쪽으로 이탈하는 현상)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커브에서 속도를 덜 줄인 채로 핸들을 재빨리 꺾으면 드리프트 비슷한 오버스티어를 즐길 수 있다. 마치 (이니셜D)의 타쿠미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후륜 구동에서만 가능한 모미이지만 노면에 실얼음이 끼여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렉서스 관계자도 “GS가 후륜 구동이니 눈길 주행에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다음 날도 눈이 내렸다. 도저히 남은 이를 동안 녹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씨름... 여자랑 떠난 4일 간의 밀월 여행 첫 날 밤에 “참, 오빠, 나 오늘 생리 시작했어”라는 X같은 말을 들었던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다. “안 돼애애애!!!”

### 욕망의 자동차(욕정 말고)

렉서스라는 물건은 신기하게도 ‘BMW, 인피니티,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사이에 놓여있을 때보다 ‘루이비통 핸드백, 까르띠에 브로치, 아르마니 수트’ 사이에 놓여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아이템이다. 분명 더 비싸고 뛰어난 자동차도 많은데 말이다. 왜 그런 걸까? 한때 렉서스 열풍에 힘입어 토요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경영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유명했던 건 <뉴욕 타임즈> 베이루트 지국장 토머스 L. 프리드먼이 저술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다. 이 두꺼운 사회 과학 서적에서 렉서스 자동차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앞에서 언급한 명품들은 실제 제작에 든 것보다 100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얹어서 값을 매겨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욕망’이다.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특별하고 싶은, 부러움을 사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꿈틀대면 더 이상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다. 마트에서 휴지를 살 때 10원 차이를 따지던 주부가 6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지르는 데는 망설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렉서스의 성공은 바로 이 ‘욕망 마케팅’에 기인한다. 실제로 렉서스의 광고 전략은 자동차 회사들이 해온 전형적인 자동차 광고기보다는 명품 브랜드의 그것에 가까웠다. 욕망의 대상이 된 렉서스를 두고 사람들은 가격대비성능비를 따지지 않았다. ‘렉서스’라는 사실만이 중요했으니까. 마치 샤넬백을 살 때 수납 공간과 견고함, 실용성 따위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 열풍은 이제껏 자동차 구매 결정자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던 ‘여성’을 일제히 끌어올렸다. “차는 물라도 렉서스는 안다”는 그녀들에게 렉서스는 새로운 샤넬백의 등장과 같았다. 딱히 여성 타기를 노렸던 건 아니지만 세상의 반을 사로잡은 렉서스가 성공가도를 달린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 강남 사모님 명품에서 남자의 명마로

그로부터 10년,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렉서스의 이미지는 ‘강남 아줌마 승용차’로 굳어져버렸다. 렉서스 덕에 자동차에 눈을 뜬 여자들은 이제 렉서스 말고도 괜찮은 선택지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중 여자들 의 새로운 샤넬백으로 부상한 아우디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타깃 연령대에 차이가 있지만 에디터 주변의 암컷(차에 무지한)들 옆에 일곱은 아우디 끌고 다니는 게 꿈이란다. 지난 몇 년간 렉서스가 겪은 극심한 부진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샤넬백의 지위를 되찾아 올 것인가, 명품의 단 꿈을 깨고 남자들에게 돌아가 진정한 ‘자동차’로 승부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렉서스는 후자를 택했다. 10년간 고수해 온 ‘매끈한’ 디자인부터 싹 뜯어 고쳤다. LEXUS의 X자를 상징하듯 넓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야 비로소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다. 공격성을 드러낸 렉서스의 새 얼굴에 명품백 느낌은 없다. 아줌마들을 태우고 양전을 떨 때에도 달리기 성능엔 자신이 있었다. 오히려 야성을 드러내지 못해 근질근질했는지도 모른다. 전에는 없던 F시리즈의 탄생은 렉서스의 이러한 변신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부터가 승부다. 명품을 벗고 야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렉서스, 이제야 비로소 수컷들의 눈을 잡아끌기 시작했다. 🐾

이탈에도 F SPORTS만큼 색다른 모델 출동하여 훈훈한 렉서스 화보를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불행히도 4일 내내 눈과 비가 내려주시어 촬영은 물건너 갔다.





### 슈퍼스타K TOP4, 닛산 큐브 득템

다들 알다시피 최근 성황리에 끝난 슈스케 시즌4의 TOP4(로이킴, 딕펄스, 정준영, 홍대광)는 박스카 큐브를 득템했다. 사실 TOP4가 되었을 때 바로 주는 줄 알았는데 지난 12월 11일이나 줬다는 걸 보니 이런 상품도 지급이 빠르지는 않은가 보다. 여기서 모두가 가졌을 의문. TOP4 중 유일하게 4인조 그룹이었던 딕펄스는 저 차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을까?

가격 2,240만 원부터

문의 닛산 큐브(02-2036-9935)



###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중동 제패

벤틀리의 신형 컨티넨탈인 GT V8은 중동 모터 어워드에서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의 라이벌을 제치고 프리미엄 럭셔리 쿠페 부문 최고 모델로 선정되었다. 알다시피 중동은 슈퍼카를 실제로 구매하는 석유 재벌들이 다량 서식하는 곳, 그래서 이상의 의미는 어떤 수상 기록보다 더욱 남다르다. GT V8은 우리나라에서도 벤틀리 판매 실적의 50%를 이끌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가격 2억3,900만 원

문의 벤틀리(02-3448-2700)



### 포드코리아, 2013 올-뉴 퓨전 출시

지난 12월 10일, 포드코리아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환골탈태한 2013년형 올-뉴 퓨전을 공식 출시했다. 2012년형 퓨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퓨전이 얼마만큼 큰 성형수술을 감행했는지 실감할 거다. 과장 좀 보태서 애스턴 마틴 스타일로 간지남이 되어 돌아온 올-뉴 퓨전. 이 정도 비주위에 웬만한 여자라면 다 넘어오지 않을까? 2월호 MAXIM 시승기에 출연해 그 매력을 날날이 뽐낼 예정이다.

가격 3,645만 원부터

문의 포드코리아(02-3440-3665)



##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130년 전통의 명품,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응모 기간:** 2012. 12. 22 ~ 2013. 1. 18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튜닝 시공 (전면 시공, 즉·후면 제외)

###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벤트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걸들면 더 좋다!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MOTOR  
EVENT

## 제21회 MAXIM 무료 튜닝 당첨 독자는?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해군 꽃대위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헌병 중대장이입니다. 나는 휴가 복귀 시 MAXIM을 소지한 병사들을 나무라지 않는다(나 같은 중대장도 없을 것이요), MAXIM 덕분에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MAXIM 관계자들(아말로 진정 애국자들이 아닌가 모르겠소, 그나마 추운 겨울이 싱겁 다가왔는데 나의 애마의 앞 유리는 아직도 활벗고 있다요, 힘든 군 생활에 지친 내 애마의 피부와 늘어가는 주름에 솔라가드 튜닝을 신청하오, 추운 겨울, 눈 천지인 강원도의 반사광과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길 바라오!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겠소!



솔라가드 이벤트  
당첨자 튜닝 후기 보기



유독 춥다는 올겨울, 강원도에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군요. 강원도의 반사광이라면 이영한 에디터가 2년간 기고 굴렀던 강원도 흥천 소재지와 일치하는군요. 눈알 시린 그 고통 수백 번, 수천 번 공감입니다. 휴가 복귀자들에게 MAXIM 소지를 허락하는 기특한 마음과 MAXIM 독자다운 쿨한 면모 인정하는바, 솔라가드 튜닝 이벤트 당첨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튜닝에도 당첨됐으니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 확립에 더욱 힘써주길 바라는 바요! P.S.: 사진에 출연한 부대원들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 Hot Garage

마트에 가도 1+1, 1+2가 아니면  
절대 사지 않는 일몰한 당신이  
들으면 참 좋아할 소식.  
이미 국내 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섹시 폭탄 아리아나 셀레스티와,  
그녀만큼 섹시한 또 다른 인기 절정  
UFC 옥타곤걸 브리트리 팔머, UF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녀 방송인  
켄다 페레즈, 이 3인방이 함께 모여  
MAXIM의 새해를 뜨겁게 연다.  
이거 초장부터 너무 활활 태우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결론은, 가슴  
1쌍보다는 3쌍이 진리라는 것!



BY STEPHANIE RADVAN PHOTO ZOE MCCONELL

비키니 H&M



**SO  
SEXY  
IT  
HURTS!**

비키니 하의 Victoria's Secret  
자켓 Bebe  
선글라스 Urban Outfitters



## ARIANNY CELESTE

---

철창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파이터보다 당신을 더 흥분시키는 게 뭘까.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 아니겠나.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UFC 경기마다 아름다운 자태로 옥타곤을 장식했다. 세계 격투 팬들의 여신 아리아니. 자, 이쯤 되면 그녀를 쟁취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나?

“  
나는 착한 여자보다는  
악동에 가까웠지.  
”

내가 자동차 시트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를 알겠나?



비키니 Asos  
장갑 Bebe

## 아리아니 셀레스티

생일: 11월 12일

태어난 곳: 미국 라스베이거스

키: 165cm

몸무게: 49.8kg



**미국판 미스 맥시 콘테스트에서 처음 만났고, 벌써 MAXIM 커버 촬영만 세 번째다. 당신도 우리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항상 MAXIM에 나오는 여자들을 부러워했다.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잡지 커버 모델을 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목표 중 하나였지.**

### 예전과 비교해 이번 촬영은 어땠나?

정말 멋진 촬영이었다. 이번엔 다른 옥타곤 걸들과 함께했을 뿐 아니라 포스가 남다른 스포츠카도 등장했기 때문이랄까. 나의 첫 MAXIM 커버 화보는 발랄한 소녀 같았지만, 이번엔 훨씬 어둡고 섹시해졌다.

### 옥타곤 걸들도 파이터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나?

절대! 우리가 유치한 배개 싸움 같은 걸 할 거라 기대하신 마라.

### 젠장. 많은 남성 팬이 그 얘기에 실망했을 거다.

대신 우리 탈의실에서 T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며 서로를 체크한다. 정말 섹시해 보이는지, 화면발을 잘 받을 것 같은지 확인도 할 겸?

### 당신이 데뷔한 2006년과 지금의 UFC는 많이 다른가?

비교도 안 될 정도지! 처음에 MMA가 굉장히 무서운 경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선수들이 몸을 단련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대단히 존경하게 되었다.

### 좋아하는 파이터가 있나?

앤더슨 실바. 별명 그대로 정말 '거미' 같은 몸놀림을 보여준다. 기회를 엿보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강력한 한 방으로 쓰러뜨리는 플레이라니,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정말 멋진 선수다.

### 그럼 당신의 별명은 뭔가?

나는 옥타곤 철창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성스러운 사람이지만 굳이 하나 지으려면 '암살자'가 어떨까? 한 번 흥분하면 언제 누구를 덮칠지 모르거든!

### 옥타곤 걸이라서 가장 좋은 점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 특히 브라질과 호주 시드니를 좋아한다. 비키니 차림으로 물가에서 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행복했다.

### UFC 팬들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프리프즈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거절했지만 귀엽더라.

### 셀 연휴가 좋은 이유는?

그냥 다 좋다! 맛있는 음식도 좋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 평소엔 어떤 음악을 즐겨 듣나?

주로 하우스 음악을 듣는다. 참고로 내가 직접 부른 노래도 있다고! 'Top of the World'란 곡인데,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당신과 사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

가벼운 키스를 나누려면 일단 입 냄새가 안 나고 치열이 고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날 꼬시려면 은은한 촛불 아래서 마사지를 해줄 정도는 돼야지.

### 올해 당신의 행동을 돌이켜본다면 천사와 악마 중 어디에 더 가깝나?

양쪽 다. 하지만 악마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일까? 뭐든 그냥 착하기만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게 좋잖아. ☺

비키니 상의 American Apparel  
비키니 하의 Victoria's Secret





“

나를 잡으려면 은은한 촛불 아래서  
마사지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한다.

”

금발이  
너무  
섹시해!



# BRITTNEY PALMER

금발 미녀 UFC 옥타곤 걸 브리트니 팔머가  
당신의 판타지를 이뤄준다!





## 브리트리 팔머

생일: 6월 24일

태어난 곳: 미국 라스베이거스

키: 167cm

몸무게: 54.4kg

### 어떻게 UFC에서 일하게 됐나?

어릴 때부터 쪽 라스베이거스에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라스베이거스에서 댄서나 모델 일을 했다. 그러다 옥타곤 걸 오디션 제안을 받았지.

### 철창 안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

무에타이와 주짓수를 배운 적이 있지만, 그냥 취미일 뿐이다. 난 싸움보다 로맨스가 좋다.

### 당신을 꼬시려고 했던 파이터가 있는지?

알다시피 비밀 사내 연애는 굉장히 즐겁긴 하지만 감추기 힘들고 복잡 미묘할 때가 많다. 남자친구는 이 일과 연관이 없길 바란다. 이 직장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내 일을 사랑하니까.

### 여가 활동으로는 뭘 하나?

주로 그림을 그린다. 사실 나 미술학도거든! 주로 유명 스타들의 초상화를 그린다. UFC 대표인 데이나 화이트의 초상화도 그린 적이 있다.

### 갑자기 궁금한데, 여자한테 뭘 선물해야 좋아하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녀가 매일 하고 다닐 수 있는 심플한 주얼리나 구두가 어떨까 싶다.

### 받아본 선물 중 가장 최악을 꼽자면?

없대. 선물이라는 것에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는 없지. 마음이 가장 중요하대!

### 에이, 땡치지 마라. 혹시 은근히 즐기는 나쁜 버릇 같은 건 없나?

살찐 걸 알면서 초콜릿 먹는 것 정도랄까. 라스베이거스 출신답게 예전엔 완전 야행성 생활을 했지만, 요즘은 경기 스케줄 때문에 낮 생활이 익숙하다. 숙취를 싫어했는데 잘됐지.

### 그렇군. 그렇다면 당신이랑 최대한 빨리 으쓱한 모드에 돌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섹스 말인가? 역시 공격적인 남자가 좋지 

비키니  
American Apparel

# KENOA PEREZ

인기 프로그램 <Best of Pride Fighting Championships>와 <The Ultimate Show>에서  
핫한 외모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켄다 페레즈가 당신을 사로잡으러 왔다.

그녀의  
압도적인  
자태 감상





비키니 Moschino  
장갑 Bebe  
구두 Forever 21

## 켄다 페레즈

생일: 5월 18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

키: 173cm



MAXIM과의 인연이 남달라서인지 더 반갑다.

2007년 미국판 미스 맥심에서 결승까지 갔다! 그 일로 UFC에 발탁되었지.

원래 격투기 팬인가?

데뷔 전부터 이미 코피 터지는 MMA 경기를 구경하려 간 적이 몇 번 있다. 이제는 아예 그 피 튀기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격투기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아버지가 20년 동안 가라데를 하셨다. 그래서 늘 우리 아빠가 다른 아빠들보다 훨씬 셀 거라고 믿어왔다. 아마 그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다양한 격투 스타일을 눈으로 직접 봤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가?

밴텀급과 플라이급 경기를 좋아한다. 다른 체급보다 훨씬 격정적이다. 철창 안을 뛰어다니며 플라잉 니키어나 펀치를 날리는 정신없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체구가 작은 남자가 더 좋다는 말인가?

솔직히 말해 헤비급 선수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

당신 때문에 헤비급 선수를 몇몇 체중 감량하겠네! 

더 이상  
섹시할 수  
없다!!!



# Game

## CHARACTER OF THE MONTH

### CABAL II: Force Archer

당신의 가슴에 섹시 포스를 꽂아줄 누님이 오셨다.

제작사	이스트소프트(주)
형태	MMORPG
등급	청소년 이용 불가
정식 서비스(부분 유료화)	

#### 포스 아처(Force Archer)

포스 아티팩트, 쉽게 말해 <카발>의 세계관에서 칭하는 특수 장비의 일종인 활을 이용해 에너지의 집약체인 화살을 만들어 적을 쓰러뜨린다. <디아블로 3>의 악마 사냥꾼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훨씬 예쁘니까. 원거리 딜러답게 강한 공격력과 기동성을 지닌 한편, 체력과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저의 섬세하고 빠른 손놀림을 요구한다. '여캐를 다루는 방법은 현실이나 게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불변의 진리!

#### 카발온라인 2

국민 백신 '알약'으로 잘 나가던 이스트소프트가 제작한 MMORPG <CABAL>의 후속작, '크라이엔진 3'를 이용한 수려한 그래픽은 그렇잖아도 예쁜 캐릭터를 더 촉촉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2012년 12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카발온라인 2>가 곧 출시될 수많은 기대작 가운데서, 이 빛나는 여캐의 피부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 GOOD

- 여캐에게 스펙킹을 날리고 싶은 정도로 찰진 타격감. PK 하세요! PK!
- 전작과 달리 계열별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창의력 묻는 DIY 연계 스킬

#### BAD

- 확실히 비주얼이 좋아졌지만, <크라이시스3>랑 같은 엔진 치고는 뭔가 아쉽다.
- 죽으면 5분 간 활동이 불가능한 시스템은 PC방 커피면 매출 좀 올려주겠네요.



포스아처의 사냥 실력!



수타 원격  
삼국야망

짜릿한 손맛, 느껴볼래?



모바일 비밀화보  
좀더 보고싶어?  
찍어봐~~



## 전략을 때리다! 수타 웹 게임 삼국야망

여기 수타면 같은 손맛을 자랑하는 전략 웹 게임이 왔다.



**1 손 싹 틈을 안 주네**  
전투 모드에 돌입하면 한숨 자고 와도 시원찮을 지루함을 선사하는 기존 웹 게임과는 다르다. <삼국야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장수의 병과 및 스킬을 활용해 전투 모드에서도 마치 자신이 군주가 된 듯 현장감 넘치는 전투를 할 수 있다. 총 9종의 진법, 최대 6명의 장수를 자유롭게 조합해 제갈량도 지릴 만한 전략을 펼쳐보자. 물론 니 머리가 좋다면.



**2 신 본격 장수 수집 및 퓨전 시스템?**  
<삼국야망>의 장수는 1~9성 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능력치가 높으며, 장수 조합 시스템을 활용해 낮은 등급의 장수를 높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주점은 장수의 주요 서식지나, 등용을 위해서 말로만 듣던 삼고초려를 시도하자. 영웅호걸은 술을 즐긴다고 하지 않았던가.



**3 현대전보다 훨씬 복잡 정교한 병과 시스템**  
장수들은 물리, 계략, 혼합의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속성에 따라 총 34종의 병과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병과에 따라 전투에서 다양한 전략을 펼 수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소총수만 가득한 현실보다 훨씬 다이내믹하지.



**4 웹게임의 생명은 역시 실시간 플레이**  
<애니팡>이나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모바일 게임 붐에 발맞춰 <삼국야망> 역시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출퇴근길을 비롯해 24시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빙판길에서 플레이하다간 이승 탈출 넘어원 짝기 십상이니 주의하자.

**순금 도끼 이벤트 진행 중!**  
가입자 전원에게 Daum 캐시 공짜로 주는 것도 부족해 순금 도끼를 준다? 금도끼 산신령은 동화 속에만 있는 줄 아시나? 궁금하면 바로 접속해보자!

## 기상천외 온라인 게임 마케팅

게임성만으로 승부하는 세상은 쏘나 옛날에 끝났어.



그러게 이 사람들아, 게임 필요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미녀 모델로 유저를 끌어모은 후, "더 벗은 걸 보고 싶으면 렘업을 하던가?"라는 낚시질 시스템을 차용해 유저들의 분노를 샀다. 물론 유저들의 렘업 열정을 확실히 부추기는 데는 성공했다. 게임사는 먼저 렘업을 달성한 유저들이 기뻐하며 수확물을 갠스할 줄 알았겠지만, 분노한 고렘들은 '더 벗은'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려버렸다. 이제는 고렘 전용 화보가 구글 검색만 해도 쏟아져나온다. 렘업 떡밥 상실.

### 레전드 오브 소울즈

'7혼 카드'라는 유희왕 돌는 시스템을 차용, 마치 D&D(던전 앤 드래곤)를 하듯 다양한 카드를 수집 및 조합해 업그레이드된 카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전작인 <세븐소울즈>에서 선보인 시스템인데, 차기작인 이 작품에 그대로 전승해 유저들의 호평을 받았다. 운영자가 전장에 자주 보인다든 점도 재미있다. 물론 "포션 좀 주세요." "아침 좀 주세요." 하고 조르면 니 캐릭을 삭제해주겠지.



### 명품온라인

성급한 유료화의 오류를 저지른 제작사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유저 수에 현기증을 일으키고 본격 무료화를 결정했다. 중국산 게임의 로컬라이징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초반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유저들도 많았다. 하지만 무덤 콘셉트에 더없이 어울리는 경공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물론 이런 놀라운 시스템보다 더 놀라운 맵 크기를 자랑해 경공이고 나발이고 다 묻혀 버렸지만.



### 이벤트도 대륙의 스케일

전례없는 성형 이벤트를 걸어 유저들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았다. 아마도 '명품>강남>성형 수술'이라는 연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캐릭터 생성시'라는 조건을 단 것을 보면 캐릭터를 생성한 뒤 거울을 보며 유저들이 느꼈을 자괴감을 달래주기 위한 배려 동은 이벤트가 아닐까 싶다. 심지어 추가 이벤트에서는 '아파트 2년 입주권', '포르쉐 1달 이용권'도 걸었다. 이름 값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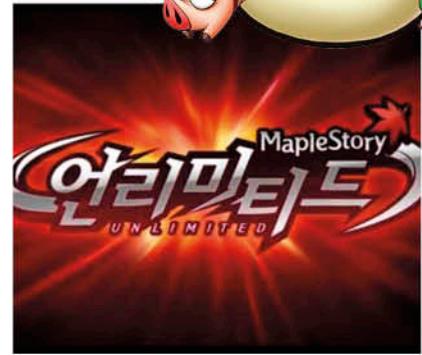
### 캐릭터를 생성한 자, 신성형으로 변신하라!

명품 온라인 캐릭터를 생성한 후, 전신성형이 필요한 사면을 무료로 보내주면서 추첨하여 전신성형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11.12.06(목) ~ 2011.12.31(목)  
대상: 2011년 12월 31일까지 명품온라인에 회원가입하신 모든 고객  
인근 예약이 가능한 고객만 적용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2012년 01월 05일 / 홈페이지 & 개별공지

42번 포스트 책임 부장: gsdn@marbleking.co.kr  
서울 포스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00-100 명품온라인

※ 본 이벤트는 1인 1회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선착순 신청으로 신청하신 고객은 당첨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서울 포스트는 신청하신 고객에게 당첨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당첨을 위하여 본인에게 신청하신 포스트를 꼭 확인하십시오.  
- 당첨자를 선정할 때 본 이벤트의 취지에 맞는 고객으로 선정됩니다.

캐릭터 성형으로 착각한 유저들도 많았지만.



### 메이플 스토리

만년 초딩 게임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국민 게임 <메이플 스토리>. 하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012년 12월 6일까지 <메이플 스토리>는 총 7차에 걸친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였다. 이 정도면 <WOW> 부럽지 않다. 수십 개 클래스의 귀요미 캐릭터들이 전장을 휘저으며 버섯, 나무, 펭귄 등 깜찍한 몬스터들을 가차 없이 썰어버리는 캐주얼 게임의 본좌!

### 누가 버스에 낙서를 끼었나?

9주년을 맞아 이들이 준비한 이벤트는 '내가 제일 발그림'. 이미지 탈피 따위 안중에도 없던 그들은 "이렇게 된 이상 시내버스로 간다"라고 외친다. 게임사 직원은 모두 고학력이라는 루머를 무색하게 만드는 연령 측정 불가 수준의 발그림은, 그렇게 시내버스 측연에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이 광고는 손주 딸린 노인분들의 미소를 자아내는 한편 중고딩들의 비웃음을 크게 샀다. 벅스 마케팅팀장은 과연 웃음을 지었는지 궁금하다.



분명 회식 후 야근하며 구상한 이벤트임에 틀림없다.



### 아란전기

〈WOW〉를 떠올리는 인터페이스 창과 그래픽이 유저들의 이목을 끌 만하다. 독특한 시스템을 자랑하기보다는 무난한 MMORPG랄까. 기본적으로는 무협을 틀을 지니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한 판타지 풍 복장이 자아내는 풍취가 독특하다. 다만 〈블앤소〉나 〈퀸스블레이드〉처럼 캐릭터 디테일을 좀 살리는 게 어땠을까 싶다. 요즘은 캐릭터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게임이 워낙 많으니까 말이다.



맨 뒤에 있는 누니들은 분명 안 예쁠거야.

### 하렘을 꿈꾸는 유저들을 노렸다.

그래서 그들은 90명의 여자 모델을 섭외했다. 하도 많아서 웬지 모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는 누나가 한두 명쯤 있을 것 같다. 게임계의 〈슈퍼스타 K〉를 표방했는지, (모델들에겐) 잔혹하게도 TOP 3 모델을 뽑아 유저들과 데이트를 하도록 하는 과감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온라인 게임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회원 가입 버튼을 광클 할 법하다.

### 드라코나 온라인

중국의 온라인 게임 〈천존협객전〉과 대만의 〈X-LEGEND〉를 국내에 퍼블리싱한 바 있는 라이브블렉사의 첫 번째 자체 개발작. 특이하게도 온라인 게임 최초로 '빙의 시스템'을 도입. 간지 터지는 용으로 빙의한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나 조상님으로 빙의하면 재미있었을 텐데... 신체 각 부분이 따로 빙의해 부위별로 능력치가 각각 다르게 상승한다. 잘 응용해 특정 부위까지 용으로 변신했다면 진정한 '대물' 게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 역대급 홍보 모델 소리 아이오이

아마 게임사들이 홍보 모델에 본격적으로 경쟁심을 불태우기 시작한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당시 네이버 메인에 뜬 '뒤치기를 조심하라'는 민망하고도 발칙한 문구와 눈을 의심케 하는 모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벤트 화보에 코스프레를 하고 등장한 소리 아이오는 마치 용이 숨가에 빙의한 듯 위엄을 뽐냈다. 다음엔 유마 아사미 좀 어떻게 안 되겠니?



### 온라인 게임 사건 사고 유저들이라도 정상일 줄 알았건만...!



### 도박 판사

작년 6월,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용의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5명의 판사 중 한 명이 재판 도중 온라인 카드 게임을 하다가 걸렸다. 재판소 측은 "다른 사람과 집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랄한다.



### 알면 시작도 안 했지

2010년 8월 미국 히와이에서 〈리니지 2〉를 이용하던 크래그 스몰우드는 6년간 리니지를 하느라 씻지도 못하고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도 줄었다며 엔씨소프트 측에 300만 달러 배상을 청구했다. 추측컨대, 엄청 비싼 아이템을 강화하다 실패해 접으려고 한 게 분명하다. 내가 그랬거든.



### 모방 범죄도 가지가지

작년 8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서 취객을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 사건을 일으킨 10대 5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막장 범죄 게임 〈GTA 4〉를 따라한답시고 오토바이로 신호 위반, 역주행 등 난폭 운전과 폭행을 일삼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미션 실패!



# Fight



우와, 첫꼭지도 깨질네...

## ROAD FC 010 In Busan

국내 메이저 종합격투기 대회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대회 전부터 많은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모은 로드FC 10번째 대회가 지난 11월 24일 부산 벅스코에서 열렸다. 거친 남자들의 도시 부산에서 타오른 파이터들의 불꽃 대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 10번의 도전, 10번의 기적

3년 전,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UFC같은 종합격투기 대회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링이 아닌 케이지를 도입한 '케이지 파이터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종합격투기 팬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2010년 10월, 드디어 첫 번째 경기가 열렸다. 300여 석 규모의 작은 경기장에는 미국의 UFC 중계 방송으로 종합격투기에 대한 감증을 달래던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것이 로드FC의 시작이었다. 2008년, 스피릿 MC가 도산하고 갈 곳을 잃은 종합격투기 팬들에게 2010년 로드FC의 등장은 희망이자, 등불이었다.

로드FC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합격투기 대회다. 지난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10번의 대회를 열었다.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정규 대회를 개최하고 케이블 방송 XTM을 통해서 생중계 된다. 2주에 한 번씩 대회가 열리는 UFC 만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격투스포츠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수준이다.

매 대회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데니스 강, 멜빈 마누프, 밥 샵 등의 세계적인 선수를 불러들여 관중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또한, 싱가포르의 ONE FC, 일본의 판크라스, 필리핀의 URCC 등 전세계 파이터링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의 숨은 강자들을 영입해서 경기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라이트급 토너먼트 4강에 출전한 쿠메 타카스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로드FC는 더 이상 국내 선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회 규모 면에서나 선수들의 인지도 면에서나 이미 아시아 정상권으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이터들의  
편치 쇼!



### THE 1st MATCH 미들급

박정교 vs. 류경관

박정교, 1라운드 2분 33초 기무라 룩 서브미션승!



### THE 2nd MATCH 라이트 헤비급

육진수 vs. 카나메 오오아키

육진수, 2라운드 36초 파운딩 레프리 스톱으로 TKO승!

〈슈퍼스타K 4〉출연, 그리고 로드FC 009 미노와맨전의 패배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았다는 육진수의 절치부심이 돋보였다. 1라운드 막판 10여 초를 남겨둔 상황. 저들적으로 달려드는 육진수에 카나메 오오아키는 거의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2라운드가 시작됐지만 시작 휘슬과 동시에 퍼붓는 육진수의 난타에 36초 만에 승부가 결정됐다. 카나메를 넘어뜨려서 니키크와 파운딩을 연속으로 퍼부었고 카나메는 경기를 포기했다. 확실히 미노와맨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파워풀한 경기를 보여준 육진수를 향한 관중들의 함성 소리도 뜨거웠다. 팬들이 격투기 선수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파이터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이다.



### THE 3rd MATCH 라이트급 토너먼트 4강

윤철 vs. 쿠메 타카스케

쿠메 타카스케, 1라운드 2분 19초 리어네이키드초크 서브미션승!



팀포마의 수장이자 김대환 해설위원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윤철과 다음 경기 가장 유력한 챔피언 후보로 거론되는 쿠메 타카스케의 대결. 쿠메가 나타나자 경기장 구석 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일본 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일제히 일장기를 꺼내 들고 '간밤때'라고 귀엽게 외치는 모습이 흡사 아이돌 팬의 그것과 같았다. 그라운드로 윤철을 넘어뜨린 쿠메는 초크, 파운딩, 그리고 다시 초크 공격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사실 윤철은 건강상의 문제로 시합을 뛰지 못하게 된 이용재를 대신해 경기에 투입된 것. 모두가 상대하기 꺼리는 쿠메를 상대로 흔쾌히 YES를 외치고 케이지에 오른 그의 패기에 팬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 Fight

로드FC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은  
누구?



남의철 (31세, 한국)	VS.	쿠메 타카스케 (27세, 일본)
175cm, 70kg	신체	170cm, 70kg
코리아 불도저	별명	초크왕
맷집, 객기, 타격	특징	포커페이스, 서브미션

아시아 최강을 노리는 쿠메와 근성과 테크닉을 동시에 갖춘 남의철의 대결의 승자는 로드FC 11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HE 4th MATCH 라이트급 토너먼트 4강

남의철 vs. 뷰실 콜로사

남의철, 2대 1 판정승! (27-30, 30-27, 30-27)

'청소년 폭력 예방 팀파시가 응원합니다'라는 거대한 현수막을 뒤에 내걸고 등장한 남의철. 말하지 않아도 '폭력쓰면 이형한테 죽는다'는 포스가 절로 풍겼다. '상남자' 남의철과 '타격강자' 뷰실 콜로사의 대결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화끈한 경기였다. 1라운드에서는 남의철이 난타전을 유도하면 뷰실이 이를 능숙하게 방어했다. 2라운드에서 남의철이 선보인 리어네이키드초크와 암트라이앵글초크로 뷰실의 체력에 눈에 띄게 저해했다. 3라운드에서 남의철은 뷰실을 테이크다운 시켰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고 정면 타격전이 시작됐다. 타격전에서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펀치를 주고 받았다. '라스트 10초'라는 세컨드의 외침에 남의철이 마지막 펀치를 내던졌다. 결과는 2대 1로 남의철의 역전승. 이로서 다음 대회에 있을 라이트급 토너먼트 결승전은 쿠메 타카스케와 남의철의 대결로 확정됐다.





**THE 5th MATCH**  
**-97.5kg급 계약체급**  
 제프 몬슨 vs. 강동국  
 제프 몬슨, 3대 0 판정승!  
 (27-30, 30-27, 30-27)

↓  
**현재  
 로드FC 챔피언은  
 누구?**



	강경호 (26세, 한국)	이은수 (31세, 한국)
체급	밴텀급(-62kg)	미들급(-84kg)
타이틀 획득	2012년 6월 16일 (로드FC 008 Bitter Rivals)	2012년 11월 24일 (로드FC 010 in Busan)

\*강경호는 UFC 진출로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한 상태다.



**THE 6th MATCH 미들급 타이틀전**  
 오야마 쉰고 vs. 이은수  
 이은수, 1라운드 2분 48초 펀치 이은 파운딩 TKO승!

지난해 토너먼트 8강전에서 데니스 강을 무너뜨리고 왕좌에 오른 오야마 쉰고의 미들급 타이틀 방어전. 이에도전하는 상대는 스피릿 MC 헤비급 초대챔피언 출신 이은수였다. 국내 1세대 종합격투기 파이터인 이은수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10년 전 프라이드 열풍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팬들을 흥분시켰다. 탐색전은 생각만큼 길지 않았다. 이은수의 오른손 펀치가 오야마의 턱에 꽂히자 오야마는 그대로 쓰러졌고 이은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이트 훅과 파운딩을 퍼부었다. 그야말로 번개처럼 빠른 펀치 러시에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이번 승리로 이은수는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걸었다. 9년 만에 국내시합 챔피언에 도전한 '원조 아수'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



# Fight

## UFC

주니어 도스 산토스의 주먹이  
웨인 가윈의 면상을 찢고 있다.

## MMA를 대표하는 강타자 TOP 30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통렬하게 이기는  
세계 최고의 강타자 랭킹!

배짱 있음  
찍어봐!



경기인들(경기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즉 선수와 지도자들에게는 승리 이외의 것은 사실 사치다. 가능한 한 최적의 방식으로 경기에 대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경기에 적용해 이기는 것이 전부다. 그렇지만 쇼 비즈니스인 프로스포츠는 '어떻게 이기느냐, 말하자면 승리의 '인상'에 높은 값어치를 매긴다. 파워 넘치는 레슬링도 좋고 심오한 그라운드/서브미션도 알고 보면 굉장히 불만하다지만 절대다수의 팬들이 요구하는 장면은 역시 통렬한 KO 피니시다. 복싱의 타이슨이나 kick복싱의 피터 아츠, MMA의 척 리델 등 상대를 강하게 때려눕히는 능력이 탁월한 파이터들은 언제나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두둑한 대전을 받았다. 클린치와 던지기, 그라운드 기술이 허용되는 종합격투기 환경상, KO승을 만들기란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이 종목에서 KO 피니시를 연출하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은 매우 특별하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종합격투기를 대표하는 하드 히터 TOP 30명을 소개한다. 선정 기준은 전성기 때의 스피드, 파괴력, 타격 스킬, 지구력, 멧집이 기본이며 그레플링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했다. 과거 선수의 경우 그 선수가 활동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했고 레전드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선구적 업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높은 랭킹을 주었다.

**30 탱크 애봇**  
스피드: 60 파워: 80 스킬: 30  
지구력: 30 멧집: 70 그레플링: Poor



'탱크' 애봇이 인기를 끈 이유는 막강한 펀칭 파워와 거친 태도 덕분이었다. 그는 무술을 배우지 않은 순수 싸움꾼이었고 시비가 붙으면 일단 주먹부터 휘둘렀다.

무술에 대한 반감을 자주 드러낸 그는 "검정색 천포가리를 허리에 두르고 으스대는 놈들을 때주러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 UFC 가 없었다면 아마도 감방에서 썩고 있었겠지. 고마워 UFC."

**28 고미 타카노리**  
스피드: 80 파워: 80 스킬: 60  
지구력: 60 멧집: 80 그레플링: Average



1998년 슈토에서 데뷔한 고미는 강력한 펀치력을 자랑하는 KO 이티스트로 성장했다. 2003년 프라이드에 데뷔한 타카노리는 KO 행진을 거듭하면서 프라이드

라이트급(-77kg)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왼손잡이인 고미의 주부는 왼손 오버핸드였지만 오른손도 무시할 정도로 강했고 스위치 스탠스도 자주 구사했다. 멧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치고받는 흐름에서는 더욱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29 브록 레스너**  
스피드: 70 파워: 80 스킬: 30  
지구력: 60 멧집: 80 그레플링: Good



2007년 MMA에 데뷔한 레스너는 레슬링과 그라운드 이외에도 펀칭에 굉장한 재능을 보였다. 의외로 핸드 스피드가 좋고 리치도 길며

파워도 대단했다. 프랭크 미어라든지 히스 헤링 같은 베테랑에게 강력한 한 방을 꽂고, 랜디 커투어를 원투 스트레이트로 잠재우는 모습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불행히도 질병과 기타 여러 문제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기대만큼 피어나지는 못했다.

**27 멜빈 마누프**  
스피드: 90 파워: 90 스킬: 70  
지구력: 60 멧집: 60 그레플링: Poor



최근 국내 로드 FC에도 등장한 바 있는 '사람 잡는 타격가' 마누프는 kick복싱 명문 골든 글로리 소속이며 타격 능력과 KO 율로는 세계 최고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파워를 갖췄으며, 본편 kick복싱은 타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선수들에게겐 재앙 수준이다. 특기는 강력한 양 후속 전면에 내세운 몰아치기. 체력과 그라운드의 약점 때문에 대성하지는 못했지만 팬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26** **로이 벨슨**  
 스피드: 80 파워: 80 스킬: 70  
 지구력: 80 멧집: 90 그래플링: Good



콩푸 파이터로 알려진 로이 벨슨은 사실은 복싱과 주짓수를 기반으로 싸운다. 멧집이 워낙 좋아서 웬만한 공격은 건널 수 있고, 카운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탠딩에서 불만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기는 라이트 오버핸드. 비만한 체형에 비해 무척 날카롭기 때문에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 기본적으로 많이 얻어맞는 동남이지만 순간 엄청나게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 방을 터뜨려 경기를 끝낸다. 게다가 복부의 두터운 지방층은 패딩 점퍼를 몇 겹 껴입은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5** **웨인 카윈**  
 스피드: 60 파워: 100 스킬: 60  
 지구력: 60 멧집: 90 그래플링: Good



카윈의 MMA 데뷔는 2005년, 그가 31세이던 때다. 5년만 빨랐다면 그는 종합격투기의 '조지 포먼'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UFC에서 가장 큰 글러브를 사용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몸도 매우 크다. 멧집도 강하다. 현 헤비급 챔피언 도스 산토스와와의 경기에서 그는 얼굴이 걸레가 되도록 맞으며 3라운드를 버텼다. 펀칭 파워 면에서는 MMA 20년사를 통틀어 수위를 다룰 수준이다. 그냥 스쳐도 KO, 제대로 걸리면 병원행이다. 가브리엘 곤자자와와의 경기에서도 오른손 카운터 딱 한 방으로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었다.

**24** **조니 헨드릭스**  
 스피드: 80 파워: 100 스킬: 80  
 지구력: N/A 멧집: N/A 그래플링: Good



사진만 봐서는 어디 시주하러 다니는 수도승인가 싶겠지만, UFC 웰터급에서 활동하는 조니 헨드릭스의 왼손 오버핸드는 핵폭탄급이다. 존 피치와 마틴 캠프만 같은 선수들은 웬만해선 KO시키기 힘든 상대인데 둘 다 헨드릭스를 상대로는 한방에 나가떨어졌다. 헨드릭스는 아직 경력이 일천하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파워 펀처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선수다.

**22** **다니엘 코미어**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70  
 지구력: 60 멧집: N/A 그래플링: Good



UFC 외부의 헤비급(스트라이크 포스) 중 최근 가장 앞서 있는 선수. 올 5월에는 비 UFC권의 최강자 조시 바넷을 판정으로 잡았다. 그의 펀치는 흑인 특유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막대한 파워가 동반되는 보기 드문 진품. 느리거나, 타격의 방어 체계가 부실한 선수에게 그는 재앙이다. 전공이 레슬링이라 클린치, 테이크다운, 그라운드에도 강하다. 다만 헤비급에서 활동하기에 키가 다소 작다. 얼마 전 스트라이크 포스가 해산하면서 자연스럽게 UFC로 진출했다.

**21** **이고르 보브찬친**  
 스피드: 80 파워: 80 스킬: 80  
 지구력: 70 멧집: 80 그래플링: Average



킥복서 출신으로 1995년 MMA에 데뷔한 이고르 보브찬친은 일세를 풍미했던 타격의 대가다. 일본에서는 그에게 '북의 최종 병기'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었다. 이 선수는 아수 같은 양손 연타와 강력한 미들킥의 연결이 좋다. '러시안 흑'이라고 불린 라이트 오버핸드도 일품이었다. 보브찬친의 고향에서는 그가 술을 마시면 때 교회에서 종을 쳐 마을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을만큼 난폭한 인물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것은 헛소문이라고 한다.

**23** **정찬성**  
 스피드: 80 파워: 8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90 그래플링: Good

정찬성은 국내에서보다 미국 본토에서 더 잘 알려진 인기인이다. 그의 파괴력은 배짱에서 우러나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살기가 하늘을 찌르는 난타전에서 위력을 발하는 그의 냉정한 타격 시스템은 다소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격하다. 대전료보다 특별 포상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 챙기는 정찬성은 페더급의 차기 챔피언 도전자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다. 그는 곧 한국인 최초로 UFC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하게 될 전망이다.



코리안 울비의 화끈한 경기는 서양 격투기 팬들에게도 큰 인기다.

**20** **안드레 알롭스키**  
 스피드: 90 파워: 8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50 그레플링: Good



MMA에서 복싱을 아주 잘 활용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알롭스키. 그는 부드럽고 경쾌한 발놀림으로 유리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길게 뻗는

잡과 스트레이트를 활용해 안정적인 타격전을 벌이는 데 일가견이 있다. 본인보다 작은 선수, 느린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것이 알롭스키의 특징. 로이 넬슨과 벤 로스웰은 거의 KO시키기가 불가능한 선수들인데, 알롭스키는 이 둘을 KO시킬 만큼 우수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다만 빠르거나 자신보다 큰 선수들에게는 약점을 보인다. 이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잘 알려진 대로 내구력이다. '두부턱'이라는 별명처럼 앞서나가다가도 단 한 방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자주 연출한다. 가장 단적인 모습이 표도르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공중 실신 장면이다.

**19** **세르게이 하리토노프**  
 스피드: 70 파워: 9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Average



복싱 하면 하리토노프도 빼놓을 수 없다. 하리토노프는 알롭스키처럼 깔끔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정면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을 즐기는 타입.

멧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두 대 맞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한 대를 맞으면 두세 대로 갚아주는데 충실한 타입. 이 선수는 펀치를 빠르게 휘두르거나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정확하고 간결하며 묵직하게 지속적으로 펀치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특기는 보디를 섞은 콤비네이션. 테이크다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좋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평범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18** **마크 헌트**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90  
 지구력: 70 멧집: 90 그레플링: Poor



현 종합격투기계에는 K-1 월드 그랑프리 우승자가 2명 있다. 오브레임(2010)과 마크 헌트(2001)다. 헌트는 K-1 및 킥복싱계에서 30승 13패 13KO

승을 거두고 2004년 MMA로 전향하지만 표도르, 조시 바넷, 오브레임 등의 베테랑과 붙는 바람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최근의 헌트는 3연승을 기록 중이다. 크리스 테세이라전에서 결정타를 터뜨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명장면을 연출했고, 벤 로스웰을 3라운드 내내 두들겨 줌비로 만든 후, '수문장' 칩 광고도 늘렸다. 광고도 나름대로 UFC에서 먹어주는 타격가지만 K-1 WGP 우승자의 타격은 결이 달랐다. 키가 작고 뚱뚱해서 느껴 보이지만 그는 굉장히 빠르며 펀치는 좌우 모두 매우 정확하고 위력적이다. 그라운드에서의 약점, 체력 문제, 마흔에 가까운 나이 등은 그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 챔피언이 타격 전문가인 산토스이므로 헌트를 타이틀전에 기용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카드가 될 거라고 말한다.

**17** **비토 벨포트**  
 스피드: 90 파워: 80 스킬: 70  
 지구력: 60 멧집: 70 그레플링: Good



1998년 UFC 브라질에서 반다레이 실바를 격침시켰던 그의 피스톤 스트레이트 연속타는 UFC 하이라이트에 자주 나오는 명장면. 주짓수

블랙 벨트이면서 왼손잡이 스탠스에서 나오는 초고속 레프트 파워샷을 구사해 KO율이 높다. 하나 단조로운 공격 옵션과 체력 문제, 잦은 부상이 언제나 그의 발목을 잡았다.

**16** **닉 디아즈**  
 스피드: 70 파워: 70  
 스킬: 80 지구력: 100  
 멧집: 100 그레플링: Good

디아즈는 체급대에서 장신이고 리치도 긴 편이다. 왼손잡이인 이 선수는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라이트 훅을 절묘하게 사용하며 보디 공격에도 능하다. 일격에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형태의 펀칭보다는 적당한 위력의 펀치를 끊임없이 쏟아내 서서히 명을 들이는 전략을 주로 구사한다. 많이 때리는 만큼 맞기도 많이 맞는데 좀비 멧집과 체력, 근성으로 버텨낸다. 얼핏 보기에 박력이 없어 보이고(사실 맥아리 없어 보임) 별로 강해 보이지 않지만, 닉 디아즈의 펀칭은 극도로 치명적이며 그와 정면에서 타격으로 상대했던 선수는 모두 처참한 역전 KO패의 제물이 되었다.



내 가까 내놔 내놔!



벨포트와 랭크 애벗(오른쪽)은 결국 처렛자세를 하지 못했다.



스트라이크 포스 시절의 닉 디아즈가 상대 에반젤리스타 산토스를 손보고 있다.

15

**바스 루튼**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80 그레플링: Average



MMA 타격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루튼은 판크라스에서 데뷔했다. 당시 판크라스는 주먹 안면 가격을 금지했다. 손바닥 가격은 허용했는데, 루튼은 손바닥으로

상대를 KO시키는 하드펀처였다. 4패는 선수 생활 초기에 당시 최고 선수들과 싸워서 당한 것이고 1995년부터 1999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19승 1무를 기록하며 일세를 구가했다. 킹 오브 판크라스(판크라스 무제한급 챔피언)이며 UFC 헤비급 벨트도 보유한 그는 펀치와 킥 모두 위력적이었다. 약간만 늦게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전설의 파이터다.



대머리 독수리 형님은 의외로 귀엽고 보드라운 걸 좋아한다.

14

**크로갑**

스피드: 90 파워: 90 스킬: 90  
지구력: 70 멧집: 70 그레플링: Poor



종합적인 경기력에서 크로갑의 수준은 챔피언 레벨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테이크다운에 대한 방어가 약하고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풀어갈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 그레플링에 대한 부담감이 언제나 크로갑의 의식 한편에서 집중력을 갉아먹었고, 이는 케빈 랜들만 전, 가브리엘 곤자가 전에서의 수치스러운 실신 KO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전성기 당시 그는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때려서 끝을 보려는 '타격가격 집착' 때문이다. 그의 특기인 왼쪽 하이킥은 업계에서 가장 화려한 기술로 통했다. 방어 능력이 어지간한 선수를 상대로 하이킥을 성공시키기는 아주 어렵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공격 타이밍을 잡았을 때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레프트 미들킥을 주중으로 상대의 방어를 교란시켰고, 상대가 왼쪽 미들킥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도중에 상단으로 올라오는 하이킥으로 바꿨다. 패턴이 단순하긴 했지만 스피드가 살아있던 시절의 그는 스탠딩에서만만큼은 몹시 위험한 선수였다.

13

**퀸튼 잭슨**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60  
지구력: 70 멧집: 80 그레플링: Good



퀸튼 잭슨과 척 리델, 반다레이 실바는 가위바위보 삼각관계를 만들었다. 잭슨은 리델에게 2전 2승 2KO승을 거두며 압도적이었지만 실바에게는

반대로 2연패 모두 KO였다. 리델은 끝물에 실바와 명승부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으니, 3명의 우열관계가 애매해져버렸다. 전성기 때 실바와 리델이 붙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고 게임이 종료된 것. 3명은 인기와 공헌도 역시 비슷하다. 잭슨은 프라이드에서 실바와 쇼군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타이틀을 놓쳤지만 UFC로 진출해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리델을 1라운드 KO로 때려잡고 벨트를 손에 넣었다. 힘이 굉장히 강하고 클린치에서 웬만해서는 테이크다운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집어 들어 메다꽃기 일쑤. 타격 능력은 공수 양면에서 잘 갖췄다. 특정 무술에 의존하지 않으며 보기보다 아주 영리한 싸움꾼이다. 입심이 좋아 미디어와도 친밀했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A 특공대>에 조연으로 발탁되기까지 했다.

12

**척 리델**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70  
지구력: 60 멧집: 80 그레플링: Good



리델은 최근 발표된 MMA 파이터 자산 순위에서 1,6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가라테를 했고 학창 시절에 레슬링도

경험했다. 그렇지만 이 선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키가 크고 팔이 길며 힘이 강하고 굉장히 사납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리델은 스스로 "카운터를 즐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카운터를 잘 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정교하거나 인내력이 강하지는 않다(전형적인 카운터 펀처인 료토 마치다는 리델에 비해 훨씬 신중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리델은 경기 전 스스로 난타전을 걸고 그 상황에서 카운터 일격의 찬스를 찾는 선수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재미가 매우 크다. 리델을 테이크다운 시키는 데 실패하고 그로 하여금 서서 주먹을 휘두르게 내버려둔 선수들 대부분은 험한 꼴을 봤으니까.

11

**반다레이 실바**

스피드: 80 파워: 8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UFC에서 리델이든 머시갱이든 국내 팬들에게 이 체급의 지배자는 프라이드 챔피언 반다레이 실바였다. 주먹과 니킥이 워낙 강력하고 사람을

팔 때 약간 웃을 때가 있어서 별명이 '도끼 살인마'다. '미소천사 실바'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프라이드 미들급(-93KG)을 칠권통치했다. 이 선수는 체급대에서 키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완력이 매우 강하고 손발이 매우 빠르며 펀치력도 좋다. 테이크다운 및 그라운드 방어도 매우 훌륭한 편이고 체력과 정신력도 대단해 전체적인 완성도면에서 당시 최고 레벨에 도달한 파이터로 손꼽힌다. 실바는 상대의 테이크다운 시도에 유익하며 접근해 상대의 타격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카운터 하면서 난타전을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난타전에서 쏟아내는 양쪽의 연속타에는 '붕붕훅'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론적인 면이나, 기술의 디테일을 따지면 결점이 있는 기술로 보였으나, 붙는 족족 상대가 먼저 녹아내리고 말았다.

10

**마우리시우 '쇼군' 후아**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쇼군은 힘이 아주 좋고 스피드도 나쁘지 않다. 디테일은 다소 부족하지만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그렇지만 쇼군의 특별한은 신체 능력이나

기술보다는 특유의 배짱, 혹은 정신력에서 비롯된다. 맞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풀스윙을 계속 날리는 선수. 상대의 카운터에 당해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끝까지 점명승부를 거는 타고난 공격수가 바로 쇼군의 진면목이다. 이기는 경기 중에도 명승부가 많지만 쇼군은 질 때도 대경기를 남긴다. 포레스트 그리핀과의 1차전, 맨 헨더슨과의 역사적인 혈전이 좋은 예다. 이제 나이가 슬슬 전성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감소하는 종이며 워낙 거친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있지만 그의 시간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09

**존 존스**

스피드: 90 파워: 80 스킬: 80 지구력: N/A  
 멧집: N/A 그레플링: Excellent



존스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키에 비해 매우 긴 편이며 체격에 비해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데다 스피드에 비해 힘 역시 굉장히 강하며 체력과 정신력이 좋다.

성격도 냉철한 편이고 두뇌 회전도 빠르다. 자고 나면 챔피언이 바뀌어 있던 혼돈의 체급 라이트 헤비급을 평정한 후 4명의 전 챔피언을 차례로 압도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히고 있는 그의 나이는 불과 25세(1987년생)다. 그는 데뷔 후 2년 10개월 만에 챔피언이 되었고 현재는 불과 4년 5개월 차다. 지금 당장 그가 구사하는 타격만으로도 체급대 최강이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다. 워낙 신체 능력이 특수하기 때문에 정석적인 공격도 뛰어나지만 보통 선수와 다른 형태의 변칙 공격에 강하다. 놀라운 건 그의 타격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거라는 것. 테이크다운 실력도, 그라운드에서 상대를 녹이는 능력도 탁월한 이 선수는 UFC 라이트 헤비급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가까운 미래에 헤비급 정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08

**비 제이 펜**

스피드: 90 파워: 90 스킬: 80  
 지구력: 70 멧집: 90 그레플링: Excellent



펜은 천재적인 주짓테로였다. 보통은 10년씩 걸리기도 하는 블랙벨트를 3년 6개월 만에 끝냈을 정도다. 그의 천재성은 주짓수에 국한한 것은 아니었다.

타격면에서도 비범하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능력과 타격에 힘을 실는 요령이 탁월했다. 그의 펀치는 상대의 안면을 난자하는 특성으로 유명하다. 클린히트가 터지면 거의 예외 없이 상대의 안면이 선혈로 물들었다. 가히 피바다의 모세이돈이라 할 정도로 자상과 출혈을 만드는 데 능숙했다. 상대의 피를 자신의 온몸에 처바르는 승리 퍼포먼스를 자주 선보이기도 했다.



비 제이 펜이 상대의 구강을 검사 중이다.

07

**댄 핸더슨**

스피드: 80 파워: 100 스킬: 7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보통 상대의 특기가 잘 알려져 있다면 그것에 충분히 대비하게 된다. 핸더슨의 오른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오승환의 돌직구를 일면서도 잘 못 받아치듯이 수많은 파이터들이 핸더슨의 그 뻘한 한 방에 희생당했다. 그의 오른손은 그만큼 특별하다. 무차별급 파이터 핸더슨은 미들급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마이클 비스핑을 박살냈고, 헤비급의 표도로를 상대로 KO승을 거두었으며, 라이트 헤비급의 전 챔피언이자 최상위 랭커 중 한 명인 쇼군을 꺾었다. 체급 간 체중 차가 매우 심한 MMA에서 3체급에 걸쳐 싸울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다. 1970년생, 올해 43세인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믿을 수 없다.

06

**에밀리아네펬 표도르**

스피드: 100 파워: 80 스킬: 8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작은 체구의 이점은 스피드에 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큰 상대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표도르의 타격은 그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수준 높다. 공격 옵션은 단순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파고들어 버락 같은 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수많은 선수가 그 단순한 오른손, 왼손 훑에 나가떨어졌다. 전성기 표도르에게 다양한 테크닉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스탠딩 타격에서 클린치-테이크다운-상위 포지션 점령이 울 흐르듯 이어졌고 화려하고 정확한 파운딩도 당시 격투계를 대표하던 절기였다. 표도르는 경기 시작 전과 끝난 직후에는 매우 차분했다. 등장 신에서 쇼오프나 열정적인 승리 세리머니 같은 것은 표도르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그의 이러한 일면은 극도로 공격적이며 박력있는 그의 경기 스타일과 강한 대비를 일으키며 경기를 지켜보는 격투 팬들로 하여금 오줌을 지리게 만들었다.

05

**케인 벨라스케즈**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80  
 지구력: 100 멧집: 90 그레플링: Excellent



벨라스케즈는 평균적으로 1분에 7.47대를 때린다. 이 부분의 UFC 통산 1위다. 이제는 스탠딩에서도 펀치-킥 콤비네이션을 상당히 훌륭하게

구사한다. 물론 아직 톱 레벨 타격가와 스탠딩에서 호선을 둘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이 산토스와 벌인 1차전에서 1라운드 KO패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단위시간당 적중률과 총격전달량이 극도로 높은 벨라스케즈의 파운딩은 치명적이다. 그라운드에서 파운딩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위 상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포지션 생탈전을 걸어오고 틈만 나면 서브미션을 노리기 때문에 상위에 있다고 마음먹은 대로 파운딩을 꽂을 수 없다.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선수들 대부분은 체력 인배를 위해 상위 포지션에서도 신중하다. 벨라스케즈는 체력 면에서 헤비급 역대 최고 수준이다. 스테미나의 우위를 바탕으로 융단폭격을 연상시키는 파운딩을 쏟아내는 그에게, 안토니오 실바쯤 되는 터프한 파이터도 피투성이가 되어 TKO패했을 정도니까.

04

**알리스타 오브레임**

스피드: 80 파워: 90 스킬: 100  
 지구력: 70 멧집: 60 그레플링: Good



2010 WGP우승자이며 스트라이크 포스, 드림 헤비급 벨트를 보유한 오브레임은 최근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이 드러나

금지에 몰렸다. 스테로이드 빨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그가 가장 좋았던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브레임은 정말 엄청난 선수다. 무에타이-킥복싱에 대한 숙련도가 극히 높기 때문에 잘 때리고 방어도 잘한다. 공격 옵션이 다양하고 위력은 두말하면 잔소리. 특히 무지막지한 완력으로 상대를 붙잡으며 구사하는 클린치 니킥의 위력은 가뭇갈 만하다. 그렇지만 체력에 문제가 있고 멧집도 조금 아쉽다. 내년 2월 3일 UFC 153에서 오브레임은 안토니오 실바를 상대로 컴백한다.



오브레임의 내장 파괴 니킥 하지만 부르스 추는 것 같기도?

03

###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

스피드: 90 파워: 90 스킬: 9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산토스의 주먹 솜씨는 헤비급 역사 통틀어 수위를 다룬다. 체구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이고 양손 모두 다 위력과 기술 면에서 우수하다. 웨인 카윌이나 미르코

크로킵, 길버트 아이블 등에게 위력적인 클린히트를 몇 차례 얻어맞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정도로 멧집도 엄청나다. 그렇다면 산토스가 마크 헌트나 세르게이 하리토노프 같은 타격 스페셜리스트와 붙으면? 일각에서는 '산토스가 레슬링-그라운드로 상대를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상대의 타격이 거슬릴 때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타입의 선수였다면 크로킵전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타격전만이라면 크로킵의 타격은 아직 매서운 데가 있었고 수많은 선수가 크로킵을 만나면 초반에 그라운드에서 힘을 빼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산토스는 크로킵과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 타격전을 펼쳤다. 상대가 누구든 산토스는 타격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산토스는 2012년 12월 30일 케인 벨라스케즈와 2차전을 벌인다

02

### 호세 알도

스피드: 90 파괴력: 90 스킬: 100  
지구력: 8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모든 선수의 체급이 같다고 가정할 때 '인류 최강의 타격가'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호세 알도는 완성도 높은 타격 스페셜리스트다. MMA에서

타격이 꽃피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파워, 기술뿐 아니라 그라운드 전문가, 레슬러의 클린치 및 테이크다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알도는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선수다. 경기 스타일 역시 이상적이다. 시작은 신중하고 빈틈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공격하며 기회를 잡으면 매섭게 몰아쳐 승통을 끊어버리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라이트 스트레이트와 로키는 적중률과 파괴력 면에서 매우 균형이 잘 잡힌 대기술이며 몰아칠 때 연속타의 RPM과 시간당 타격력 전달량도 체급대 역사상 최고다. 86년생으로 아직 26세인 알도의 미래는 광장하다. 알도는 라이트급에서 내려온 전 챔피언 프랭키 에드가와 대전을 앞두고 있다(2월 3일 UFC 156). 이 경기에서 알도가 에드가를 꺾는다면 라이트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 저는 척 하지 마.

신에게 도전하는 자의 말로는 처참하다.

01

### 앤더슨 실바

스피드: 100 파워: 100 스킬: 100  
지구력: 90 멧집: 90 그레플링: Good

이미 입신의 경지에 들어섰다. 언젠가부터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킥과 펀치는 대충 묻기만 해도 상대가 픽픽 쓰러진다. 가볍게 툭툭 끊어 치는 것 같은데도 상대가 뺄 걸 보면 내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혹은 장풍을 쏘거나 실바는 브라질 버거킹의 모델이고 최근엔 나이키와도 계약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실바는 격투기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는 UFC 최다 연승과 최다 방어전 기록 보유자다. 수년째 P4P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멧집 좋고 끈질기며 단 한 번도 KO패한 적이 없던 스테판 보너를 첫 라운드에 분쇄했다. 실바도 초반에는 고난이 많았다. 무명 시절도 길었으며 한때는 운동을 그만두려 한 적도 있을 만큼 힘든 시절을 버티고서 실바는 지금의 영광을 맞이한 것이다.

# The One Only and Painting

한그림

고등학생, 불륜녀, 간호사, 심지어 안마방 에이스 역할까지 넘나들며  
(사랑과 전쟁 2)의 여신으로 등극한 연기자 한그림이 MAXIM에 강림했다.  
세상 어떤 미녀 스타도 발라버릴 듯한 외모를 하고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연예인 같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랑스러운 그녀를 이날 접신한 모든  
MAXIM 남자스태프들은 아직도 한그림 없이 중이다. (사랑과 전쟁)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리그 리그마켓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주연 ASSISTANTS 최동희, 최성호 LAYOUT 전은경

주의! 이 영상들  
보면 한그림과  
결혼하고  
싶어짐





**MAXIM 홈페이지에 당신을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는 거 알고 있나? MAXIM과의 촬영은 어땠나?**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지나갔다.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즐거웠다. 다만 요즘 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몸매가 통통해져서 좀 걱정이다.

**당신을 <사랑과 전쟁>의 안마방 에이스 '체리'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더라. 물론 드라마로 유명세를 탄 게 실진 않나?**

아주 잠깐 등장한 역할로 기억된다는 게 억울하다면 억울하지(웃음). 그렇다고 내용 때문에 억울하거나 아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노출이 많거나 불륜 소재의 드라마는 자제하라고들 하더라. 시작부터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굳어진다고.

**연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예전에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소개받은 거다. 아마 지금도 에이전시마다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을걸?

**그리고 보니 소속사가 없다. 이쯤 되면 소속사 하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요즘은 소속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던데 내가 워낙 낯가림도 심해서 좀

힘들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소개 좀...(웃음)

**매니저나 소속사가 없어서 당신을 미니홈피로 섭외했다. 방명록도 남기고 쪽지도 남겼다. 방명록에 있던 섭외 요청 글도, 쪽지도 모두 확인했다(웃음). 나처럼 열심히 확인하는 사람도 드물걸?**

**그래서인지 당신 미니홈피 방명록이 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군가 "예쁘다"는 글을 남기자 "이 맛에 싸이 한다"는 명언도 남겼는데?**

장난으로 한 말인데(웃음), 사실 모두에게 답글을 달아주고 싶지만,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핸드폰으로 일림을 받는 정도가 전부다. 누군가 글을 남기면 기억해 놔다가 '답변 달아줘야지'하고 생각하는데 종종 까먹는다.

**답글 다는 게 귀찮진 않나?**

최대한 답글을 달아주고 싶는데, 달다 보면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등등... 어떤 분은 "내 글에는 왜 답글 안 달아줘요!" 라고 하기에 "달아줬다"라고 남긴 적도 있다(웃음).

**스쿠터를 타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 미니홈피를 열람해보니 '또 스쿠터를 타고 싶다는 일기가 있더라. 그렇게 스쿠터가 좋은가?**

딱히 좋은 건 아니고 편해서 타는 거다. 얼마 전에도 타고 가다가 택시 문에 박은 적이 있다(웃음). 하지만 동네를 배회하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땐 얼마나 편한데! 대중교통보다 훨씬 편해서 전용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다. 운동하기 싫어하는 거 너무 티 나나?

**특이한 별명은 없나?**

특이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듣는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애 붙잡고 안 놔주기도 하는 등 초딩 같은 장난을 많이 친다고 '초딩', '애기'같이 유치한 별명으로 불렀다. 친구들이 나를 애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어른인데!

**예쁜 외모와 미니홈피 글들이 화자되며 '일베여신', '개념녀'로 등극했다. 당신도 당신이 예쁜 걸 아나?**

20대 초반에는 생일에도 자신 있을 정도였다. 사실 그땐 화장을 잘 못했거든(웃음).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화장 기술이 늘어서 지금은 꾸미지 않으면 별로인 것 같다.

**겸손이 지나치다. 누구는 산다라 박, 구혜선, 강지영을 합쳐 놓은 외모라고 하더라.**

내 외모에 관한 기사가 처음에 그렇게 낯지? 본 적 있다. 나로서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다.



빈티지 콘솔테이블  
더올드시네마  
가디건 데님앤서플라이  
구두 슈즈원  
러그 러그마켓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형 미인이다.  
아나운서로 전향하는 건 어떤가?  
말하는 게 어눌해서 아마 힘들 거다.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 바보같이 웃는다고 어디 가서  
웃지 말라고 구박받기도 했다(웃음).

한국외대 언어인지학과라니, 원래부터  
연기자가 꿈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에  
연기를 시작했다. 일반 회사에서  
온종일 똑같은 일만 하며 살기는  
싫었다. 연기는 그런 면에서 좋은 직업  
같다. 나이 들어서도 재밌게 할 수  
있잖아.

평범한 문과대에서 당신 같은 비주얼로  
학교 생활하기가 꽤 피곤했을 것 같다.  
오빠들이 최근대지 않았나?  
전혀 없었다. 단체생활을 잘 안 했거든.  
조용히 학교에 다닌 것도 모자라  
수업을 주 2회로 몰았으니까(웃음).

역시 그렇군. 예쁜 사람들은 의외로  
연애를 잘 못한다더니. 당신도 그런가?  
유도질문이다(웃음) 아직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어서 연애를  
잘 모른다. 최근에 아는 언니 소개로  
유학파 의대생을 만난 적이 있다.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지극정성으로  
대시해 마음이 흔들려 사귀었다.  
하지만 8개월 전쯤 헤어졌다. 장거리  
연애였던 데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난  
80세가 돼도 너랑 손도 안 잡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하곤 했거든.

지금 당장 연애와 결혼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해  
주고 상대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랑과 전쟁>을 찍으면서  
'결혼이 무섭다'는 생각도 했을 텐데  
의외다.  
촬영하면서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내  
남편은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해  
버린다. 너무 안일한가?(웃음)

“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다.  
”



못 남성들을  
보호 본능으로  
몰든인 화제의  
한그림  
필방





서츠 바이크 리페어 샵  
구두 슈즈원

**남자를 외모로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어디인가?**  
눈빛? 하지만 좋아하면 외모에는 연연하지 않게 될 것 같다. 좋아지면 점점 더 잘생겨 보일 것 아닌가.

**많은 작품에서 깨알같이 등장하는데, 정말 너무 짧게 나와서 당황했던 적은 없었나?**

드라마 〈아들 녀석들〉에 나왔을 때가 가장 비중이 작지 않았나 싶다. 처음 연락받았을 때부터 대사가 한두 마디일 거라고 들어서 당황하진 않았다. 욕심부리기에는 아직 연기를 제대로 익힌 것도, 배운 것도 아니어서 천천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처음에 어머니가 발연기라며 구박하셨다고 들었어. 요즘도 구박받나?**

처음 연기할 때는 그런 면박을 많이 주셨는데, 요즘은 안 그러신다. 대신 다른 걸로 뭐라 하시더라. '눈을 왜 저렇게 뜨고 있냐', '왜 우냐',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는 왜 부르냐'(웃음). 물론 장난으로 하시는 얘기다. 엄마는 언니와 함께 미드를 즐겨 보신다. 한국 드라마는 내가 나온 것만 챙겨보시거든(웃음).

**아까 보니 메이크업 받으면서 단어장을 펼쳐놓고 공부하더라. 정말 워든 열심인 것 같다.**

해외에 놀러 가고 싶어서 미리 공부해 두고 있다. 아직 나가 본 적이 없거든. 일본 제과점의 케이크나 빵 같은 게 맛있다고 해서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다.

**새해 소원이나 결심 같은 건 없나? 이걸 본 MAXIM 독자들이 우주의 기를 모아 당신 소원이 이뤄지길 빌어줄 거다.**

살 빼기. 운동하는 걸 워낙 싫어해서 저질로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웃음). 물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연기력이 느는 거겠지. 올해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체크무늬 탑과 뱅글, 반지 모두 네르  
스커트 예잇세컨즈  
구두 슈즈원

COOPERATIONS 더몰드사네바(070-8273-2018), 라그마켓(02-2675-9083), 네르(nerr.co.kr), 슈즈원(02-3443-1703), 미남서비스라이(02-546-7764), 라그마켓(02-2675-9083), 네트(070-8878-9742), 바이드 리테어 샵(02-546-7764), 예잇세컨즈(1599-0007)



### 한그림

생일 1986년 9월 18일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사학(휴학)

### 이상형

나를 많이 좋아해 주고, 표현을  
잘하는 남자

### 주랑

술은 이에 못 한다. 맛없어.

### 활동 지역

집, 문화센터, 도서관

### 취미

요리, 독서, 봉사활동

# Top 10

2013년 뱀띠 해를 맞아 각 부문 최고의 뱀을 가려봤다.



### 마초상

수상자: 아무르장지뱀  
서식지: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1588-XXXX)

천적이 나타나면 스스로 꼬리를 자르기도 하지만 ㅍㅍㅍ를 하다가 꼬리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 처음에 꼬리가 떨어지면 예쁘게 다시 나지만 새로난 꼬리가 또 잘리면 병신 같은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또 한다. 꼬리가 잘린 채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은데 병신이 된다는데도 할 건 하고 마는 니들이 레알 상남자여.



### 다혈질상

수상자: 능구렁이  
서식지: 돌무더기

조용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이빨로 물고 지보다 몸집 작은 뱀을 잡아먹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다. 독이 없어서 물려도 안 죽고 심지어 아프지도 않다는 게 반전. 성질이 더러워서 밤에도 잠을 못 자는지 야행성이다. 그래서 밤에 도로 위를 기어 다니다가 차에 치여 죽는 능구렁이도 많다.



### 때심상

수상자: 무자치  
서식지: 물 주변

발정이 나면 집단으로 짝짓기를 한다. 그걸로도 욕정이 덜 풀렸는지 겨울잠을 잘 때도 무리지어 잔다. 그래서 '떼뱀'이라고도 한다. 이놈들이 한번에 여러 마리와 해서 그런지 한때 우리나라 뱀 중에 개체수가 제일 많았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뱀으로 환생한다는데 기왕 뱀으로 태어날 거면 무자치로 태어나게 해주쇼.



### 자격지심상

수상자: 이무기  
서식지: 차가운 물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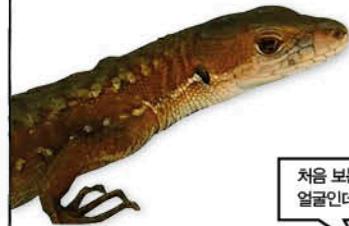
용이 되기 전 단계의 동물로 오래된 구렁이를 말하기도 한다. 차가운 물속에서 천 년 동안 지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엄청난 광음을 내며 폭풍우를 불러일으킨다. 그래도 천 년 동안 멧힌 화풀이 치고는 양호하지? '용 못 된 이무기 심술만 남더라'는 속담도 있다. 용 못 된 것도 서러운데!



### 식신상

수상자: 구렁이  
서식지: 돌담, 돌 틈

집쥐, 두더지, 참새, 참새알, 달걀을 먹고 산다. 우리 조상들은 구렁이를 신으로 섬기며 제물로 여자를 바치기도 했다(심지어 체네). 허를 날름거리며 쥐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다가 LTE 속도로 잡아 몸통으로 조여 질식사키는 게 구렁이의 쥐잡이 스킬. 자기 머리의 네 배나 되는 쥐도 먹방 가능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 Snake



## 미스터리상

수상자: 레비아탄  
서식지: 바다

거대한 고래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상체는 사람, 하체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구약성서에는 딱딱한 비늘에 덮인 거대 뱀의 모습으로 묘사돼 있는데, 등에는 방패와 같은 돌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코에서는 연기, 입에서는 불을 뿜는다고 되어 있다. 디씨에서도 신상 캐기를 포기한 뱀.



## 굴욕상

수상자: 밀크스네이크  
서식지: 사막, 숲, 습지

인간으로 따지면 김애기, 박애쁜 같은 예쁜 별명을 가진 녀석도 있다. 이 뱀은 소젖에서 나온 우유를 먹는 뱀이라고 해서 '밀크스네이크'라는 귀엽고 청순한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명색이 뱀인데 젖동냥이나 하는 우유뱀이라니. 쪽팔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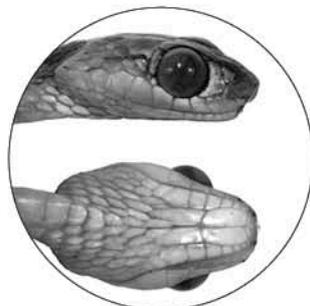
## 도도상

수상자: 살모사  
서식지: 대나무 숲, 잡초가 우거진 곳, 묘소 주변(음침한 구석이 있네)

보통 뱀들은 턱을 땅에 대고 휴식을 취하는데 애는 턱을 쳐두고 신다. 실 때뿐만이 아니다. 늘 머리를 들고 있다. 심지어 꼬아리를 틀 때도 턱을 꼬아리 위에다 놓고 독특한 각도를 유지한다. 도도한 성격만큼 길들이기도 힘들다. 사육하려고 하면 단식투쟁을 벌이다 죽어 버린다. 독한 녀!



알까기!



## 얼짱상

수상자: 이만토데스 초코엔시스  
서식지: 에콰도르 북서쪽 초코 열대우림 지역

얼굴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눈이 크다. 통통한 얼굴에 비해 몸통은 가늘고 길다. 몸통에 비해 얼굴이 너무 커서 몸의 아래쪽을 나무에 칭칭 감은 다음 상체를 휘둘러 개구리나 도마뱀을 잡아먹는다. 에콰도르 카톨릭 대학 소속 연구팀에 의해 최근 발견됐다. 너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잡지에 못나올 뻔 했다?



## 폭풍흡입상

수상자: 아나콘다  
서식지: 하천, 늪, 물에 잠긴 풀밭

세계에서 가장 큰 뱀답게 식욕도 대폭발. 물고기, 새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지 사슴, 카피바라 같이 덩치가 큰 포유류를 통째로 삼킨다. 보통 먹이를 잡아 천천히 식사시간을 즐기는 편이지만 가끔 주위에 방해꾼이 있어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 먹은 게 부대끼면 먹이를 통째로 토하기도 한다. 웬.

아나콘다 vs. 재규어



문양권 110071 정혜민 28



## 무술 감독 정두홍

정두홍은 끝까지 자신이 '배우'로 불리는 것을 꺼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연기를 선보이는 이 남자. 그가 의외로 진짜 하고 싶은 연기는 멜로라고?



**2012년에는 좀처럼 스크린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다. 요즘 뭘 하며 지내나?**

영화 (RED 2)에서 이병헌 씨의 대역을 연기하고 며칠 전에 귀국했다. <다이하드> 팬이었는데, 브루스 윌리스, 존 말코비치 같은 대배우들이랑 촬영을 하다니!

**처음 배운 무술이 태권도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충남 부여라는 산골짜기에서 자랐는데, 세끼 밥도 제때 못 먹는 형편이었다. 어찌된 인연으로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돈 안 받고 무술을 가르쳐주셨다. 그분이 바로 2012년 8월 '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제압한 이각수 관장님이시다.

**무술을 배우고 나서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나?**

싸운 적은 없다. 술 먹고 맞은 적은 많다. 스텐트맨이라고 딱히 잘 맞는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멧집이 좀 세니까 아픔을 잘 못 느낀다는 점이 좋더라.

**대학교 때부터 합기도 시범단으로 해외를 누빈 이력이 있다. 부여 촌놈의 발차기가 세계에서 좀 먹히던가?**

그때 태권도 사범들, 외국에서 돈깨나 굶어 모았을 거다. 외국인들이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완전 히어로 대우를 해줬다. 장충체육관만 한 체육관을 줄 테니 자기 말하고 결혼해달라는 재벌도 있었으니까.

**2004년에 웰컴 프로 복서로 데뷔했다. 프로 파이터들과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주먹을 맞대보니까 어땠던가?**

시합을 준비하는 6개월 동안 내가 태어나서 맞을 양을 다 맞은 것 같다. 무술 감독 출신이니까 '이 새끼 옛 먹어라!' 하고 처음부터 스파링을 시키더라. 스파링 상대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거의 챔피언급을 데려왔다. 완전히 발악하는 심정으로 4라운드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코뼈가 부러졌다.

**코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시합을 나간 건가?**

체육관 관장님은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시합에 나갔다. 처음 3개월은 한 대도 못 때리고 맞기만 했으니까.

**무술 감독, 영화배우, 복서, 피트니스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어렵던가?**

사업이 제일 어렵다. 사람 다루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남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 난 그게 싫어서 우리 직원을 카운터에 앉혀놓고 다른 일을 보러 다닌다(웃음).

**액션을 하면서 가장 심하게 다친 적은 언제인가?**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다. <머나먼 송바강>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였는데, 관측소에서 총 맞고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실수로 머리부터 떨어졌다. 당시 숨이 끊어졌었다. 거기 있던 베트남 의사가 아트로핀 주사를 놓아서 깨어났다. 그때의 기억이 아예 없다.

“

나한테서 액션 영화를 빼앗아가는 건 나에겐 죽음을 의미한다.

”

**<짜짜>에서는 주연을 맡아 꽤 호평을 얻었다.**

**배우로서 인기를 실감하는가?**

나는 한 번도 나를 배우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 <짜짜>에서 주인공을 했어도 '나는 스텐트맨이다'라는 생각뿐이다. 언제나 말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액션 배우가 없다. 액션 영화 한 편 출연했다고 해서 액션 배우라고 하면 개나 소나 다 액션 배우계?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이 친구는 액션 배우로 크면 참**

**좋겠다' 하는 배우를 꼽는다면?**

권상우, 송승헌, 류승범, 이병헌, 정우성 등 셀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액션 배우로 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액션을 하면 배우의 급이 B급으로 떨어져버리는 게 현실이니까.

**다른 장르의 영화 연출에는 관심 없나?**

사람들이 '너는 스텐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라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가 정말로 찍고 싶은 영화는 멜로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같은 것 말이다.

**본인의 외모에 대해 평가한다면?**

0점이다. 내가 액션을 할 때 멋있다고 하는데, 누구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원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것뿐이다. 난 못생겼다.

**"춤 잘 추면 무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본인은 제법 스텐트를 밟는 편인가?**

나는 춤을 정말 못 춘다. 그래서 발레를 배우고 싶다. 발레는 점프력이 좋으니 발레에서 나오는 스프린이나 동작들이 액션과 결합하면 파괴력이 있으면서 우아한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아리따운 스텐트우먼도 늘어나는 추세인가?**

우리 액션스쿨 단원 65명 중 4명이 스텐트우먼이다. 다른 팀도 여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여자 스텐트를 구하기 어려워서 남자가 가발 쓰고 여장해서 차에 받히곤 했다(웃음).

**만약 무술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

당연히 농사꾼이지. 부여를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농부가 됐겠군. 스텐트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하지 마라.

**진심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스텐트는 고통스러운 직업이다. 그 고통 뒤에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보상이





### 정두홍

생년월일 1966년 12월 14일  
신체 180cm, 72kg

소속 한국무술연기자협회 회장  
대표작 (아리랑 장풍대작전),  
(찍매), (지.아이.조 2),  
(RED 2) 등

정두홍이 지도한 가장 액션에  
소질 있는 여배우  
진도연, 고현정

다시 태어난다면  
축구 선수로 태어날 거다.  
축구가 미치도록 좋다.

볼모델  
나의 모든 액션은 실베스터  
스탈론이 원조고 시부다.



“

무술 감독이 안 됐다면  
농사꾼이 됐겠지

”



될 텐데 그렇지도 않다.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덤비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뼈가 부러져서 병신이 되거나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액션에서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엄살 부리고 안 할 거라면 그 작업을 대체 누가 하나? 예전에 <런어웨이>라는 작품을 할 때 이병헌 씨 대역을 하기로 했는데, 전날 다른 영화 찍다가 쇠골이 다 부서졌다. 다음 날 아침에 붕대를 칭칭 감고 촬영을 끝낸 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독하니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웃음).

**그렇게 독하니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지.아이.조 2>나 <RED 2>를 작업하면서 미국, 런던, 체코 영화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액션에 반했다.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 홍콩의 액션은 화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개싸움'이다. 각목으로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하는 게 진짜 '싸움'이지.

**해의 촬영을 하려면 영어를 쓸 일이 많은 텐데, 영어는 마스터했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면 10분도 안 돼서 준다. 너무 졸려서 걸으면서 공부해보기도 했는데, 심지어 걸으면서도 졸더라.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나?**

액션을 잘하고 싶어서 밥을 굶어가며 운동한 적이 있다. 몸이 가벼워야 점프력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면서 진짜 죽어라 운동만 했는데 실력이 도저히 안 는는 거다. 나중에 점점 몸이 병신이 되더라. 운동한 만큼 쉬어주고 잘 먹고 잘 자야 실력도 는는 것을...

**정두홍에게 액션이란 무엇인가?**

생명. 나한테서 액션 영화를 빼앗아가는 건 나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다.

**정두홍에게 예쁜 여자는?**

정말 보기 좋은 떡.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재킷 팬츠 모두 지이크

# ADVENTURES OF A STUNT WOMAN

호주계 에스토니아인 스텐트 우먼, 잉계 실딩크, 뛰고 쳐박히고 추락하고 넘어지고...  
영화 <위대한 개츠비>, <수퍼맨 리턴즈> 등에서 별의별 액션 연기를 경험한 그녀에게도 이번 MAXIM 촬영은  
새로웠을 거다. 왜냐고? 그녀가 무찌를 악당 역으로 우리가 그녀의 할머니를 섭외했거든!





그녀의  
스턴트 연기



33

발목 재건 수술도 받았고  
골반 탈구, 둔부 혈종...  
몇 번 기절한 적도 있다.

99



**어떻게 스텐트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 어릴 때 꿈이 스텐트 맨이었나?**

스텐트 일은 내 운명이다.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인 아이였다.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했을 때부터 스키와 아이스 스케이트를 탔다. 세 살 때부터 발레와 체조를 배웠고, 나중엔 수영과 테니스도 했다. 커서는 꿈을 좇아 런던에 가서 현대 무용으로 커리어를 쌓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에는 더 많은 액션과 모험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영화와 TV속 스텐트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이 일이 정말 좋다!

**오늘 화보에는 당신의 할머니도 함께 등장했다. 그녀는 정말 핫한 할머니인데, 어떤 분인가?**

할머니가 90세라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이다. 내가 90세가 됐을 때 지금 그녀만큼 건강한 게 소원이다. 할머니는 에스토니아 출신이다. 평소에는 할머니를 '바네마'라고 부른다. '바네마'는 할머니의 에스토니아 이름이다. 할머니는 2차 세계 대전 때 어린 아들과 여동생들을 데리고 탈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에스토니아 분이다.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에스토니아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할머니는 늘 곁에서 날 응원해주셨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손녀에게 먼저 먹이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할머니지만 때론 무척 과감하시다. 예수에 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했다. 가족들이 엄청나게 걱정했다. 다행히 지금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차는 87통짜리 코모도다. 내가 면허를 따자마자 할머니를 모시고 달린 차이기도 하지.



**트레이닝 기간 동안은 주로 뭘 하는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90분에서 3시간씩 트레이닝을 한다. 주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요가, 필라테스에 종종 댄스 레슨을 받는다. 근력 운동을 가장 많이 한다. 역할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역에 맞는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이클레멘 격투, 체조 등에 더 집중하는 거다. 같은 트레이닝이라도 더 도전적이고 다양하게 하길 좋아한다. 가능하면 야외 운동이 더 좋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스텐트 연기는 뭔가?**

떨어지는 것과 싸우는 연기. 바닥에 처박히고,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고, 어딘가에서 추락하고, 어딘가 위로 떨어지고... 정말 많이 떨어졌다.

**당신의 스텐트 연기는 어디서 볼 수 있나?**

'Ultra U'라는 생리대 CF에서 발코니에서 경중



**영광의 상처**

이 여자, 어디 몸 성한 데가 있을까? 그녀가 일하면서 입은 부상의 종류는 과연?

- 발가락뼈 골절
- 발목 재건 수술
- 무릎 골절
- 골반 탈구
- 둔부 혈종
- 어깨 탈구
- 손목 골절
- 그리고 몇 번의 기절

뛰어내려서 자동차 트렁크로 착지하는 연기를 했다. <슈퍼맨 리턴즈> 비행기 추락 신에서도 날 볼 수 있을 테고, 잘 하면 내가 보일지도!

**스텐트 우먼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몸매를 유지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남자들을 때려눕힐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새로운 의상을 입는 것, 재능있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놀라운 장소에 가보는 것. 호주는 구석구석 다 돌아본 것 같다. 뉴질랜드, 영국, 아프리카도. 나쁜 점은 극한 작업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엄청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텐트 신은 무엇인가?**

역시 최고는 <카지노 로얄>의 오프닝 추격 신이제!

**그럼 가장 맘에 드는 자신의 스텐트 연기를 꼽는다면?**

의상과 세트가 훌륭했던 <위대한 개츠비>나, 말 타고 벌판을 달리던 영화 <제시카>, 내가 봐도 멋있었다.

**사람들과 일하는 것과 동물들과 작업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편한가?**

동물들과 일하는 게 좋다. 충성심, 지혜,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사랑을 가진 놀라운 생명체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과 함께 자랐다.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하면 늘 집으로 데려왔다. 동물과 함께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있다. 강한 유대감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기꺼이 당신을 믿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 말대꾸를 하지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는 좋은 친구다. 보상과 동기부여만 잘 준다면 원하는 모든 걸 동물들과 나눌 수 있다.

**동물에서 배우까지, 그간 함께한 동료들과 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해 달라,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다. 시드니에서 레이디 가가와

작업했었고... 영화는 <위대한 개츠비>, <수퍼맨 리턴즈>, <스텔스>, <마스크 2 - 마스크의 아들>, <울프 크리>과 그 외에도 다양한 단편 영화, 쇼, CF에 출연했다.

**스텐트우먼의 촬영장 일상이 궁금하다.**

세트 장에서는 하루가 매우 일찍 시작된다. 도착하자마자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의상을 갈아입는다. 촬영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몸을 풀기도 하고, 한 장면도 보통 여러 앵글에서 찍기 때문에 여러 번 같은 스텐트 연기를 해야 한다. 보통은 어떤 스텐트 연기인지, 재시도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배우와의 호흡은 어떤지에 따라 촬영 시간이 달라진다. 분장실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매우 늦은 시간에 퇴근한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미국에서 점프 훈련으로 스카이 다이빙을 연습했다. 그런데 낙하산이 안 퍼지는 거대! 어쩔 수 없이 낙하산을 끊어버리고 보조 낙하산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다행히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남자를 찾는지? 당신처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어야 하나?**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드레날린이 풍부하면 좋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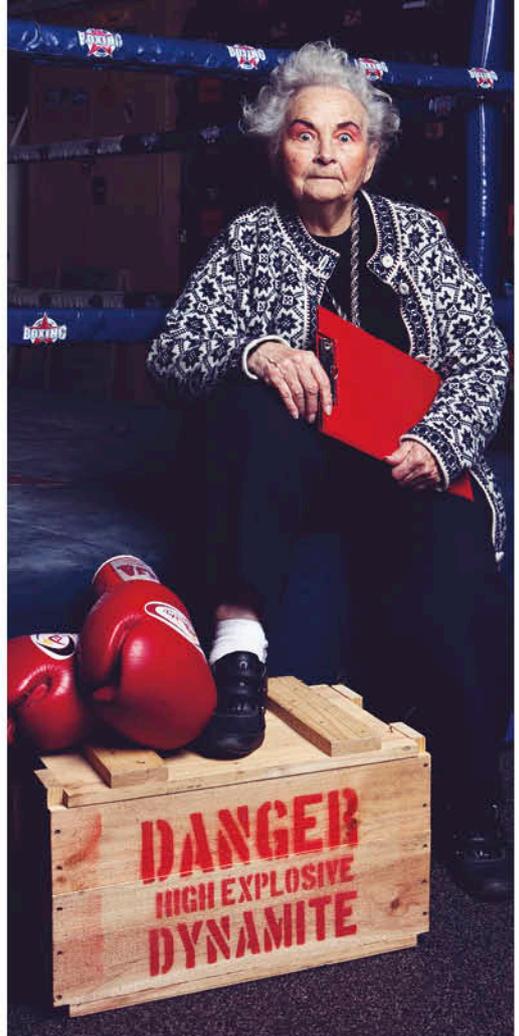
하다. 군살없고 탄탄한 몸을 가진 남자가 좋다. 그렇다면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 야외 활동을 즐긴다면 더할 나위 없고! 그리고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할 마음을 가진 남자가 좋다. 그리고 나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내게 도전의식을 일으켜서 계속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여자는 다 그렇다.

**데이트는 어디에서 하는 게 좋아?**

개인 제트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흥청망청 쇼핑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해가 뜰 때까지 파티를 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면 조금 창의적인 데이트 코스도 좋다. 요트에서 일몰을 감상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동물원에서 밤에 동물들과 함께 별을 올려다보는 것도 매우 로맨틱할 것 같다. 아니면 범퍼카를 타러 가는 것도 괜찮았다. 운전이 서투르면 직접 내가 스파르타식 훈련을 해줄거다.

**예쁜 스텐트 우먼들은 올려 다니는 편인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가 어딘지 알려 달라.**

당연하지. 화요일 밤마다 모두 모여서 <탑기어>를 시청한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 그렇긴 한데 쉬는 날엔 주로 시드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닌다. 참고로 내 친구들도 외모가 훌륭하다. 나처럼. 🍷



66

미국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죽을 뻔 한 적이 있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살아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99



### 화려한 이력

다 합치면 몇 단어야?

- 검술, 봉술, 쿵푸 검은 띠
- 발레, 현대무용, 재즈 댄스
- 체조
- 임팩 자일링
- 공중 그네와 곡예
- 경마 가수 - 마장 마술, 종합 마술
- 전문 스카이 다이빙 자격증
- 보트, 제트스키 면허증
- 전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 실상 스키, 수상 스키
- 자동차 - 오토매틱, 수동 드라이빙, 카 스티트 드라이빙, 오토바이 면허증
- 오토바이 면허증
- 운동치료사 과정 이수
- 개인 PT 마스터 자격증
- 필라테스, 요가 강사 자격증
- 반려 동물 인증서

MISS MAXIM

# 2012 MISS MAXIM The Winner

대선보다 치열했던 2012 MISS MAXIM 콘테스트.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최종우승자 단영(Danning Fu)의  
카리스마 넘치는 화보가 그 피날레를 장식한다.



↑ 퍼 세킷 금상첨화  
화이트 뷔스티에 아장 프로보카퇴르  
언더웨어 샤벌

→ 구두 슈즈원



PHOTOGRAPH ARC STUDIO FILM 송종민 HAIR & MAKEUP 이현정 ASSISTANT 박수현 LAYOUT 서운정

해맑은 웃음도  
매력적!





## 용호상박.

2012년 MISS MAXIM 콘테스트를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은 없다. 예선부터 8강, 4강에 마지막 결승까지 쟁쟁한 미녀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단영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다. 결승의 총 투표 인원은 5,802명. 상대는 역대 최고의 가슴과 귀여움을 자랑하는 매력녀 엄상미. 12월 5일, 투표 배틀 마지막 날 드디어 최종 결과가 나왔다. 단 8표차로, 단영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

내가 우승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

블랙 뷔스티에 아장 프로보카뮈르  
언더웨어 샤벨  
구두 엘리자벳



축하한다!  
맥심 너무 좋아! 완전 기쁘대!

2012 MISS MAXIM 우승자로서, 어떤 콘셉트에 도전하고 싶나?  
승무원 화보를 찍고 싶다. 고등학생 때부터 꿈이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주겠다. 어떤 승객과 촬영하고 싶나?  
얼마 전 드라마에서 본 남자가 떠오른다. 수영 선수 같은 몸매에 키가 아주 크고 잘생겼다. 눈이 작은 게 특징이었는데...

소지섭을 말하는 건가? 쟤장, 우리 태워달라는 뜻이었다고. 

구두 도니체티



올해 우승자 단영의 영어 이름은 대닝 푸 (Danning Fu)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최고의 화장품 회사인 A사에서 광고 관련 일을 해 오던 수재로 영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 "어릴 때 세계적인 모 초콜릿 브랜드 광고에도 출연했어요. 물론 뒷모습뿐이었지만요." 그녀는 사진에 친숙하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장난을 치다가도 셔터 소리가 나면 멋진 포즈와 표정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앞으로 MAXIM의 모델로서 또 어떤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지, 어떤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족시킬지 기대가 되는 바다.





“

승무원 콘셉트의 화보에  
도전하고 싶어요.

”

구두 엘리자벳

“

승리의 비결?  
잘은 모르겠지만...  
엉덩이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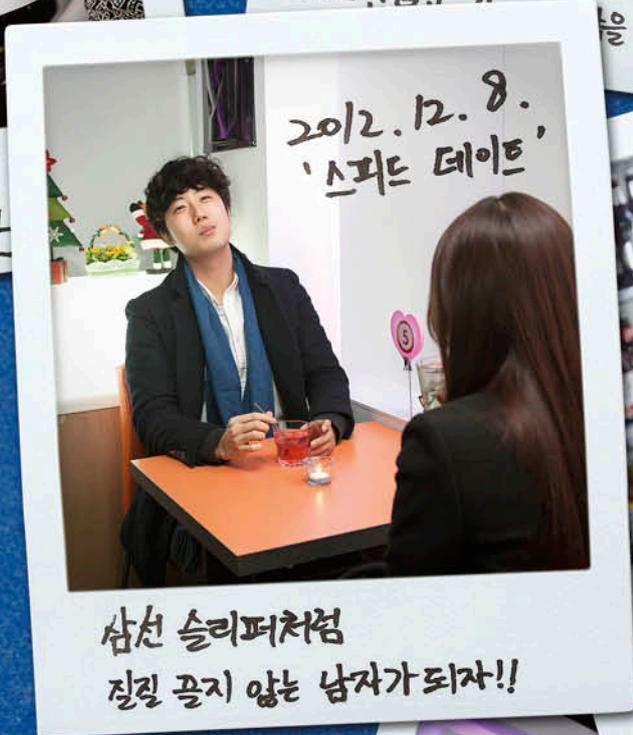
”



나는 미팅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제 야동은  
그만하고 ... 을 만나고 싶다.



2012. 12. 8.  
'스피드 데이트'

삼선 슬리퍼처럼  
질질 끌지 않는 남자가 되자!!



내 꿈은 해저왕!  
17개의 데이트를 향해하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 종소리가 울리면: MAXIM 에디터의 스피드 데이트 체험기

주어진 시간은 7분. 그녀의 마음을 훔쳐라.



## 사랑, 남들은 있는데 내겐 없는 것

죽어라 노력하고 뭘 짓을 해봐도 애인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소개팅을 해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의 만남도 좀처럼 애인 모드로 발전이 안 되는 거다. 남 얘기가 아니다. MAXIM 에디터라는 간지 터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인생을 돌아켜보면 고향에 딱 찬 노폐물을 오른손으로 빼줘야 했던 기간이 훨씬 많았다. 빌어먹을!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떠올려보면 고추들과 소주병 나발을 불던 기억밖에 없다. 카카오톡처럼 엉덩이 사이로 꼬리가 달린 신체적 결함이 있다가,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원하는 노약자의 배를 후려치는 패륜적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또 연말이 왔다. 오늘도 외로움이 왼쪽 4번 갈비뼈를 파고들어 척수를 타고 시상하부 깊숙히 사무치는 밤이 찾아왔다.



무알콜 칵테일이 제공된다. 술 약속은 알아서 따로 잡으란 얘기다.



### 참가자들의 직업

남자	여자
디자이너 1명	회사원 7명
회사원 5명	스튜어디스 2명
금융계 3명	강사 2명
자영업 2명	초등교사 3명
방송인 1명	통번역가 1명
공기업 3명	간호사 1명
중등교사 1명	디자이너 1명
그리고 에디터 한 마리	

## 12월 8일, 미리크리스마스 파티

요즘 '스피드 데이트'라는 단체미팅이 그렇게 뜨겁다.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한다. 참가비가 있는 게 흠이지만, 맘에 들지 않는 소개팅녀를 만나서 바지락 쪼가리 몇 개 있지도 않은 봉골레 파스타를 꾸역꾸역 목구멍에 밀어 넣어도 4만 원은 훌쩍 넘어간다. 십여 명의 여자를 만나고 짝을 고를 수 있다면 훨씬 경제적인 만남이지 않은가? 망설여서 무엇하리. 당장에 참여 후기와 사진 등을 꼼꼼히 체크해 '지금은 연애 시대'라는 커를 매칭 사이트를 골랐다. 참여하는 남·녀의 직업군과 커를 매칭률도, 웬지 지금이라도 당장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이트 이름도 마음에 꼭 들었다. 이름, 직업, 나이, 핸드폰 번호 등을 적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날 저녁, 참가신청서가 접수되고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가

도착했다. 남자는 39,000원, 여자는 27,000원의 참가비를 입금하면 모든 게 완료다. 12월 8일 '미리크리스마스 파티', 8일 토요일에 짝을 만들고, 일요일에 첫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주 15일에 연극을 보고 맥주 한 잔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서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고백하고 사귀는 스토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해피 크리스마스를 보낼 상상을 하니 좌심방에서 우심실로 보내는 피의 양이 많아져 왼쪽 가슴이 뭉클거리기 시작했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12월 8일, 매서운 추위가 강남역을 강타했지만 한 남자의 왼쪽 가슴은, 삼계탕이 품고 있는 찹쌀밥처럼 뜨거웠다. 들뜬 마음에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분위기를 살폈다. 약속 시각이 되자, 하나둘씩 참가자들이 도착했다.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짹짹 놀랐다.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는 거 아니겠어?' 라고 주변에서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외모, 조건이 평균 이상이 많았다(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 오늘 참가자는 남·녀 17쌍, 총 34명이었다. 에디터의 번호는 5번,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신청한 순서란다. 사회자가 모두를 주목시키고 데이트 시작을 일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이 종소리가 울리면 남자는 다음 번호 테이블로 이동하며 총 17명의 여성과 만남을 가진다. 한 테이블당 주어진 시간은 7분 정도였다. "오늘은 인원이 많아 시간이 평소보다 더 짧습니다. 이름, 직장, 사는 곳 물어면서 호구조사만 하는 건 묻는 사람도 17번 물어봐야 되고, 대답하는 사람도 17번 대답해야 돼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색다른 질문을 통해 강한 인상을 주도록 하세요." 그렇다.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 이날 짝이 되지 않은



남녀는 주최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으니, 느낌이 통하면 능력껏 전화번호를 교환하라는 팁도 빼놓지 않았다. 이 좁은 공간에서 몸뚱이와 주둥이만 가지고 벌이는 생존 게임이라니, 아... 오늘 헛바닥에서 와이파이가 좀 터지는 날이 되겠구나.

### 처음 뵈겠습니다

사실 첫 상대인 5번 여성과의 대화는 기억이 희미하다. 처음이라 어버버하면서 별 얘기도 나누지 못했다. 나이가 나보다 몇 살은 많았던 것밖에 인지하지 못한 채 종소리가 울려 6번 테이블로 이동했다. 실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만남이 너무 짧았다. 한 단계씩 테이블을 옮겨 갈수록 물어보는 질문의 폭이 좁아지면서 요령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

**누리:** 많이 어색하시죠? 다들 파이팅 넘치시네요. 이런 거 처음이신가요?

**여자:** 네, 처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괜찮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누리:** 그러게요. 다들 약간 전투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여자:** 네, 점심 먹고 나왔죠. 그쪽은요?

**누리:** 전 우유에 코코볼 말아먹고 나왔어요. 호랑이 기운은 안 나지만 마지막에 국물이 끝내주잖아요.

**여자:** 하하. 맞아요. 그 초콜릿 맛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누리:** 네, 그거 한 뼛배기 하고 나왔어요. 실례지만 어떤 업종에 종사하세요? 풍기는 고풍스러운 아우라가 반기문 사무총장급이신데...

**여자:** 하하하. 무슨 일할 것 같아요?

**누리:** 지금 귀엽게 퀴즈 놀이 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1대 100> 나갔지. 앞으로 4분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여긴 나이트가 아닙니다.

**여자:** 하하하. 애들 가르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예요.

**누리:** 일등 신봉감이시네요. 여기 분들 직업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애들 말 안 듣죠? (첫 경험을 초등학교에서 한다던데)

**여자:** 그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성숙한데요. 놀랄 때가 많아요.

**누리:** 전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유심카드에 용량이 남아서 그러는데 그쪽 전화번호를 저장해도 될까요?

”



여자가 양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다.



사회자의 M.I.C와 아빠했던 종



10번 테이블 여성이 늦게 도착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서 체력을 보충했다.



종소리가 울리면 우르르~



온갖 보디 랭귀지를 동원한 구애

# MAXIM Report #6

가벼운 마음으로 가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테이블을 옮겨 갈수록 이건 신세계였다. 데이트 내내 기대감으로 광대가 수직 상승해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물 좋은 나이트클럽을 가서 웨이터에게 팀을 아무리 꽃아줘도 초등학교 선생님, 스튜어디스 같은 직업의 여성을 17명이나 부킹해 올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나중에 연결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괜찮은 처자는 전화번호를 저장해가며 항해하듯 테이블을 옮겨 다녔다. 주변을 둘러보니 명함을 건네는 사람, 부끄러워하며 대화의 흐름이 자주 끊기는 사람, 거들먹거리며 자기 사업 얘기를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타입의 남자들이 있었다. 흠... 내가 너무 선수 같았나.

## 머리를 맞대는 시간

어느덧 카페 한 바퀴를 다 돌아 총 17명의 여성과 만남을 마쳤다. 이제 간단한 빙고 게임을 할 차례다. 미팅 전, 미리 나눠준 쪽지에 적힌 이름과 커플 관계에 있는 이름 쪽지를 가진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진행했다. 에디터가 가진 쪽지는 '쌈디'였고, '레이디 제인' 쪽지를 가진 여성과 커플이 되었다. 사회자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서 빙고 칸을 지워나가며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 취지였지만, 이것이 커플로 이어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에디터의 짝이 별로였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사회자가 준비한 빙고 게임, 유치한데 재밌다.



여기 짝 좀 바꿔주세요!

확고 다닐 때 발표를 이렇게 하지 이사람들아.



빙고 게임으로 친밀감 UP!



어머, 오빠 F40?

## '지금은 연애 시대'에서 평가한 이날 남·녀의 평균 스펙

남자	여자
나이: 32세	나이: 28세
스펙: 중간 정도, 몇몇은 상위권	스펙: 좋다
외모: 올해 들어 가장 훈훈함	외모: 올해 들어 가장 출중함
센스: 너무 자신감 넘치거나 어색하거나	센스: 좋음
대화 스킬: 부족한 편	대화 스킬: 대화를 잘 풀어 나감
인간미: 좋음	인간미: 훈훈하고, 순수한 매력까지

## 매력 발산

마지막으로 자기 어필의 시간을 가진다. 남자들은 대부분 쑥스러워하며 “안녕하세요. 남자 5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의 기본 정보만 겨우 얘기했던 반면, 여자들의 소개는 조금 달랐다. “여자 7호입니다. 지랑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 마음이 달았다면 그분께서도 절 선택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장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서 손이 많이 시럽습니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실 마음 따뜻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여자 11호입니다.” 30여 명 앞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게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텐데 그녀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번호를 각인시키려 노력했고 모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꼭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 발언이 끝나면 사회자가 나누어준 종이에 마음에 드는 이성 1위, 2위, 3위를 적어서 제출한다. 가장 가까운 순위가 커플로 연결이 되는데, 최종 결과는 그날 자정이 되기 전에 문자로 짝의 전화번호와 함께 통보된다. 그렇게 그날 밤, 들뜬 마음으로 그저 문자만 기다렸다. 병신같이 실실 웃으면서 말이다.

##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데를 누가 나가?’라는 경솔한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며 여자도 만나고 취재도 할 겸해서 참가했던 에디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른 안팎의 나이에 혼기의 막다른 길에서 자기 짝을 찾기 위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참가했고,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에디터는 짝이 연결되지 않았다. 발렸단 말이다. 나중에 주최자의 말에 따르면 너무 농담이 많고 여러 여자에게 들이댔던 점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제길, 같이 웃어줄 땀 언제고.

유독 연말만 되면 외로움에 사무치는 건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만은 아닐 거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짝이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외롭다. 쓸데없이 눈이 너무 높지는 않았는지, “이 나이에 그런 거 못해!” 하며 자존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늘어나는 뱃살을 방지하면서 “그래, 어차피 안 생길 거야” 하면서 스스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체면이나 지나친 자존심이 좋은 짝을 찾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름날 수박껍질에 파리 꼬이듯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꼬이는 원빈 같은 비주일이 아니라면 꾸준한 자기 관리와 잦은 대외활동이 수반되어야 짝을 찾을 수 있다. 정말 외롭고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보자. 집구석에 처박혀서 텅골거리면서 “외롭대!”고 징징거리는 행위는 그 와중에도 싱크대 밑에서 떡 치고 일을 넣는 바퀴벌레보다 한심해 보이니까 말이다. ☹



마음을 적은 쪽지를 제출하면 미팅이 끝난다.

## ‘지금은 연애 시대’ 운영자가 알려주는 스피드 데이트 비법

### 어떤 복장이 먹히나?

**남자:** 정장이 가장 무난하다. 배가 나온 체형이라면 어실픈 캐주얼은 절대 입지 말 것. 여름철 반바지와 슬리퍼는 제발...

**여자:**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가 좋다. 채굴과 다리가 드러나면 게임 끝이다.

### 실제로 커플이 되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결혼한 사례도 있나?

커플 성사율이 30% 정도다. 12년째 530회 이상 진행하다 보니 결혼한 사례도 꽤 많다. 얼마 전, 11월 25일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다.

### 가장 인상인 손님은 어떤 경우인가?

자기가 몇 표 나왔는지, 누가 날렸는지 알려달라고 조르는 사람. 한 표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다.

### 데이트에 7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뭘 물어봐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호구조사하러 나온 게 아니다.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을 물어보는 것도 10번 이상 하면 지친다. 간단히 오늘의 패션과 헤어에 대해 과하지 않은 칭찬으로 시작해서 직업 정도만 간단히 물어보라. 퇴근 후에 하는 일, 운동,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도 그 분야나 취미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좋다.

###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제하라’고 할만한 주제가 있나?

본인의 직장 얘기, 자기 자랑, 상대방에 대한 지적, 과거의 여자친구와 닮았다고 하는 얘기 좀 하지마. 미친놈들애!

### 미팅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남자의 유형이 있다면?

내 번호를 써달라고 집착하거나 애원하지 마라. 완전 짜질해 보이니까.

MAXIM From Russia

# Russian Beauty With Lust

러시아 MAXIM 편집부가 수많은 러시아 미녀 중 고르고 고른  
다리아 코노발로바, 그녀가 지금 시베리아 대륙을 온몸으로 녹이고 있다.



다리아 코노발로바

생년월일: 1989년 2월 13일  
2010 미스 러시아 1위 수상

MAXIM From Russia





“  
신중하고 현명한 남자를 원한다.  
물론 난 아마 그런 타입과는  
전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겠지.  
”

러시아 미인대회 수상자의 남자 고르는 법이 궁금하다!  
강하고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 물론 난 아마 방금 말한  
타입과는 전혀 반대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그럼 우리 같은 덜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말인가?**

그건 좀 곤란한데? 난 함께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한다. 참고로  
난 모스크바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제길. 그럼 공부 빼고, 주로 뭘 하고 노나?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치달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한번은 남자친구를 놀라게 하려고 털 코트 안에  
란제리만 입고 나타난 적이 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날 집으로 데려가고, 둘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널 위해 깜짝  
놀랄 일을 준비했어!"라고 선수를 쳤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길래 그러니? 설마 그도 제킷  
안에 란제리만 입고 있었나?

그 정도는 약과다. 그는 날 위해 시내에서 최고로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 그 얘길 듣자마자 "집에 뭘  
깜빡 두고 와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하급지갑 옷을 갈아입고 왔다. 상상해 보라. 고급  
레스토랑에 란제리를 입고 앉아있는 여자라니!

**아, 이미 우린 상상하기 시작했는걸... ㅎ**

아버지, 저 러시아로  
유학 갈래요.

“  
철학적 주제를 두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



## 러시아에 대한 7가지 잡상식

1. 지하 100m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역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다.
2. 애주가 보리스 옐친의 간은 2007년 그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도 알코올에 담겨 보존돼왔다. 생전에도 그렇게 알뜰했겠건만!
3. 러시아의 인구는 142,517,670명으로, 세계 9번째 인구 대국이다.
4. 러시아 사람들은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지 않는다.
5. 억만장자가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모스크바다.
6. 세계에서 가장 큰, 700석 규모의 맥도날드 매장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있다.
7.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라답게 총 12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유일한 곳도 바로 러시아이다.



“

털 코트 안에 란제리만 입고  
남자친구를 놀라게 해주려고 했다.

”



러시아 최고  
미녀는?



# Sex

SEX OF  
THE MONTH



## 이 달의 최강 섹스: 덱스터

배워봅시다, 덱스터의 테이블 섹스 즐기는 법!



### DEXTER ON HANNA

악당들만 골라 죽이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덱스터는 새로운 살인 타겟인 한나 맥케이를 자신의 살인 전용 테이블에 발가벗겨 눕힌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죽을 목숨, 끌리는 대로 하라'며 자신을 맡겨 버린 그녀에게 발가해버리고, 곧바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삽입을 시도한다. 다른 애무는 필요 없다. 자신을 훌쩍 벗겨 테이블 위에 눕히고는 나체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남자라니... 어차피 지금 한나는 흥분해 있는 상태다.

〈DEXTER〉 SEASON 7의 6, 7화 중에서

### 무작정 따라하기

- 1 여자를 테이블 위에 눕히고 옷을 벗깁니다.
- 2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여자를 내려다보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훑습니다.
- 3 여자가 흥분했다 싶으면, 재빨리 올라 타서 바로 삽입합니다.



수컷 난이도 ★  
 암컷 난이도 ★★★  
 수컷 쾌락지수 ★★★★★  
 암컷 쾌락지수 ★★★★★



# Sex / Use Your Tongue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축구선수 이영표-

## 설 양 설 래 舌往舌來

### 오렐보감 下: 男子편

가만히 누워만 있던 그녀가 스스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에게 황홀한 서비스를 선사하는 기적을 볼지니...

'오렐 섹스는 말 그대로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거다. 입술이나 혀로  
수컷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펠라치오', 암컷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쿤닐링구스'라고 한다. 쿤닐링구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넘치니 이번 달엔  
펠라치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MAXIM 2011년 3월호 LOVE 기사 중에서-

→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MAXIM 3월호에는  
'오렐섹스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잘 나가다가 남자의 아랫도리 앞에만 가면 얼음(이) 되는 여자들의  
속마음에 대해 아주 구구절절하고 솔직하게 썼는데, 쓰다 보니 펠라치오  
이야기만으로도 어찌나 할 말이 많던지 쿤닐링구스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이번호의 주제는 오렐섹스,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못다한 쿤닐링구스에 대한 썰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쿤닐링구스라고도 하고 커닐링구스라고도 하는데 뭐가 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슈퍼패스!



# Sex / Use Your Tongue

## 잘하는 남자의 기준

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여자들도 모이면 남자 얘기가 많이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저절로 섹스 얘기가 나온다. 니 남친은 어떻게 해주는지, 내 남친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여자들의 부류(?)가 두 가지로 갈린다. 부러워하는 여자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여자로 말이다. 그중 가장 부러움을 사는 여자는 오렐섹스를 잘해주는 남친이 있는 여자다. 반대로 말하면 오렐섹스를 잘해주는 남자가 가장 잘하는 남자로 평가받는 거다. 물론 당신의 그곳이 크거나 오래하거나 죽이는 스킬을 갖고 있어도 좋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도 입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잘하는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거다. 오렐섹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하지만 의외로 남친이 입으로 해주지 않아 고민이라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쿤닐링구스를 좋아하지만 그녀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는 남자들도 많다. 여자치고 오렐 섹스 싫어하는 여자 없지만 당신이 해준다고 해도 그녀가 거절하고 빼는 건 왜냐고? 그건 오렐 섹스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프로가 된다는 것은 싫어하는 일도 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NBA의 전설 Julius Erving-

## 말할 수 없는 이유

그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단번에 허락하면 좀 놀아본 여자 같을까봐 두 번 정도 거절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절대 안 해준다. 제갈공명도 삼고초려에 넘어갔는데, 최소한 세 번은 권해야 되는 거 아냐?

② 여자들이 쿤닐링구스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부끄러워서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파트너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다리를 활짝 벌리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쿤닐링구스를 쉽게 허락하면 경험이 많은 여자도 의심받을까봐 부끄러운 척, 익숙지 않은 척 하는 여자들도 많다. 그녀가 수줍어하며 '다음에...'라고 말하거나 '나 안할래'라고 앙칼지게 말한다면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더 권해볼 것. 그녀가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 할 거다.

## “

물론 당신의 그곳이 크거나 오래하거나 죽이는 스킬을 갖고 있어도 좋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잘하고도 입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잘하는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클럽에서 아는 오빠랑 놀다가 MT로 향했다. 술도 많이 마셨고 이미 클럽에서부터 진한 스킨십이 오고갔던 터라 방문을 열자마자 폭풍 사사 모드로 들어갔다. 근데 그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술이 확 났다. 저...저기 씻을 시간을 좀 주겠어?

③ 두 번째 이유는 준비가 안됐어서다. 어차피 술도 취했겠다 마음 같아선 눈 딱 감고 당신의 서비스에 받고 싶지만, 섹스가 끝난 뒤 찾아오는 성녀타입에 폭풍 같은 후회가 밀려올 거란 걸 여러 차례의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의 부주의로 인해 당신의 기억 속에 평생 냄새나는 여자로 낙인찍힌다는 건 좀 억울하잖아? 갑자기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다고 해도 좋고 그냥 복도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해도 좋다. 단 1분 만이라도 씻을 시간을 줘!

I'm Ready!



하긴 하는데 혀로 몇 번 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드러누우면 길이 확 빠진다.

④ 스스로 쿤닐링구스를 즐겨 해서 그녀의 아랫도리에 자진해 얼굴을 파묻는 남자면 완전 땡큐다. 하지만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모든 남자가 쿤닐링구스를 내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야 당신이 정말 원해서 하는 건지 기브 앤 테이크를 노리고 억지로 하는 건지는 알 도리도 없고 별 상관도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의무감에 하는 것 같은 오렐섹스는 부담스럽고 자존심 상해서 다음에는 별로 받고 싶지 않다. 기왕 하는 거 정성들여 해준다면 당신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기대해도 좋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철저히 지켜지기도 하는 것이 오렐 섹스의 법칙이기도 하니까, 가는 오렐이 고와야 오는 오렐도 꾀다는 말 몰라?

## 내 생애 최고의 쿤닐링구스

⑤ 자, 그녀와 쿤닐링구스를 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만나자고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상남자라면 여기서 만족할 수 없겠지? 기억해라. 훌륭한 쿤닐링구스 스킬은 사넬 서프백보다 더 먹여주는 아이템이라는 거. 세 치 혀만 잘 놀려도 400만 원을 그냥 절약할 수 있다는 거다. 이제야 가르쳐 줘서 미안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정성들여 음몸을 혀로 할했다. 원나잇치고는 보기 드문 매너였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나는 그의 혀가 그곳에 닿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 "사랑해."

⑥ 본격적으로 쿤닐링구스에 돌입하기 전에는 그녀의 다리나 허벅지 안쪽을 먼저 애무해주는 것이 좋다.

당신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기대해도 좋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철저히 지켜지기도 하는 것이 오렐 섹스 불변의 법칙이기도 하니까.



간혹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곧장 G마켓을 클릭하는 직설적인 남자들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달아오르고 천천히 식는 여자들의 몸 특성상 G마켓으로 직행하는 것보단 우회하는 편이 더 나을 거다. 당신이 허벅지 안쪽을 애무하는 동안 그녀는 점점 뜨거워질 거고 당신의 허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엔 이미 한껏 달아올라 있을테니까. 그러니까 허벅지 애무로 그녀를 예열시키면 별다른 쿤닐링구스 스킬이 없어도 만사 오케이라는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허를 LTE 속도로 움직이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중간중간 뭔가 해냈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봤지만 정작 난 별로 좋지 않았다. 잘 못 느끼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불감증 걸린 여자처럼 보일까봐 그냥 좋아하는 척 했다.

⊕ 그녀를 예열시켰으면 이제 화력을 높이자. 허를 잘 놀릴 단계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허의 움직임을 빠르고 화려하게 하면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빠르고 화려한 스킬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한 허놀림에 우리의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은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한 '강약중강약' 스킬을 시전하면 된다. '강약약 중강약약' 스킬로 업그레이드 되면 완전 땀큐베리감사하고. 마찬가지로 클리토리스를 찾았다고 해서 그곳만 집중적으로 애무하는 건 별로다. 클리토리스에 강한

자극을 주면 물론 우리의 기분은 날아갈듯 좋지만 너무 강한 자극을 오래 느끼다보면 그 뒤로는 당신이 무얼 하든 별 감흥이 없어진다. 클리토리스를 찾았다고 너무 달리지 말고 강약중강약, 알겠지? 그리고 대다수의 남자들은 허끝을 주로 사용(?)하지만 허 안쪽과 옆 부분까지 허를 끌고루 사용하면 그녀가 색다른 기분을 느끼며 더 좋아할 거다. 손가락의 입장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파든 검지로 파든 촉감이 비슷하지만 쿡구멍의 입장에서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이치와 일맥상통하리라.

### 내 생애 최악의 쿤닐링구스

⊕ 그렇다면 최악의 쿤닐링구스는 뭐냐고? 최악의 쿤닐링구스 같은 건 없다.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쿤닐링구스를 해주는 남자는 일단 다 좋고(사랑해요!), 쿤닐링구스를 안 해주는 남자는 중간 정도. 최악은 자기는 해달라고 해놓고 우리에게는 절대 해주지 않는 남자다. 배려심 없는 남자와는 다시 자고 싶지 않다.

혹시 그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한다거나 왠지 당신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당신이 쿤닐링구스를 하는 남자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 당신이 쿤닐링구스를 해주는 남자로 변신한다면 목석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던 그녀가 스스로 이불을 걷어차고 두 발로 일어나 당신에게 황홀한 서비스를 선사해 주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다. 근데 여자들은 오렐 섹스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나고? 삽입할 때에는 완전히 전혀 네버 에버 차원이 다른 쾌감이다. 그건 아무리 설명해줘도 절대 모를 거야. ☹

연습할 시간이다!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달인 김병만-

# Military



아 낚, 어떤 새끼가 별사항만 빼 갔어?

나만의 전투식량 만들기!



## 야전에서 먹는 진수성찬 전투식량

전쟁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다. 사기 저하의 주된 원인인 굶주림은 곧 패전만을 낳을 뿐. 이에 개발한 특별한 먹거리가 바로 '전투식량'이다. 휴대성을 극대화한 이 특수 식량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종류도 다양한 데다 인류의 식생활 습관까지 바꾸어놓았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1804년 니콜레옹은 효율적인 전투식량 보관 방법을 공모하게 된다.

### 전투식량의 기원

오늘날처럼 인스턴트형 전투식량이 없었던 고대의 병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전시 상황이 되면 병사들은 대부분 육포나 생살을 씹으며 굶주림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였고, 정신이 나간 일부 병사는 민가를 약탈해 직접 식량을 조달해 먹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삼국시대에 신라가 말린 명태인 북어와 각종 잡곡을 모아 가루 형태로 간을 해서 전투식량으로 사용했다. 이 잡곡 가루가 오늘날 미숫가루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과일 역시 병조림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음식이다. 아오! 저 씨발라!

니콜라 아페르가 개발한 병조림이었다. 유리병에 조리한 음식을 담고, 살균. 밀폐해 비교적 장기간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인 병조림은 훗날 프랑스군이 뛰어난 기능성을 발휘하게끔 만들었고, 각국과 벌인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전투식량이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좋은 예라 하겠다.

### 병조림: 프렌치 레볼루션

하지만 음식물의 밀폐 보존법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투식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1804년, 전쟁이 길어지자 니콜레옹은 장기간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공모한다. 여기서 채택된 것이 프랑스인 의사

### 통조림: 세기의 발견

당시 프랑스와 라이벌 관계였던 영국은 병조림을 참고해 보다 뛰어난 전투식량을 개발한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유동 골뱅이를 있게 한 피터 듀런트의 통조림이다. 통조림은 병조림에 비해 무겁지만 훨씬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고, 내구성이 좋아 병처럼 깨질 위험도 없었다. 이후 통조림은 병조림을 대체해 각국의 전투식량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야전을 떠나 가정의 식탁에까지 당당히 오르게 된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전투식량은 이따위로 찢다. 심지어 보관도 힘들었다.

통조림 스팸은 사실 미군의 대표적인 식자재다. 어떻게 먹어도 짠 그 맛.

It's special menu for picnic seasoner with name is more than just a popular sandwich meat.

A great breakfast meat. A great salad meat. A great casserole meat. A great cock-out meat. A great pizza meat. A great snack meat. A great sandwich meat, too!

**SPAM** A lot of meat. But not a lot of money. Hormel

Found in Mom's Basement

# Military

## 건빵: 빵인가 과자인가! 너는 무엇이나?

당시 이와 함께 곡물을 굽고 말려서 급식하는 형태인 건빵이 전투식량에 포함되는데, 건빵을 빵 종류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크래커와 같은 과자류로 분류하고 있다. 건빵은 중동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 십자군전쟁을 거치며 유럽으로 흘러 들어오고, 수분이 매우 적어 보존성이 좋았기 때문에 선원과 해군들의 환영을 받았다. 1801년 미국으로 건너간 건빵은 남북전쟁 당시 규격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북군에 배급되면서 전투식량의 하나로 자리잡는다.



초기 건빵의 모습. 너무 커서 보관이 힘들었으며, 발레가 자주 꼬여 '웜 캐슬 (지렁이 생)'이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오늘날의 건빵. 사실 우리 군의 건빵은 과거 일본군의 건빵에서 유래된 것이라 전통(?) 방식의 건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트 메뉴화된 전투식량인 시레이션은 이후 세계 전투식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 시레이션: 세트 메뉴의 등장

통조림의 탄생 이후 전투식량은 패키지화된 형태로 발전한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투식량이었던 추억의 '시레이션(C-RATION)'이다. 시레이션이란 야전에서 개인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전투식량이라는 의미로, 두 개의 통조림과 하나의 액세서리 팩으로 구성되었다. 이쯤 되면 맥도날드 런치 세트 부럽지 않다. 통조림 하나는 조리된 육류 혹은 육류와 채소가 뒤섞인 소시(소시지 야채볶음) 스타일의 주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빵과 인스턴트커피가 들어 있는 후식이었다. 액세서리 팩에는 숟가락과 휴지, 생냥, 강통 따개 그리고 사탕과 견,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 들어 있었다.

## 고칼로리, 고효율

이러한 시레이션은 요즘도 쉽게 볼 수 있는 세트 메뉴와 같은 전투식량이었다. 규격화된 시레이션의 보급으로 전선의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양가 높은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다. 또 대량으로 보급해 전쟁의 폐허 속에 굶주리던 민간인들에게 제공하는 구호물자로 활용하기도 했다. 종전 후에도 시레이션은 세계 각국의 표준 전투식량 모델로 자리 잡았고, 이후 구성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다.



이후 개발된 시레이션은, 내용물에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확실히 '식사'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네스퀵 10종 세트 같이 보이지만, MRE는 시레이션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의 전투식량이다.

### MRE: 강동을 대체한 레토르트 전투식량

통조림을 기반으로 한 전투식량은 튼튼했으나 벽돌급 무게를 자랑해 병사들이 휴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용기 제작 단가가 비싸, 미군은 1960년대부터 통조림을 대체할 장기 보관 용기 개발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레토르트 식품이다. 레토르트 식품이란 플라스틱 필름 등의 주머니에 이미 조리가 끝난 음식을 넣고, 공기나 수분이 통하지 않도록 밀봉, 가열 살균한 식품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저녁밥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3분 요리 시리즈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레토르트 식품은 통조림에 비해 포장이 얇고 무게가 가벼운 데다 부피마저 작아,

전투식량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이어 1981년 미군은 레토르트 식품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투식량, MRE(Meal, Ready to Eat: 직역하면 '밥, 먹을 준비' 정도랄까...)를 선보인다. 게다가 1992년, 물만 부으면 발열이 되는 발열 팩이 추가되면서 불 없이도 따뜻한 MRE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 MRE는 처음 등장할 당시 12가지 메뉴가 있었으며, 그 종류는 갈수록 늘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두 배인 24종류에 이른다. 심지어 채식주의자용 메뉴나 회교도용 메뉴 등, 병사 개인의 개성을 고려한 메뉴까지 선보여 이하년도 반갑게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 우리나라의 전투식량

우리 군이 전투식량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한국전쟁 때까지만 해도 군의 대표적인 전투식량은 주먹밥이었다.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에도 통조림 형식의 전투식량 MCI가 지급되었지만, 우리 입맛엔 맞지 않는 미국식 먹거리들이었다. 결국 1967년 2월부터는 밥과 김치 등으로 구성된

통조림, K레이션이 보급되었다. 이후 우리 군도 자체 개발한 고추장 볶음, 통조림, 건빵 등을 생산해 우리나라 특유의 맛을 살리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형 전투식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전투용 I형'의 전투식량이 개발되었다. 특히 1996년 강릉 대간첩작전 이후로 MRE와 유사한 발열 팩이 담긴 즉각 취사형 전투식량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이 패키지는 볶음밥과 양념 소시지, 쇠고기 콩, 볶음김치, 초코볼, 파운드케이크 등으로 구성되었다. 물과 불이 없어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즉각 취사형 전투식량은 우리나라인의 조리법과 맛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개발에 힘쓰고 있다. 역시 밥심이 짙이리라. ☺

⊖  
이제는 전투식량도 DIY 시대. 상단에 깨알 같은 하이츄가 보이느냐.



### 에디터의 DIY 전투식량

전투식량 기사를 쓴보던 에디터는 사무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결국 입을 저지른다.



#### 1. 생크림 샌드

한 패키지에 세 개가 들어 있는 모습! '전투식량으로서 최적화된 사이즈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으나, 전투식량은 원래 쉽게 부패하지 않으니 괜찮다.



#### 2. 홍시

큰 부피가 부담스럽지만 되도록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선택해야 했다. 수분이 없는 곳감이 더 좋지 않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딱히 좋은 선택은 아니다.



#### 3. 헤이즐넛 코코아 크림

생크림 샌드를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한 소스. 미국의 향취가 짙게 풍겨나니 '우방의 맛'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전투식량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언빌리버블 고칼로리!



#### 4. 훈제 닭가슴살 & 치킨 소스

단백질 섭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강인한 신체를 가진 남성이 모델이니 사기 잔작에도 좋을 터, 휴대가 간편한 치킨집 보급형 소스와 함께라면 훨씬 만족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



#### 5. 후식용 커피 & 담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잃을 순 없는 법. 역시 아메리카노보다는 당분이 많은 카라멜 마키아토를 선택한다. 애연가라면 없어서는 안 될 연초의 영원한 파트너.



... 줄지만 뭔가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원반형 후식을 넣어 봤다. 완벽하다!

# Party

IMPALA



## in BUSAN

### 부산 파티 찍고! 대구 파티 찍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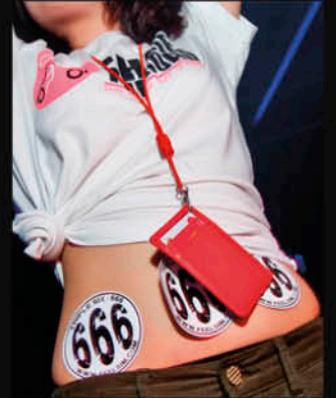
이러다 전국 팔도 다 돌겠네.

더 많은  
사진은  
여기에서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서울 클럽에서만 놀아나던 에디터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 마침, 주말 내내 부산과 대구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걸 당연히 놓칠 수 없는 대형 떡밥이었다. 공짜로 당첨된 외식상품권처럼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것! 그리하여 불타는 금요일 밤, 퇴근과 동시에 짐을 싸서 부산으로 떠났다.





**DEC 7th:**  
**CLUB IMPALA IN BUSAN**  
 클럽 임팔라는 개그맨 지석진이 운영하는 클럽이다. 해운대, 종로, 서면까지 불과 다섯 달 사이에 세계의 클럽을 차례로 오픈하다니... <런닝맨>에서는 맨날 유재석에게 당하기만 하던 그도 사실은 능력자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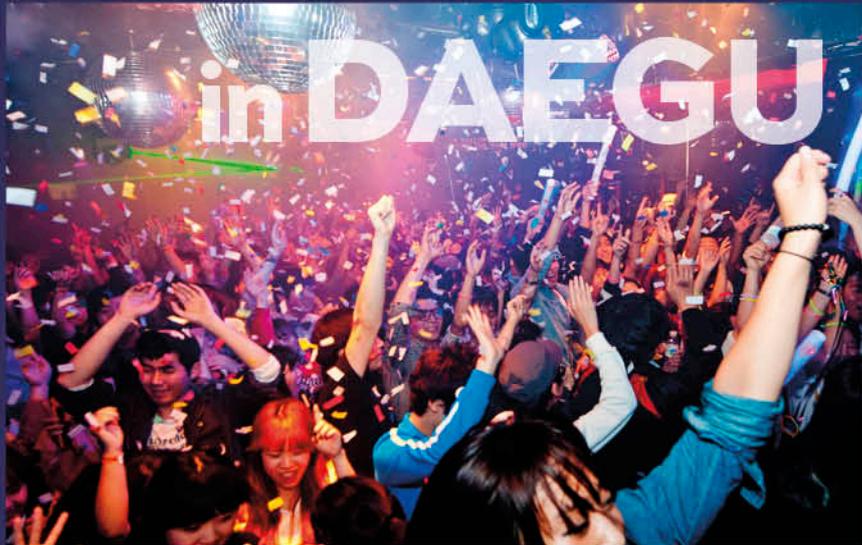


# Party



츄름츄름 예가마이스터를 훌쩍거리며 음악에 몸을 맡기던 사람들은 빨라지는 음악 비트에 맞춰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다. 부산 서면 바닥에서 잘 노는 남자, 여자는 이날 여기 다 모인 것 같았다. 그것도 작정하고 온 게 분명했다. 남자들은 아예 옷통을 벗어 던졌고(꺽)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셔츠를 입은 여자들은 단추를 가슴 끝 아래까지 풀어헤쳤고, 티셔츠를 입은 여자들은 아랫단을 올려 묶어 허리를 드러냈다. 과연, 화려한 부사녀들 다왔다.





DEC 8th:  
 CLUB 5th Lounge, CLUB MK IN DAEGU  
 다음 날,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에서 5th Lounge의 오픈 파티가 있었다. 라운지 파티장 곳곳에서 럭셔리함이 묻어났고, 파티 피플의 드레스업 또한 화려했다. 대구의 강남이라는 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정을 넘기고는 동성로로 향했다.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클럽 MK의 카모플라주 파티를 위해서였다. 클럽 안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하지만 스테이지와 분리된 라운지 공간은 매우 은밀한 분위기였다.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엉겨있는 대구 남녀를 보며, 함께 동행한 지인은 부러움의 사자후를 내질렀다. "대구 남자 XX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무엇든  
찍어봐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블랙다이아스'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1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깁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심규보**  
평생 30%  
기대하라고 했었지? 약속은 지킨다. 보고 코피 짜지 말고 남은 군 생활 열심히 하길!



**김대연**  
평생 30%  
애들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아쉽다! 너희한테 못 해준 게 많아서 주는 선물이니깐 군 생활 많이 남았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남은 시간 맥심 보면서 (불)알차고 즐겁게 지내렴. \*^^\*



**신재욱**  
평생 30%  
나 전역하고 나서 호국 훈련하느라 모두들 수고 많았고,ㅠㅠ 아무튼 내가 알던 후임들 모두 몸 건강히 무사히 전역했으면 좋겠구나! 날 추워지는데 방한대책 강구해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ㅋㅋㅋㅋㅋ



**조민수**  
평생 30%  
애들아, 나다. 전역하고 맥심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하니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쩌겠나. 맥심에서 좋은 거 준다는데,ㅋ 사회에 나와보니 알다시피 박은 좋더라. +\_+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 생활이지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은 가니 인생에 한 번인 군대 생활 재밌게 보냈으면 한다. 군대에서야 간부와 병사 사이지만 나와서는 형, 동생으로 자주 연락하고 잘 지내보자. 때리지는 말아라.ㅋㅋㅋ 건강해라, 애들아!!



**김홍중**  
평생 30%  
아직도 거기 있나?? 갑갑하겠구만,ㅋㅋㅋ



**이재민**  
평생 30%  
지난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별별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 사회에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군대라는 이유로 선임이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후임이 된다는게 왜 그렇게 곱고려웠는지. 군대에 있어본 사람들만 알겠지.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것을,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참... 내 후임들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성격이 좋아서 덕분에 군 생활을 편하게 한 것 같아서 고마워. 그래서 남은 군 생활 재밌게(?) 마치라고 맥심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화끈한 선물을 보낼게. 파이팅~!



**이동우**  
평생 30%  
이제 좀만 있으면 12월의 3대 약재가 온다. 폭설, 축한기 그리고 솔로들의 영내 크리스마스 나기 절망하지 마라. 니들도 내년에는 밖에서 나처럼 글을 올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라고 덕담을 해주고 싶지만 이건 그냥 염장글이다. 전역 전날 너희들이 '솔로대첩'에 가고 싶다고 했지. 근데 너넨 군바리이야. 군인은 단체 활동 같은 거 하다 걸리면 영창에서 손가락이나 빨다 나올 거야. 내가 가서 인증샷 폐복에 올려서 니들의 꿀만 자같은 배알을 뒤롤리게 해주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제철 작업은 주말에 해야 제맛.



**조동진**  
평생 30%  
전역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월호 12권 잘 받아라. GOP라서 뭐 못 받고 그런 거 필요없다. 난 사회에서 눈 내릴 때마다 너네 생각...은 개불 인간인 기분 만개해야지. 꼬우면 전역하던가.



**김창동**  
평생 30%  
군대 있을 때가 제일 좋다는 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감은 안 난다. 다른 사람들처럼 니를 악물리는 말은 하지 않을게.ㅋ 안에 있으면 뭐하노, 이런 잡지라도 하나 더 보고 힘내야지. 안 그래? 내 없어서 이제 맥심 보는 사람도 없을텐데,ㅋ 아무튼 남은 군 생활 수고해라, 후시 모르는 거 있거나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고!



**최현탁**  
평생 30%  
관둘대에 내 선물은 잘 받았냐? 페트병에 고이 잘 넣었냐. 휴가를 오래 나와있어서 전역할 때 실감도 잘 안 나더라.ㅋㅋㅋ 군 생활 이거면 버틸만 하겠지? 3소대 우리 애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몸조심하고 50년 안주거리니까 추억 멋지게 만들고 나와라. 괜히 고민하지 말고 밖으로 일단 나와봐. 밖이 훨씬 낫다. 조금만 더 힘내.



**이동선**  
평생 30%  
애들아~! 나 먼저 나간다!! 부럽지? ㅋㅋ 부러우면 전직에 일찍 군입대 하지 그랬어? ㅋㅋㅋ 나처럼 밥 먹듯이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바쁘게 지내면 시간 흑~하고 갈 거야~ 대한민국 국군 중 최고의 브레인인 자랑하는 연합사 장병들! 조금만 더 고생해! 그리고, 나 나이 많다고 '웅' 취급한 사랑스럽고 자랑스런 4소대 ~ I will miss you y'all~ 이제 내가 전역했으니 맥심 및 그 외 아햏햏한 것들은 어떻게 볼 거야? ㅋㅋ 빨리 내 후임자를 찾도록 해.



**전태중**  
평생 30%  
사회로 복귀하미자 바로 전역인증하러 맥심 홈페이지 방문했다.ㅋㅋㅋ 국수사 지원처와 CP, 니들이 국수사의 에이스이자 엘리트다. 엘리트 5분대 항상 파이팅하고 과월호 보면서 이 겨울 추운 마음 달래거라. 휴가 나오거나 하면 연락해. 밥 한 끼 정도 사줄 수 있다.

위 12명을 비롯하여 총 7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장규우 평생 30% V.M.P가 되었다!

# MAXIM KOREA

## 2013년 정기 공개 채용



세계 85개국에서 발행되는 최강의 글로벌 남성 매거진 MAXIM의 한국 법인에서 2013년 정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MAXIM과 함께 지구 최고의 매거진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재치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 전형 절차>

소속	모집직군	전형 절차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차 면접전형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임원 비서직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과제전형 ▶ 3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온라인 뉴스 기자	
디자인팀	영상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편집 디자이너	
편집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부	스타일링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전형 절차	기간	유의 사항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2012년 11월 7일 ~ 2013년 1월 22일 자정까지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접수. ※ 정해진 방법 외로 접수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증명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1차 전형(서류) 합격자 발표	2013년 1월 28일 저녁 9시	MAXIM KOREA 홈페이지에 공고
이후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후 일정 통지

### <서류 전형 면제자>

대상자: MAXIM에서 6개월 이상 어시스턴트로 근무하였거나, MAXIM에서 대학생 인턴십을 수료한 자. (필수 지원 자격은 갖추어야 함)  
특전: 서류전형 통과 (근무했을 때와 다른 부서에 지원 가능)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상의 <서류전형 면제자>란에 체크하고, 자기소개서 없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여 접수할 것.

### <근무 형태>

인턴직: 사내 규정상의 인턴기간동안 근무하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진  
급여조건과 복리후생: 사내 규정에 따름  
근무장소: 서울 홍대입구 MAXIM KOREA 빌딩



###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소속	모집직군	모집인원	필수 지원 자격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0명	-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 가산점 유)
	온라인 뉴스 기자	0명	- 전공 무관
	영상 에디터	0명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스타일링 에디터	0명	
디자인팀	편집 디자이너	0명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일러스트레이터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 가산점 유)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0명	- 전공 무관 / 관련 학과 우대
	임원 비서직	0명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필요적성 및 우대요건>**

소속	모집직군	직무	필요 적성 및 우대 요건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온라인 홍보/ 바이럴 마케팅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기획 -클럽 파티 플래닝 -모델 에이전트	-클럽 파티 플래닝 유경험자 -홍보대행업무 유경험자 -바이럴 마케팅 유경험 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자 -대외관계 및 친화력이 좋은 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우수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콘텐츠 기획 -기사 작성 -화보 촬영 디렉팅 -섭외 -기타 MAXIM 매거진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	-작문 능력이 있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자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자 -영어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 -매거진 에디터 및 어시스턴트, 인터넷 뉴스미디어 유경험자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능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온라인 뉴스 기자	-대외 취재 활동 전반 -온라인 기사 작성 -해외 MAXIM 기사 번역 등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영상 에디터	-화보 현장 촬영 -영상 취재 -영상 편집 -기타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업무 전반	-영상 촬영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세련되고 감각적인 촬영/ 편집이 가능한 자 -영상 관련학과 및 경험 우대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스타일링 에디터	-화보 의상 스타일링 -헤어 및 메이크업 스타일링 -기타 편집부 지원 업무	-직접 헤어/ 메이크업 가능한 자 -헤어/ 메이크업/ 의상 관련 학과 또는 교육기관 수료자 -패션과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뛰어난 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디자인팀	편집 디자이너	-매거진 편집 디자인 -디지털 매거진 제작 -전자출판 관리 -웹디자인 -기타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	-Adobe Indesign 툴 사용이 능숙한 자 -지면 구성, 시각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자 -시각 디자인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일러스트레이터	-매거진 삽화 -웹툰 -티셔츠 등 제품 삽화 디자인	-Painter 툴 사용이 가능한 자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자 -회화, 웹툰, 캐리커처에 능하고 다양한 그림체가 가능한 자 -외향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회화, 만화 기타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직무 유경험자 -MAXIM의 매체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리는 자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매거진 유통 및 재고 관리 -구매 고객 관리 -판로 개척 -온/오프라인 서점 감독 -전산 설비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친절하며 대외 친화력이 좋은 자 -온라인 쇼핑몰 MD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임원 비서직	-CEO 또는 편집장 보좌 업무	-수행비서로서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비서 기타 서비스직의 적성을 가진 자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직무 유경험자

**<문의 사항>**

공채 관련 문의사항은 [recruit@maximkorea.net](mailto:recruit@maximkorea.net) 으로 이메일 문의 바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MAXIM BUYER'S EDGE



**DAUM이 야심 차게 준비한 웹 게임, 삼국야랑 오픈!**  
 바쁜 직장생활과 치열한 학교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활력을 되찾아줄 웹 게임 '삼국야랑'이 1월 8일 출시된다. '삼국야랑'은 별도의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짬짬이 즐기기가 좋다. 게다가 기존 웹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그래픽과 차진 타격감으로 일상에 지친 게이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전망이다. 착착 붙는 타격감이 장점인 수타 웹 게임 '삼국야랑'과 함께 화려한 2013년을 시작해보자!  
 문의 삼국야랑(3ya.daum.net)



## 군장병과 예비 민간인 대상 라식 특별 할인 이벤트

라식하고 훈남으로 페이스오프하고 싶은 군장병과 예비 민간인들은 주목하라. 서울밝은안과에서 군 장병과 전역자를 대상으로 최대 30%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원데이 라식, 라섹 수술은 반나절이면 안경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 수술과 동시에 사회 복귀 준비와 유희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 오랜 시간 안경을 써왔거나,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면 MAXIM 에디터가 추천하는 서울밝은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백날 패션 안경 끼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 뭉겜지.

문의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http://www.yourlasik.co.kr))



## 아이유, 아이온을 만나다

NC SOFT의 온라인 MMORPG 아이온이 4.0 버전의 신규 업데이트와 함께 아이유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다. 사적으로 적과 맞서는 새 캐릭터와 음악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음유성 캐릭터를 추가해 대규모 업데이트다운 면모를 갖췄다. 또한 이번 4.0 업데이트를 맞이하여 아이온은 별도의 이용 요금 없이 45레벨까지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아이유가 부른 새로운 O.S.T.도 아이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가된 혁신적인 캐릭터와 함께 자유 플레이 서비스까지! 아이유 만나러 아이온에 지금 바로 접속해보자.

문의 아이온([www.aion.co.kr](http://www.aion.co.kr))



## 고른 치열, 아라 치과와 함께해요~!

진짜 남자라면 호탕하게 웃을 줄 알아야 하는 법. 혹시 못한 치열 때문에 웃을 때 입을 가리는 게 버릇이라면 아라 치과에서 교정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아라 치과는 오랜 교정 경력을 지닌 의사진과 완벽한 소독 시스템, 그리고 모든 스텝파가 치위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또 치아 진단 검사를 통해 자신의 구강 상태로 확인하고 교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치과 가는 게 두려워 골머리 썩다가 치아까지 다 썩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아라 치과 강혜경 원장님을 찾아가자.

문의 아라 치의원(02-515-3855, [www.arasmile.co.kr](http://www.arasmile.co.kr))



## 아이폰5, 슈퍼히어로를 입다!

대한민국 대표 액세서리 브랜드 애니모드가 마블코믹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아이폰5 전용 마블 케이스 2종을 출시했다. 마블 페이스 실리콘 케이스는 캐릭터의 얼굴과 고유의 색상으로 디자인했고, 그림감과 입체감을 더한 제품이다. 또 영화 <어벤저스>의 인기 캐릭터가 그려진 하드 케이스도 아이폰 5 전용으로 선보여 소비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당신이라면 애니모드 마블 캐릭터 케이스를 구매하자. 자, 그림 이제 아이폰5만 있으면 되는 거? 가격 25,000원 문의 애니모드(02-6711-3500, [www.anymode.com](http://www.anymode.com))



**여름이나 겨울이나 소우스킨 쏘 클린 클렌저만 있으면 존슨 걱정 이상무!**

소우스킨 쏘 클린 클렌저는 남성들의 살 부분에 생기기 쉬운 습진이나 피부 질환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다. "냄새 때문에 관계가 좀 꺼려졌는데,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면 알아서 쓰겠죠. 남자친구를 위해 사줬지만 솔직히 저 좋으려고 샀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으나 신뜻한 쿨함에 반했습니다." 이처럼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다. 천연 추출물로 만들어 민감한 피부에도 쓸 수 있으니 일단 한 번 써보자~ 내 존슨은 소중한니까요!

가격 35,000원 문의 소우스킨(02-445-5760)

**코카콜라, 알루미늄 캔투어 에디션**

코카콜라가 특별한 보틀 에디션을 출시하며 2013년 새해를 연다. 이번 에디션은 2008년 세계적인 패키지 디자인 어워즈인 펜타 어워즈 (Penta Awards)에서 플래티넘 어워즈를 수상한 특별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차가운 알루미늄 재질과 코카콜라 특유의 붉은 색을 사용해 강렬한 이미지를 풍긴다. 특히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 출시된다고 하니 스페셜 에디션 컬렉터라면 주목할 만한 아이템. 백화점, 호텔, 카페에서만 판매할 예정이다. 많이 마시면 코카콜라 광고 속 하얀 곰탕이가 될 수 있으니 조심.

가격 2,500원

문의 코카콜라(www.cocacola.co.kr)



**아벤느, 겨울 스포츠 선키어 제안**

설원 위의 스포츠를 즐기는 겨울철,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민감성 피부에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벤느에서 나온 선키어 3종을 추천한다. 크림, 에멀전, 미네랄로 구성된 이 제품은 모두 SPF50+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민감한 피부를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할 수 있고 물과 땀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아벤느 선키어 제품으로 눈 위를 달리는 즐거움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아벤느(02-3450-1569)



**예한의원 방문하면 여드름 흉터 고민이 싹~!**

쉽게 지워지지 않은 내 얼굴의 주홍글씨, 여드름 흉터. 이제 예한의원에서 개발한 SL흉터재생술로 평생 씻지 못한 여드름 흉터를 말끔히 지우자. 1SET, 2회 시술만으로 흉터 부위에 50% 이상 새살이 돌아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이 손철훈 원장님의 말씀! 또 진료 상담만 받더라도 따뜻한 차와 족욕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마치 VIP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 거다. 특히 MAXIM 독자에게는 더욱 면밀한 피부 진단 검사를 제공하니 이만하면 MAXIM 애독자 할 만하지 않겠는가?

문의 예한의원(02-564-2060, www.ye2060.co.kr)



**새해 첫 UFC 빅 매치!**

**비토 벨포트 vs. 마이클 비스핑**

1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50분, 2013년 새해부터 UFC 빅 매치가 열린다. 메인 이벤트는 '광속 펀치' 비토 벨포트와 '백작' 마이클 비스핑의 미들급 매치로 확정됐다. 두 선수 모두 강력한 스탠딩 타격을 앞세운 중량급 파이터로, 박진감 넘치는 타격전에 목말라 있던 팬들에게 시원한 경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메인 경기를 포함해 총 5경기를 중계한다. 2013년에도 UFC 전 경기는 액션 전문 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된다. 문의 수퍼액션(080-080-0780)

# Fail!

## 이달의 ~~못~~ 몸쓸 사진

이번 호에 실지 못한 아쉬운 미공개 컷 대공개!



김인수

연기를 뽐낼 것 같다.

한경록

### MUSIC 크라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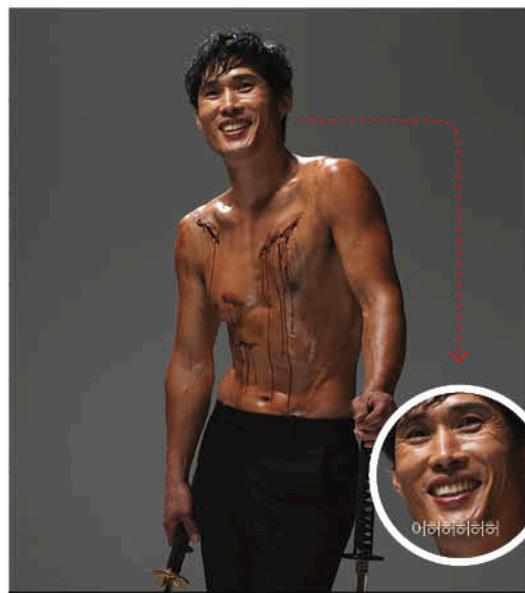
못 쓴 이유: 한경록이 새우깡을 들고 있는 모습이 흡연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김인수의 입모양이 너무 적나라해서).



뿌삼도 필요 없는 원소 아이템!

### 한그림 화보

못 쓴 이유: 모델은 예쁘지만, 거울에 비친 조명 반사용 은박지 때문에.



어허어어어

### ICON 정두홍

못 쓴 이유: 피를 댕직댕직 묻히고 웃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어허어어 어왔나여하~

### STYLE REPORT

못 쓴 이유: 이영환 에디터의 엉덩이가 애처롭게 작아서.



이달의 가장 가까운 사진

### MISS MAXIM 화보

못 쓴 이유: 모든 게 완벽했지만 조명이 안 터졌다. 사진 분위기는 좋지만 잡지에 쓸 수 없었다. 아까워!

조제 알도

프랭키 에드가

# 2013년 2월, UFC사상 최대의 빅매치

알리스타 오브레임

안토니오 실바

안토니오 호제리오 노게이라

라샤드 에반스

페더급 챔피언전

# UFC<sup>®</sup> 156

슈퍼액션 공식블로그



2월 3일 (일) 오전 11시 30분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 MAXIM



KOREA

2013 MAXIM  
정기 공채 D-30

## Fight

역대 최강의 싸움꾼 퍼레이드  
MMA ALL-TIME STRIKER

# TOP 30

무술 감독 정두홍의 피칠갑 쌍칼 액션  
ROAD FC 010 IN BUSAN  
실용성 100% 극진 가라데 스킬

에디터, 여자 머리에 맥주병을 깨다  
미녀 스텐트우먼 INGE SILDINK

## ICON 정두홍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 감독 정두홍. 자신을 그저 스텐트맨일 뿐이라고 소개한 그는 한사코 자신을 영화배우로 부르지 말아달라 손사래 쳤다. 에디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면 그의 손에 피묻은 쌍칼이 들려 있었...

## Love

제한 시간 7분, 에디터의 스피드 데이트 체험기  
레이디 킬러, 고알콜 맥주 아벤티누스  
이달의 SEX: 텍스터의 테이블  
에디터의 섹스가이드: 세 치 혀를 이용하라  
여성 전용 커뮤니티 대탐방:  
소울드레서/ 쪽빵카페/ 쌍화차코코아/ 레몬테라스

## Style

거리 실험: 작업 의상별 폰 번호 득템률  
그 옷 왜 샀어? Theory & Customellow  
남자라면 반드시 가져야할 농구화

여자 타입별로 먹히는 넥타이가 따로 있다!  
6가지 유형의 여자를 사로잡는 6가지 넥타이

# 6:6

## FROM MAXIM RUSSIA

맥심 러시아의 화보를 받아 들고  
맥심 코리아가 맨붕에 빠진 이유  
탈북...

JANUARY 2013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